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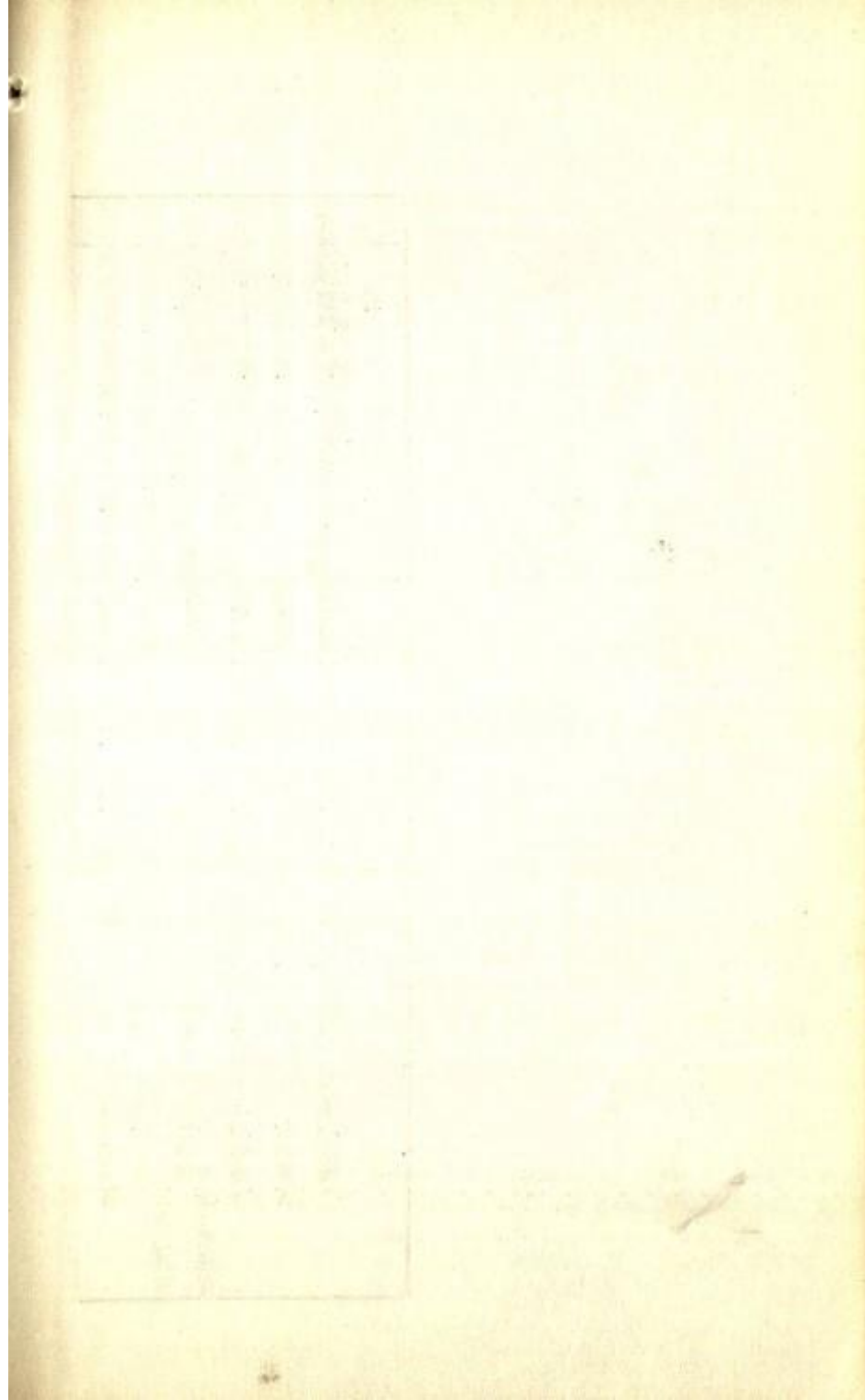
第四代國會經過報告書

國會事務處

69-5771
2 2017

第四代國會經過報告書

國會事務處



六、附·式辭와 致辭

第三十六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尊敬하는 內外貴賓 여러분과 國會議員 여러분!

오늘 第二共和國 첫國會의 開院式을 舉行함에 즈음하여 지난 七月二十九日에 實施된 民議院議員과 參議院 議員 選舉에서 많은 競爭者中에 國民의 代表로써 當選의 榮譽을 獲得하신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祝賀를 드리
음고 또한 議員諸位를 代表하여 式辭를 말씀드리게 되는 것을 큰 榮光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지금도 生生한 저 四月革命에서 高貴한 피를 흘려 大韓民國이 다시 民主國家로서 蘇生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한 靑은學徒와 市民들의 英靈에 敬虔한 마음을 모아 그 冥福을 빌고 生存한 靑은學徒들의 前途를 祝福 하여 마지 않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國會는 大統領과 國務總理의 選任으로 新政府를 樹立하고 施政을 改革할 重大한 任務를 지니고 있으므로 우리들이 指向하는 바 몇가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內閣責任制와 兩院制의 合理的인 運轉에 하루빨리 熟達하여 議會政治의 훌륭한 業績을 세울 수 있는 基礎를 닦아야 하겠다.

오늘날까지 우리들은 많은 政黨들의 起伏과 盛衰를 보아 왔읍니다. 이는 一角에서 自由와 正義를 爲하여 줄기찬 鬪爭을 해 왔다고 하며라도 權力의 爭奪과 感情的 對立 등으로 波動과 紛爭을 免치 못하고 더우기 小黨을 버리고 大道를 따라서 政綱政策을 내세워 國民의 信任에 依하여 政權을 平和的으로 交替하는 民主政治의 美를 거두지 못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主義와 政策을 달리하는 政黨들이 國民幸福을 爲하여 善意의 競爭을 하고 健全한 政黨政治를 確立해야 하겠읍니다.

그리고 政府의 多數黨은 謙許하여 小數野黨의 立場과 意見を 尊重하고 多數의 橫暴는 恣行하여서는 안될 것이며 小數黨은 正義와 名分 아래 多數決原理의 尊重을 議事妨害와 暴力으로써 相殺시키는 일이 없음을 勿論 政治道義에 立脚하여 서로 信賴하고 信賴를 받아 國民이 인제나 國會를 信用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겠읍니다. 또한 參議院은 民議院을 抑制하는 機關에 그칠 것이 아니라 兩院의 意思를 서로 折衷하고 調整해서 國民意思의 一致點을 發見하도록 恒常努力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議會政治의 찬란한 業績을 期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들에게로 우리들은 政治制度의 改革에 뒤이어서 政治的腐敗를 一掃하고 經濟秩序의 合理的 再編成으로 農民과 勤勞大衆의 生活向上을 期함을 비롯하여 社會、教育、言論、文化等 모든分野에 있어서 着着 改革을 斷行하여 早速히 安全性을 回復함으로써 四月革命의 決定的成果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로 우리는 激動的인 國際情勢에 處하여 우리나라의 가진바 位置를 自覺하고 올바른 姿勢를 取하며 早速히 後進性을 克服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라진데 國民은 恒常 國會를 批判、監視하여 名實相符한 國民의 議會가 되어 政府의 心臟部로서의 國會의 機能을 다 할수 있도록 國民여러분의 끊임없는 協力を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의 民主發展을 爲하여 物心兩面으로 援助를 아끼지 아니하는 友邦諸國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고 議會政治의 發展과 議員여러분들의 健康을 빌음으로써 式辭를 代하는 바입니다。

一九六〇年 八月 八日

參議院議長

白

樂

濬

國務總理祝辭

尊敬하는 參議院議長、民議院議長、國會兩院議員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인 內外貴賓여러분！

四·一九民主革命의 結果로 새로 誕生한 第二共和國의 初代參議院과 民議院의 이 嚴肅한 歷史的인 開院式에서 本人이 祝賀의 말씀을 올리게 됨을 無限한 榮光으로 生覺하는 바입니다。

回顧컨데 過去十二年間의 一人獨裁는 及其也 民主主義의 本質을 破壞하였을 뿐만 아니라 國政을 極度로 紊亂하게 하고 國民生活를 날로 塗炭에 빠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國民의 가슴속 깊이 깃들여 있던 自由와 正義의 불꽃은 마침내 이 一人獨裁의 暴虐속에서도 勇敢한 愛國青年學徒들에 의하여 爆發되어 모든 不法과 不正에 抗拒하여 四·一九民主革命을 成就함으로써 우리 大韓國民의 偉大한 民主精神을 世界萬邦에 誇示하였던 것입니다。

이 거룩한 四·一九民主革命으로서 우리는 過去十二年間 一人獨裁政治를 強化하는데 惡用되었던 大統領中心制에 終止符를 찍는 同時 民主主義의 飛躍과 發展을 促進하고 責任政治의 實을 具顯하기 위하여 世界多數의 民主國家에서 採擇하고 있는 內閣責任制의 政府形態로 統治方式을 바꾸기 爲한 憲法改正을 지난 六月十五日에 斷行하고 이 改正憲法에 依한 內閣責任制下에 있어서의 最初의 國會議員選舉가 바로 여러분의 榮光된 當選을 가져오게 한 지난번의 歷史的인 七·二九參議院、民議員總選舉였던 것입니다。

七·二九總選舉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四·一九民主革命精神이 잘 反映된 우리나라 選舉史上 처음으로 가장 自由롭고 平和的인 公明選舉였음을 믿어마지 않으며 또한 이것이 우리나라 憲政運營에 있어서의 道

德的인民主礎石이 되기를 여러분과 함께 빌어 마지않는 바입니다.

本人은 특히 이 자리에서 이와같이 자유롭고 民主的인 지난번의 公明選舉에서 모든 國民의 自律的인 支持를 얻어 그들의 代表者로써 選出된 第二共和國의 初代參議院과 民議院의 議員 여러분이 榮光된 當選을 祝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의 總選舉에서도 一部地方에서는 몇몇 亂動分子들에 依한 開票騷動이 發生하여 아직 그地區의 選舉가 完了되지 못하고 있음을 甚히 遺憾으로 生覺하는 바이며 아울러 그地區의 國民代表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자리를 같이 하지 못하였음을 매우 哀惜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우리는 只今 國內的으로는 過去十二年間의 獨裁政權下에서 累積된 不法不正과 腐敗를 一掃하고 法과 正義에 立脚한 참다운 自由民主政治의 基礎를 確立하여야 할 嚴肅한 歷史的瞬間에 놓여있는 同時 國際的으로는 自由民主陣營과 共產陣營間의 冷戰이 자못 緊迫한바 있어 世界의 모든 自由民主陣營은 그 反共體制的 確立을 爲하여 더욱 積極的인 理解協調와 鞏固한 團結이 要求되는 重大時機에 處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國內的으로 緊迫한 重大時機에 處하여 새로 誕生한 우리 第二共和國의 民主改革事業의 完遂는 國會議員되시는 여러분의 두 어깨에 負荷되게 되었으며 여러분의 使命과 責任이 또한 크고 榮光된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한 바와같이 우리나라는 이제 內閣責任制아래에서 모든 國政이 國會를 中心으로하여 運轉되게

되므로 第二共和國의 初代國會議員으로 當選된 여러분은 過去어느때의 國會議員보다도 榮光되고 더 責任이 重할뿐만 아니라 또한 過去의 獨裁政權下에서 累積된 모든 惡弊를 一掃하고 反民主的立法을 整理함과 아울러 極度로 紊亂하여진 經濟秩序를 安定시키는等 重要하고도 困難한 諸般 民主改革事業이 여러분들의 앞에 山積되어 있는줄로 압니다.

이와같은 民主改革事業을 活潑히 進行시키는 한편 여러분의 愛國的努力으로서 이 政局을 하루바삐 安定케 함으로써 四·一九民主革命에 있어서 自由와 民主主義의 蘇生을 爲하여 犧牲된 愛國靑年學徒들의 거룩한 鮮血에 報答하시는 同時 第二共和國의 民主的發展에 拍車를 加하여 주시기를 全國民과 함께 빌어마지 않는바 임니다.

끝으로 國會議員 여러분의 健康과 幸福을 비오며 아울러 오늘의 이 聖스러운 자리를 마련하게 한 四·一九民主革命의 젊은勇士들의 冥福을 비는 바입니다.

一九六〇年 八月 八日

國務總理 許 政

第三十七回國會(定期會)

開會式辭

오늘 第三十七回國會(定期會)를 開會함에 즈음하여 當面한 몇가지 課業에 對한 말씀을 드리어 議員諸位의 協力を 請하려 합니다.

첫째 開會되는 대로 곧 國會法改正法律案의 審議를 完了하여 交涉團體와 常任委員會를 構成하게 함으로써 앞으로 新政府가 構想하는 모든 改革을 斷行하기 爲하여 提出한 諸 議案을 審議할 수 있도록 國會의 態勢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定期會는 所謂 豫算國會라 하여 豫算案과 그 附隨法案等의 審議를 任務로 하고 있습니다. 豫算案은 政府가 實施할 모든 政策을 數字를 通하여 集約적으로 表示한 것입니다. 이 豫算案의 審議에서 政府를 構成한 與黨은 政府가 그 政策을 所信대로 實踐할 수 있는 財源을 確保하는데 積極적인 努力을 하여야 할 것이며 野黨으로서는 批判적인 立場에서 果然 政府의 政策이 國民의 福利를 增進시킬 수 있을 것인지 綿密히 檢討하여 建設적인 協調와 督勵를 아끼지 아니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銘心할 것은 議會政治를 圓滑히 運營하여 그 實을 遺憾없이 거두기 爲하여서는 政策과 主義를 달리하는 政黨들이 院內에서 善意의 競

爭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歷史上 朋黨과 派爭의 禍를 입어왔고 이로 因한 外侮를 몇번인가 당
해 왔읍니다. 民主政治의 運轉母體인 政黨이 우리 民族의 骨髄에 사무친 쓰라림을 回想시키게 되어 國民의
信賴를 잃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세계 過去 國會의 習性이던 年中開會의 弊端을 없애도록 努力하여야 하겠읍니다. 우리 憲法이 國會의 會
期制度를 擇한 만큼 政府가 一年 동안에 實施할 모든 政策案은 이 定期會에서 다 議決하고 臨時會는 文字 그
대로 臨時緊急의 必要가 있을 때 集會하는데 그치고 餘他的 時日은 政府가 各部의 政務에 全心全力을 기울
일 수 있도록 좋은 傳統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緊急히 制定하여야 할 立法事項은 豫
算關係立法을 除外하고도 革命課業을 完遂하기 爲한 모든 立法을 비롯하여 改正憲法에 依하여 留保된 事項
과 整理하여야 할 數많은 日帝法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많은 課業을 完遂하기 爲하여 從來 國會本會
議는 세時間 동안 開會하고 委員會는 그 餘時間을 利用하던 慣習을 고쳐서 夜間에라도 開議할 熱誠을 기울여
앞으로 우리 國會가 빛나는 業績을 거둘 수 있도록 勉勵해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읍니다.

一九六〇年 九月 一日

參議院議長 白樂澹

大統領致辭

지금 第三十七回國會 定期會 開會式이 舉行되고 있는 이 神聖한 歷史的인 자리에서 나는 國會議員 여러분과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오늘 의 榮光을 갖는 바이며 國民앞에서 서로 새로운 盟誓를 드립니다.

回顧하면 過去十二年間에 國會가 말할 수 없는 波瀾曲折을 겪어왔으며 獨裁政權의 汗남 隸屬機關으로서 이 神聖한 義務를 다 하지 못하였다는 事實을 想起할 때 이 不自然한 政治結果가 恒常國民에게 悲慘한 害毒을 입혀왔습니다. 眞正한 民意는 默殺되었으며 三權分立의 精神은 忘却되었습니다.

이 獨裁政權의 罪人들은 또한 저희들의 덕을것만에 눈이 어두웠으며 國民의 덕고 사는길을 막아왔던 것이니이다.

그러나 百折不屈 愛國心에 불타는 國民全體의 抗爭은 不斷히 獨裁政權의 힘을 弱화시켜 왔으며 及其也 젊은 學徒들의 義血로써 四月革命은 完遂되고 말았읍다.

여러분은 國民全體의 信任을 받고 國會議員으로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더우기 뜻깊은 事實은 지금까지 憲法上으로만 있던 參議院이 처음으로 열리는 定期會議가 歷史的인 이 時間에 있다는 것은 國民과 더불어 慶賀하여 마지않는 바이을시다.

지금 第二共和國의 憲法은 議會政治를 命令하고 있습니다. 實質的으로 議會는 모든 政治의 責任과 權力을 가지고 있습니다. 國會議員 여러분들의 良識과 判決은 곧 이 나라 政治가 되고 이 나라의 政策이 되는 것이며 아무도 이것을 막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여러분의 責任은 過重되어 있으며 여러분의 使命은 重大하여 졌습니다. 虛脫狀態에 있는 民心을 收拾하고 法秩序를 確立하며 國民의 道義心을 昂揚시키는 意慾이 바로 難局에 處해 있는 이 나라 政治의 突出發이고 果斷性있는 強力한 施策을 全國民의 協力과 아울러 여러분에게 期待하는 바입니다.

나는 只今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大統領職에 있는 사람으로서 國會議員 여러분에게 懇曲히 바라고 싶은 것은 어떠한 感情이나 利害關係를 떠나서 最惡의 狀態에 處해 있는 國民生活을 보살피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瞬間에도 험뵈고 굶주리는 國民生活의 앞날은 漠然합니다.

내가 이년에 慶南地帶의 風水害狀況을 實地에 踏査하고 돌아 왔습니다만 農作物을 잃은 사람들이 家屋을 破壞당한 사람들, 이 無數한 罹災民들이 다만 救援의 손길만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天災地變의 時急한 對策은 勿論이오 어는 것이 아니고 급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舉國의 인 政治姿勢와 舉族의 인 協同體制가 되어도 이 難局을 打開할 自身을 疑心할 形便에 處하여 더더한 層 國會議員 여러분은 愛國心을 發揮하여 우리 앞에 가로놓인 山積한 問題를 解決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오늘부터 열리는 第三十七回定期國會는 第二共和國의 첫번째 定期國會이며 歷史的인國會로서 全國民의 注視속에서 開會되고 있습니다.

尊敬하는 國會議員여러분!

國民의 生活安定없이 國會가 있을수 없으며 大統領이 있다고 말할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빛나는 義氣를 가지고 國民의 期待에 報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國會議員여러분의 健康을 빌며 이로써 致辭에 代身하는 바입니다.

一九六〇九月一日

大 統 領 尹 潁 善

第三十八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第三十七回國會定期會를 舊年末에 閉會한後 新年初를 맞이하여 第三十八回國會臨時會를 集會하게 되었읍니다.

議員諸位께서는 選舉區에 들어가시어 歸還報告도 내신 充分한 機會도 가지지 못하였을 터인데 豫定보다도 일찍이 臨時會를 開會하게 되었음은 國事의 緊急을 要하는 바 있아오니 널리 諒察하시기를 바라는 바이옵시다.

今般 臨時國會는 憲法第三十五條에 依하여 集會하는 國會로서 革命課業의 完遂에 必要한 立法과 이미 制定된 革命處理法의 執行을 爲하여 法的措置를 取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第三十七回定期國會는 豫算國會 이었으나 國會法制定、憲法改正과 革命立法으로 因하여 遠大한 國策遂行과 責任政治의 具顯을 爲한 立法에 着手할 時間的餘裕를 가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政府는 그 安定에 必要한 時間的容許를 가지었고 豫算의 뒷받침을 받았으며 地方選舉도 完了되어 새 憲法의 運營에 具體的體驗을 가질 段階에 到達한을 압니다.

政府의 機能發揮에는 安寧秩序의 確立에 그 焦點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革命處理期에 있는 治安狀態는 安全保衛態勢를 간추지 못하고 있고 國民生活는 安定을 얻지 못한 채 國民의 道義는 思想的激動과 舞臺에 處하여 그 標準을 잡지 못하고 産業方面에서는 自由經濟育成을 爲한 機構의 設定이 없으며 國民의 念願인 祖國統一의 成就是 爲하여는 그 方策부디 統一되어 있지 아니 합니다. 國民 特別 靑少年間의 思想的傾向은 建設이요 合理的理解와 實踐을 求하고 있습니다. 하걸은 나아가 世界 政局의 變動期에 直面한 우리는 國際關係에 있어 革新的政策과 遠視眼的計劃을 세우도록 國民의 意思를 反映하여야만 하겠읍니다.

第三十七回 開會式辭에서도 言及한 바 있습니다만 內閣責任制의 態勢確立을 爲하여 法을 制定하고 制度를 세워야 될 案件이 山積하여 있고 立法不備로 因하여 日帝時代의 法令을 繼續使用하는 바 많으니 우리 立法 府로서는 建設의 이 되지 못하는 政爭을 止揚하고 小節에 拘礙되지 말고 新生共和國의 法體劑를 早速한 時日 內에 完成하도록 推進하여야만 되겠읍니다.

오늘 兩院合同會議를 集會함에 際하여 兩院의 運轉을 圓滑히하여 兩院制度의 完備을 期하고 兩院關係에 健全한 傳統을 세워 民主制度實現에 寄與할 바를 銘心하여야 하겠읍니다.

國民은 躍動하는 生命力和 實現性있는 希望을 渴求하고 있습니다.

國民의 念願은 議員諸位를 通하여 立法에 反映되어야 하고 國會의 立法은 政府의 施策을 激勵하여 革命 立法下에 生動하는 國民에게 新生活을 嚮導케 하여야만 革命完遂의 實務를 다하게 될 줄 아오니 議員諸位는 이年初의 臨時國會를 새精神과 새態度로 臨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一九六一年一月二日

參議院議長 白樂濬

大統領致辭

새해를 맞이하여 國會議員여러분의 健康과 黨의 本和를 祝福하는 바입니다。

지나해의 여러가지 難題를 지닌채 새해를 맞이하는 國會가 오늘 처음으로 열리는 機會에 나는 여러분에게 意見으로서 말씀하고 싶은 心情도 懇切하고 私的인 情誼의 處地에서 이 어려운 國事를 論議하고 싶은 意慾도 가슴에 벅차고 있습니다。

그러나 形便과 時間이 許諾하지 아니해서 몇가지 느끼는 所懷를 簡單하고도 忌憚없이 말씀하니 諒察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直面하고있는 非常한 難局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處地이 難局을 어떠한 個人이나 또는 어떠한 黨派에도 單獨으로 短時日內에 打開收拾할 수 있는 形便이라면 나는 大端히 기쁘게 生覺하겠습니다。 또 우리國民도 雙手를 들어서 歡迎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떤 個人이나 어떤 黨派에서 單獨으로 이나라의 當面한 難局을 打開할 수 없는 것은 여러 분이나 全國民이나 내 자신이 잘 알고있는 公知의 事實이 운시다。

이 公知의 事實을 어느 個人이나 어느 黨派의 利害를 爲해서 意識적이거나 或은 無意識적이거나 否定하는

態度와 固執을 取한다면 이 나라의 將來는 可히 짐작할 수가 있으며 우리는 歷史의 罪人이 됨을 免할 수가 없
을 것 같습니다. 國事를 擔當하고 있는 與·野의 爲政者들은 勿論이요, 全國民이 一致 團結해서 이 나라의 中
興事業에 邁進한다고 해도 이것이 能히 成就될 自身이 있을까가 憂慮되는데 이 危機의 尖端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貴重한 時間을 이렇게 虛送하고 있을까요.

일찍이 世界第一次大戰때에 國家와 民族보다도 思想과 哲學을 더 重하게 여기던 西區羅巴의 指導者와 知
識人들이 一旦 國家의 危機에 當했을때에 「思想的休戰」이라는 看板을 내걸고 同族共同의 敵에 對해서 一致
團結 하였던것을 우리는 想起하고 銘心해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別다른 意味에서 安定과 建設과 收拾을 要求하는 이 國家的危機에 處하여 「政爭의休戰」을 協定하지
아니하면 안될줄로 生覺합니다.

내가 對外에서 이미 말한바도 있지만 우리는 첫째 與·野間에 協定을 敢行하고 期限附로 몇가지 國家的
重要施策을 내걸고 이것을 함께 克服해 나가는 態勢을 먼저 갖추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래야만 國民에 對해서 奮發的인 協力과 忠愛心을 發揮하기를 바랄 수 있는 것이고 또 友邦에 對
해서도 우리의 自治能力을 誇示할 수 있다고 生覺합니다.

지금 이와같은 우리 大韓民國의 處地에서 더욱 南北統一을 前提로한 交流問題를 論難한다는 것은 危險과

混亂을 더하는 것이요 南北交流自體가 우리가 願하는 統一의 實質的인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나는 斷言함
니다.

우리 國民뒤者 누가 統一을 願하지 아니 할까요, 그러나 國際的인 勢力均衡에 依해서 共產軍이 占領하고
分割해 있는 우리의 悲劇이 다만 우리의 焦燥와 燥急한 마음만으로 解決되는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우리는 國民을 어떻게 해야 먹이고 살릴 수 있는가를 먼저 生覺해야 될 것입니다.

또 將次 人間社會의 自由와 平和를 尊重하고 國民의 經濟的繁榮을 保障할 수 있는 民主的인 統一을 成就
시키기 爲하여 準備와 態勢를 먼저 우리는 갖추어 놓는것이 統一의 方案이 올시다.

이것이 우리의 當面한 義務입니다.

이나라의 難局打開는 다만 우리가 이나라를 하루바삐 繁榮시키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온겨레의 所望하는
바이올시다. 나는 이것이 오직 統一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나의 懇切한 心情을 國會議員여러분의 愛國心에 呼訴하며 여러분의 健闘을 비는 바이올시다.

一九六一年一月二日

大 統 領 尹 潛 善

目次

(一) 集會及會期

一、集會公告日及集會日……………^一_〇
二、會期・本會議開議日數及時間……………^二_〇
三、議員出缺狀況……………^三_〇
四、委員會外之開會日數……………^三_五

(二) 議員及委員

一、議員姓名及異動……………^一_六
二、黨派外之消長……………^一_三
三、委員外之姓名……………^一_四
 1 全院委員……………^一_四
 2 常任委員……………^一_四
 3 特別委員……………^一_七

(三) 國務委員及政府委員

一、國務委員……………^一_八
二、政府委員……………^一_九

(四)

議案

一、議案提出數及그成績

1 豫算及決算

2 法律案

가、政府提出法律案

나、議員發議法律案

3 法律案再議의件

4 同意(承認)案

5 建議案

6 決議案

7 重要動議

8 國政監查外事件調查報告

9 懲戒事犯의件

二、選舉及任命承認

三、請願及그成績

質問及答辯

一、緊急質問及答辯表

二、質問及答辯表

(六) 附式辭及致辭

<三六>
 <三七>
 <三八>
 <三九>
 <四〇>
 <四一>
 <四二>
 <四三>
 <四四>
 <四五>
 <四六>
 <四七>
 <四八>
 <四九>
 <五〇>
 <五一>

(一) 集會와 會期

一、集會公告日과 集會日

回別	會別	集會公告日	開會日	閉會日
第二十九回	臨時會	四二九一年 六月 一日	四二九一年 六月 七日	四二九一年 八月 二六日
第三十回	定期會		四二九一年 九月 一日	四二九一年 二月 三一日
第三十一回	臨時會	四二九二年 一月 五日	四二九二年 一月 二二日	四二九二年 二月 一〇日
第三十二回	臨時會	四二九二年 二月 一日	四二九二年 二月 一八日	四二九二年 七月 一七日
第三十三回	定期會		四二九二年 九月 一日	四二九三年 一月 二〇日
第三十四回	臨時會	四二九三年 一月 二六日	四二九三年 二月 二日	四二九三年 三月 二日
第三十五回	臨時會	四二九三年 三月 三日	四二九三年 三月 一七日	四二九三年 七月 二五日

二、會期・本會議開議日數及時間

回別	會別	會期	開議日數	會議總時間	會議一日平均時間	備考
第二十九回	臨時會	八一日	四二日	一二九時一〇分	三時四分強	
第三十回	定期會	一二二日	三〇日	七五時一五分	二時二八分強	
第三十一回	臨時會	三〇日	六日	六時一〇分	一時二分弱	
第三十二回	臨時會	一五〇日	五四日	一〇一時五五分	一時五三分強	
第三十三回	定期會	一四二日	三五日	七七時五分	二時一二分強	
第三十四回	臨時會	三〇日	四五日	八七時四十分	一時五七分弱	
第三十五回	臨時會	一三二日	二二二日	四七七時十五分	二時十五分強	
計		六八六日				

三、議員出席狀況

議員姓名	期別				計
	第二十九回	第三十回	第三十一回	第三十二回	
孫永壽	要出席日數 四〇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朴順碩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趙沈熙	要出席日數 四〇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黃聖秀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金鎮元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柳順植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潘在鉉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辛泳柱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俞昇溶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田萬重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崔秉權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李玉童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金元泰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金東碩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朴世徑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三九〇	要出席日數 一五〇〇
	要出席日數	要出席日數	要出席日數	要出席日數	要出席日數
	缺席日數	缺席日數	缺席日數	缺席日數	缺席日數
	請暇日數	請暇日數	請暇日數	請暇日數	請暇日數
	出張日數	出張日數	出張日數	出張日數	出張日數
	出席日數	出席日數	出席日數	出席日數	出席日數

李相龍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印泰植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鄭雲甲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金正基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俞鳳淳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金期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鄭樂勳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金善佑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朴鍾吉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趙瓊奎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河泰煥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李源長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安均燮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李恩泰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金周默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金成坤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尹城淳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金意俊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朴忠植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柳志元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朴德永	四三〇	一	四三〇	一	二七	六六	六五	一四	二七	三	三〇	三	四〇	二七

李協雨	四三二	三〇〇〇	四	二六	六六	五四三八	一六五〇	三五四一九	二六	二二	八九	一三	二二
金炳燾	四三二	四〇〇〇	二	二八	六六	四五四九	五〇〇三八	二七四五四	三一	二二	三七	一七	二二
吳在泳	四三二	三〇〇〇	五	一四	六六	五五四六	三八二五六	一四四五	四一	二二	五〇	一五	二二
元容爽	四三二	四〇〇〇	一	〇〇	六六	六五四六	五四四三	二九四五	四一	二二	五七	一五	二二
李泳熙	四三二	四〇〇〇	三	〇〇	六六	六五四六	四四四一	二八四五	四一	二二	七	一五	二二
李正熙	四三二	四〇〇〇	三	〇〇	六六	六五四六	四四四一	二八四五	四一	二二	九	一五	二二
鄭準談	四三二	四〇〇〇	九	二	六六	六五四六	三三八一	九四五二	三二	一九	八	一五	二二
孫在馨	四三二	四〇〇〇	四	一	六六	六五四五	四九四四	三八四五	三九	二二	八	一五	二二
池榮璣	四三二	三〇〇〇	七	五	六六	四五四二	一六五二	一三四五	四〇	二二	八	一五	二二
金載璋	四三二	二〇〇〇	一	〇	六六	五五四七	四七五	二九四五	三九	二二	一	一五	二二
丁明燮	四三二	四〇〇〇	一	〇	六六	六五四一	四四九	二九四五	三九	二二	一	一五	二二
鄭載元	四三二	四〇〇〇	一	〇	六六	五五四四	四九四	二九四五	三九	二二	一	一五	二二
李東根	四三二	三〇〇〇	五	四	六六	六五四四	五〇五	三三四	四一	二二	一	一五	二二
崔圭珪	四三二	四〇〇〇	一	〇	六六	六五四四	四八五	三三四	四一	二二	一	一五	二二
丁大天	四三二	三〇〇〇	一	三	六六	三五四七	四六五	三三四	四一	二二	一	一五	二二
朴永教	四三二	四〇〇〇	一	三	六六	一五四八	四三三	二九四五	四一	二二	一	一五	二二
尹在根	四三二	四〇〇〇	二	七	六六	六五四	四三三	二九四五	四一	二二	一	一五	二二
鄭滂	四三二	四〇〇〇	七	一	六六	六五四	五四三	二九四五	四一	二二	一	一五	二二
黃虎鉉	四三二	四〇〇〇	二	八	六六	六五四	五三三	二九四五	四一	二二	一	一五	二二
李載濬	四三二	四〇〇〇	二	八	六六	六五四	五三三	二九四五	四一	二二	一	一五	二二
崔昌燮	四三二	三〇〇〇	一	〇	六六	三五四	四二二	一三四	四一	二二	一	一五	二二

郭義榮	金長涉	崔天	李晚雨	金元萬	金應柱	曹逸煥	金載坤	權仲敦	金勳	李哲承	趙一載	尹潭	李錫鎬	金相敦	朴忠模	禹熙昌	姜泳薰	林文碩	李敏雨	朴炳培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四三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四三〇〇	三七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三〇〇
四	三	一	一	二	二	二	二	二	一	一	三	一	一	一	四	二	二	四	二	二
二六	二四	二九	二九	二八	二八	二八	二九	二九	二七	二八	二四	二七	二六	二六	二五	二六	二六	二六	二六	二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四				四																
二五四〇〇	六五四二	六五四三	六五四一	六五四六	六五四八	六五四七	六五四七	六五四七	六五四一	六五四六	六五四一	六五四一	六五四七	六五四七	六五四一	六五四二	六五四二	六五四三	六五四二	六五四二
二四五二	三九五七	四四五七	五四五七	四四五九	四四五三	五四五三	四四五六	四四五四	五四五六	四四五二	四四五二	五四五六	四四五二	四四五二	四四五五	四四五八	四四五八	三九五六	五四五三	五四五九
二四五二	六	七	七	九	三	六	六	四	六	二	二	六	一	三	五	八	八	六	三	九
二二四五	二九五七	三九五七	二八四五	二八四五	三三四五	三三四五	二九四五	三三四五	二九四五	三三四五	二九四五	二九四五	三三四五	一四五五	三三四五	二七四五	二七四五	二九四五	三三四五	二六四五
三	二	二	一	一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八	九	三	五	〇	六	七	八	九	七	二	九	九	八	二	二	七	八	六	二	三
	二	七		三	三	四	〇			一	三		三			一	三		二	二
			三			二	四	九	六	五	四	四	一	三	二	一	二	四	三	七
二八	三四	二七	一八	二〇	一八	一八	一九	一七	一八	一九	一八	一九	二〇	一九	一八	一八	一八	一九	一九	一八

鄭存秀	朴晚元	張暻根	崔仁圭	任哲鎭	韓熙錫	李在鶴	崔熙松	桂珖淳	鄭成太	金正煥	劉聖權	閔壯植	柳青	尹宅重	尹濟述	閔寬植	柳珍山	金義澤	曹沐珪	梁一東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四
五	一	五						二		二			二	三	二	一	六	六	六	一
								一		一			二		一	三	二	三	三	三
三七〇〇〇	四二〇〇〇	三七〇〇〇	四二〇〇〇	四二〇〇〇	四二〇〇〇	四二〇〇〇	四二〇〇〇	三九〇〇〇	四二〇〇〇	四三〇〇〇	四二〇〇〇	四二〇〇〇	四〇〇〇〇	三九〇〇〇	三九〇〇〇	三八〇〇〇	三四〇〇〇	四三〇〇〇	四三〇〇〇	三三八〇〇
三	一		四				二	一	一	二		二	一	二	二	一	一	一	一	二
		四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七	二九	二六	二六	三〇	三〇	三〇	二四	二九	二九	二八	二九	二八	二九	二八	二八	二九	二九	二九	二六	二八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六
一	一							四												四
五五四	五五四	六五四	三五四	六五四	五五四	六五四	六五四	五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六五四
九	一	五	二	四			五	七	三			一	一	四			三	五		
	四																			
四九三	四九三	四九三	三八五	五〇五	五〇五	五〇五	四九三	四七三	五〇三	五〇三	五〇三	五〇三	三九三	三九三	二五三	五〇三	五〇三	一五三	四九三	四九三
三	三	三	〇	一	一	一	五	五	三	五	一	三	五	五	四	七	四	二	九	五
三三三	三六三	三五三	三〇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三三三
六	六	七	五	三	三	二	五	八	八	一	一	八	八	三	四	二	三	二	二	六
一四	六	五	二	七	五	八	八	三	三	三	四	三	三	三	〇	四	四	四	四	三
一八七	一八九	一八九	一八九	一八七	一七七	一七七	一六六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二二
二七	二七	二七	二七	二六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二
	二		五	二			六	六		一		八	三	二	一	三	三	三	三	三
		四					二				四		三	三						九
一六〇	一五六	一四八	一三三	一七九	一五六	一四四	一四六	一八二	二〇〇	一八四	二〇九	一八〇	一九二	二〇〇	一九九	一九八	一八九	二〇一	一五二	一八九

李存華	三	一	四二〇〇	一	三〇	六	二	四三三	九	二六	二九	一七九	三	一七九
孫道心	三	一	四二〇〇	一	三〇	六	二	四三三	九	二六	二九	一七九	三	一七九
辛道煥	三	二	三八〇〇	一	二九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李益興	三	一	四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李起麟	三	三	四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趙炳玉	三	一	四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嚴詳燮	三	一	四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權五鍾	三	一	三九〇〇	一	二九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安龍伯	三	一	四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羅相謹	三	一	四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金雨東	三	一〇	三〇〇〇	一	二九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李淳熙	三	一	三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李雨苗	三	一	三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金益魯	三	一	三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計	二	一	三三〇〇	一	三〇	六	一	四三三	八	二七	三三	一七九	二	一七九

備考 一、要出席日數가 二二二日에 未達하는 議員은 補選 또는 死亡, 資格喪失, 辭職한 議員으로 在任중안의 本會議開議日數를 計上한 까닭임.

二、會期別欄에 第三十四회가 없음은 會期中 一次의 本會議도 開議치 못하였음임.

四、委員會外開會日數

委員會名	委員會外開會日數											計			
	法	外	內	財	豫	國	文	復	農	商	社		交	憲	運
制司法	務務	務務	政經	算濟	防算	教防	興與	林與	工與	健保	信保	遞保	格保	營保	院
第二十九回	一	二	四	四	二	二	四	一	四	三	四	三	一	六	四
第三十回	三	三	四	四	一	三	一	五	四	五	四	四	一	四	五
第三十一回	三	一	一	一	一	四	一	五	五	六	三	三	三	一	四
第三十二回	一	二	三	四	五	三	三	四	三	三	三	三	二	六	四
第三十三回	三	二	四	五	二	四	四	二	五	五	四	四	三	五	五
第三十四回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三	五
第三十五回	一	四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二	一	一	一	五	二
計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一

(二) 議員과 委員

一 議員姓名과 그 異動

第四代國會中 議員의 姓名은 다음과 같다

議 長	李 起 鵬	檀紀四二一九一年六月七日被選 檀紀四二一九三年四月二十八日死亡
〃	郭 尙 勳	檀紀四二一九三年五月二日被選 檀紀四二一九三年六月二十三日辭任
副 議 長	李 在 鶴	檀紀四二一九一年六月七日被選 檀紀四二一九三年五月二十六日辭任
〃	韓 熙 錫	檀紀四二一九二年六月七日被選 檀紀四二一九二年九月二日辭任
〃	任 哲 鎭	檀紀四二一九二年十月十四日被選 檀紀四二一九三年四月二七日辭任
〃	金 度 演	檀紀四二一九三年六月十日被選 檀紀四二一九三年七月二八日任期終了
〃	李 載 溍	檀紀四二一九三年六月十日被選 檀紀四二一九三年七月二八日任期終了

唐	公	金	青	茂	三	靈	陰	天	山	仁	密	尙	南	釜		迎	安	咸	驪
州	津	陵	陽	朱	陟	岩	城	安	川	川	陽	州	海	山	市	日	東	平	州
郡	乙	郡	郡	郡	郡	郡	郡	乙	甲	乙	乙	乙	東	東	乙	乙	乙	郡	郡
郡	區	郡	郡	郡	郡	郡	區	區	區	區	區	區	區	區	區	區	區	區	區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金
向	學	詰	彰	鑽	振	俊	周	鍾	載	載	正	正	正	仁	長	益	翼	義	意
洙	俊	安	東	元	晚	淵	默	哲	璋	坤	煥	根	基	浩	涉	魯	基	澤	俊
無	民				自	統	民	自	民	無							自	民	自
所	〃	〃	〃				〃	〃	所	〃	〃	〃	〃						
屬	主				由	一	主	由	主	屬							由	主	由
														四	四	四	四	四	
														一	一	一	一	一	
														九	九	九	九	九	
														年	年	年	年	年	
														六	六	六	六	六	
														月	月	月	月	月	
														二	二	二	二	二	
														十	十	十	十	十	
														三	三	三	三	三	
														日	日	日	日	日	
														再	再	再	再	再	
														選	選	選	選	選	
														舉	舉	舉	舉	舉	
														無	無	無	無	無	
														效	效	效	效	效	
														判	判	判	判	判	
														決	決	決	決	決	
														宣	宣	宣	宣	宣	
														告	告	告	告	告	

扶安郡	井邑郡	珍島郡	河東郡	長興郡	高興郡	華城郡	居昌郡	統營郡	鐵原郡	城北區	長城郡	完州郡	清道郡	光州市	金化郡	慶山郡	公州郡	原州市	高興郡	密陽郡
乙區	乙區	乙區	乙區	甲區	甲區	甲區	乙區	乙區	乙區	乙區	乙區	乙區	丙區	丙區	丙區	甲區	甲區	乙區	乙區	甲區
申奎植	宋榮柱	孫在馨	孫永壽	孫錫斗	孫文璣	孫道心	徐漢斗	徐廷貴	徐壬壽	徐範錫	邊鎮甲	裴聖基	潘在鉉	朴奎奎	朴賢淑	朴海楨	朴忠植	朴忠模	朴哲雄	朴昌華
自民	無所	無所	無所	無所	無所	無所	自民	自民	無所	自民	自民	無所	自民	自民	自民	自民	自民	自民	自民	自民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由主
四二九三年六月三十日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四二九三年五月三日辭職			四二九三年七月一日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四二九三年六月三十日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牙 山 郡	清 州 市	釜 山 市 影 島 區 乙 區	求 禮 郡	襄 陽 郡	聞 慶 郡	利 川 郡	順 天 市	益 山 郡 乙 區	金 堤 郡 乙 區	江 華 郡	青 松 郡	抱 川 郡	鍾 路 區 甲 區	禮 山 郡	永 登 浦 區 甲 區	論 山 郡 乙 區	務 安 郡 乙 區	城 東 區 甲 區	旌 善 郡	楊 平 郡
李 敏 祐	李 敏 祐	李 晚 雨	李 甲 植	李 東 根	李 東 寧	李 起 鵬	尹 亨 南	尹 宅 重	尹 濟 述	尹 在 根	尹 鎔 球	尹 域 淳	尹 潛 善	尹 炳 求	尹 明 運	尹 沃 源	劉 聖 祐	劉 奇 權	劉 奇 權	俞 龍 植
自 由	民 主	民 主	民 主	民 主	民 主	自 由	民 主	無 所 屬	無 所 屬	自 由	民 主	自 由	自 由	民 主	民 主	民 主	民 主	無 所 屬	無 所 屬	自 由
						四 二 九 三 年 四 月 二 十 八 日 死 亡														四 二 九 三 年 七 月 一 日 參 議 院 議 員 立 候 補 呈 辭 職

大田	羅州	坡州	寧越	瑞山	蔚珍	漆谷	橫城	富川	扶餘	大邱	淳昌	春城	唐津	丹州	月城	光州	堤川	全州	月城	金海	
市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郡	市	郡	郡	郡	郡	郡	市	市	市	市	郡	郡
甲	乙			甲					乙	丙			甲		甲	乙		乙	乙	乙	乙
區	區	郡	郡	區	郡	郡	郡	區	區	區	郡	區	區	區	區	區	郡	區	區	區	區

鄭	丁	丁	丁	田	田	張	張	張	任	林	林	林	印	李	李	李	李	李	李	李	李
樂	明	大	奎	泳	萬	澤	錫	嘍	哲	文	次	祐	泰	炯	協	弼	泰	哲	鍾	鍾	鍾
勳	燮	天	祥	爽	重	相	潤	根	鎬	碩	周	永	植	模	雨	鎬	鎬	承	駿	壽	壽

				自	民	自	無			自	民				自		民		自		
〃	〃	〃					所	〃	〃			〃	〃	〃	〃	〃	〃	〃	〃	〃	〃
				由	主	由	屬			由	主				由		主		由		

四二九二年五月八日大法院選舉無效判決宣告
四二九二年六月二十三日再選

四二九一年十二月三十一日當選再決定
四二九三年五月二十六日辭職
四二九三年五月三日辭職

丹 原 陽 郡 甲 區 郡	南 郡 甲 區	東 萊 郡	谷 城 郡 乙 區	尙 州 郡 甲 區	咸 安 郡	泗 川 郡	木 浦 市	長 水 郡	金 浦 郡	平 澤 郡	醴 泉 郡	麗 水 市	中 區 乙 區	鎮 川 郡	高 敞 郡 甲 區	光 州 市 甲 區	中 原 郡	奉 化 郡	高 靈 郡
趙 鍾 吳	趙 定 勳	趙 一 載	趙 炳 淳	趙 沈 熙	趙 瓊 奎	鄭 憲 柱	鄭 重 燮	鄭 準 謨	鄭 準 濬	鄭 載 秀	鄭 載 元	鄭 在 浣	鄭 一 亨	鄭 雲 甲	鄭 世 煥	鄭 成 太	鄭 商 熙	鄭 文 欽	鄭 南 澤
無 所 屬	民 主	自 由	民 主	自 由	民 主	自 由	無 所 屬	自 由	民 主	自 由	民 主	無 所 屬	民 主	無 所 屬	民 主	無 所 屬	民 主	無 所 屬	自 由
										<p>四一九三年五月二十六日辭職</p>									
										<p>四一九三年六月二十八日參議院議員立候補且辭職 四一九三年二月十五日死亡</p>									

扶餘郡甲區	浦項市乙區	大邱市乙區	忠武郡乙區	陝川郡乙區	廣州郡	江陵市	固城郡	鬱陵郡	楊口郡	西大門區乙區	大田市乙區	巨濟郡	梁山郡	中區甲區	星州郡	鎮海市	大邱市丁區	大邱市戊區	靈光郡	金堤郡甲區
韓光錫	河泰煥	崔熙松	崔昌天	崔仁燮	崔容圭	崔爽根	崔秉林	崔圭權	崔奎鉦	陳馨南	陳石夏	池榮中	朱繼翰	朱秉煥	朱金用	曹在千	曹逸煥	曹泳珪	趙漢栢	
自	民	民	民	自	無	無	無	自	民	自	民	自	民	無	無	無	無	民	民	
由	主	主	主	由	所	所	所	由	主	由	主	由	主	所	所	所	所	主	主	
四二九三年六月三十日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四二九三年六月二十九日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四二九三年六月二十九日當選再決定	四二九三年六月二十九日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四二九三年五月三日辭職	四二九三年七月一日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四二九三年七月一日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四二九三年七月一日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二十二日大法院斗選舉無效判決宣告	四二九三年九月十二日再選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四二九三年七月十三日死亡

備考一、本表黨派欄은 五·二總選舉當時의 中央選舉委員會의 調査에 依한 것이며 再決定 및 補選議員은 當選當時의 黨派를 表示하였음

寶城郡	平昌郡	光陽郡	加平郡	高城郡	高敏郡	華城郡	忠州市	原城市	水原市	南濟州郡	馬山郡	天安郡	鍾路區
郡	郡	郡	郡	區	區	區	市	市	市	郡	市	區	區
黃聖秀	黃虎鉉	黃淑玃	洪翼杓	洪承業	洪淳熙	洪鳳珍	洪炳珪	洪範憲	洪吉善	玄梧鳳	許潤秀	韓熙錫	韓根祖
自	無所	自	民主	自	民主	民主	自	民主	無所	民主	自	民主	民主
由	屬	由	由	由	由	由	由	由	由	由	由	由	由
四二九二年九月十二日再選舉에서 當選 四二九三年七月一日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四二九三年七月二日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四二九三年七月一日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四二九三年四月二十七日辭職			

第四代國會中議員의 異動은 다음과 같다

議員 異動表

選舉區	前議員	黨派	異動事由	補缺當選者 (再選舉)再決定	黨派	當選年月日
慶北迤日郡乙	金益魯	自由	四二九一年 六月二一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金益魯	自由	四二九一年 九月一八日
慶北大邱市己	李淳熙	自由	四二九一年 九月一〇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崔熙松	民主	四二九一年 九月二九日 民議院議員選舉法第百二十八條 의 規定에 依하여 當選이 再決定
慶北大邱市丙	李雨萬	自由	四二九一年 十二月二四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林文碩	自由	四二九一年 十二月三十一日 民議院議員選舉法第百二十八條 의 規定에 依하여 當選이 再決定
慶北善山郡	金雨東	自由	四二九一年 十二月二九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金東碩	自由	四二九一年 一月 二日 民議院議員選舉法第百二十八條 의 規定에 依하여 當選이 再決定
江原道麟蹄郡	羅相謹	自由	四二九二年 三月一一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全亭山	自由	四二九二年 六月 五日
慶北盈德郡	金元圭	自由	四二九二年 三月一一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金元圭	自由	四二九二年 六月 五日
慶北月城郡乙	李鍾駿	自由	四二九二年 五月二八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李鍾駿	自由	四二九二年 六月 三日
慶南蔚山郡乙	金成鐸	自由	四二九二年 五月二七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金成鐸	自由	四二九二年 六月 三日
全南寶城郡	安龍伯	自由	四二九二年 六月二四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黃聖秀	自由	四二九二年 九月 二日
慶北梁山郡	池榮璉	自由	四二九二年 七月二二日 大法院의 選舉 無效判決宣告	池榮璉	自由	四二九二年 九月 二日

慶北迎日郡乙	金益魯	◇	四二九二年一月四日 大法院判決宣告	金長涉	自由	四二九二年一月三日
慶北榮州郡	李正熙	◇	四二九二年二月九日 大法院判決宣告	李正熙	◇	四二九二年一月三日
慶北安東郡甲	權五鍾	◇	四二九二年二月一日 死亡			
서울城東區乙	趙炳玉	民主	四二九二年二月五日 死亡			
忠南天安郡甲	韓熙錫	自由	四二九二年四月七日 辭職			
京畿道利川郡	李起鵬	◇	四二九二年四月八日 死亡			
京畿道廣州郡	崔仁圭	◇	四二九二年五月三日 辭職			
慶北軍威郡	朴晚元	◇				
京畿道富川郡	張暇根	◇				
全北完州郡甲	李存華	◇				
慶北大邱市甲	辛道煥	◇				
京畿道華城郡甲	孫道心	◇				
서울龍山區甲	嚴詳燮	民主	四二九二年五月三日 死亡			
江原道洪川郡	李在鶴	自由	四二九二年五月六日 辭職			
忠南扶餘郡乙	任哲鎬	◇				
京畿道平澤郡	鄭存秀	◇				

京畿道漣川郡	李益興	◇	四二九三年 五月二二日 辭職
慶北迎日郡乙	金長涉	無	四二九三年 六月二七日 參議院議員立候補且辭職
慶北尙州郡甲	趙沈熙	憲政	四二九三年 六月二八日 參議院議員立候補且辭職
忠南唐津郡乙	元容爽	◇	◇
慶北迎日郡甲	朴順碩	自由	四二九三年 六月二九日 參議院議員立候補且辭職
慶北大邱市乙	崔熙松	民主	◇
慶南釜山市東區乙	吳緯泳	◇	四二九三年 六月二〇日 參議院議員立候補且辭職
忠南扶餘郡甲	韓光錫	自由	◇
全北扶安郡	申奎植	◇	◇
全南高興郡乙	朴哲雄	無	◇
忠南保寧郡	李源長	自由	◇
忠北清原郡甲	吳範秀	◇	◇
尙西大門區乙	崔奎南	憲政	◇
江原道原城郡	洪範憲	無	◇
全南高興郡甲	孫文璟	自由	◇
慶北安東郡乙	金翼基	憲政	◇

金元泰	◇	四三三、五、三辭職
張順植	◇	四三三、六、二
柳順植	◇	四三三、六、二
金善佑	◇	◇
李起鵬	◇	四三三、四、六死亡
李在鶴	◇	四三三、五、六辭職
金益魯	◇	四三三、六、二議員資格이 喪失함
朴容益	◇	四三三、六、二
朴哲雄	◇	四三三、五、三
安龍伯	◇	四三三、六、二議員資格喪失
李源長	◇	四三三、六、二
洪炳廷	◇	◇
金仁浩	◇	四三三、六、五憲政同志會에 加入
羅相謙	◇	四三三、三、二資格喪失
鄭雨澤	◇	四三三、六、二
李炯模	◇	四三三、六、二
李沐熙	◇	四三三、六、二
姜琮武	◇	四三三、六、二
趙沈熙	◇	四三三、六、三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申奎植	◇	四三三、六、三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黃淑球	◇	四三三、六、二
金元圭	◇	四三三、三、二資格喪失
金元中	◇	四三三、六、二
李東寧	◇	◇
李東根	◇	◇
崔奎南	◇	◇
金憲俊	◇	四三三、六、七
韓光錫	◇	四三三、六、三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尹鎔球	◇	四三三、六、二
李相龍	◇	◇
郭義榮	◇	四三三、六、二
趙淳	◇	四三三、六、二
鄭文欽	◇	◇
金雨東	◇	四三三、三、二資格喪失
孫在馨	◇	四三三、六、二
金炯燉	◇	◇
安德基	◇	◇
李鍾駿	◇	四三三、五、六資格喪失
李存華	◇	四三三、五、三辭職
李在賢	◇	四三三、六、二

林祐永	李成株	池榮璉	徐王壽	崔寅林	李協雨	金向洙	李榮彥	李敏祐	金振晚	玄梧鳳	姜慶部	丁奎祥	權福仁	李社炯	陳石中	李淳熙	具興南	金元全	朴水教
◇	◇	◇	◇	◇	◇	◇	◇	◇	◇	◇	◇	◇	◇	◇	◇	◇	◇	◇	◇
															四三九、六二	四三九、九〇資格喪失			
李雨苗	金石辰	鄭存秀	朴鍾吉	俞龍植	劉奇洙	李正熙	丁明燮	金炯燮	金載璋	鄭樂勳	金彰東	潘在鉉	崔昌燮	金翼基	徐漢斗	吳範秀	金成鐸	俞英滯	崔圭鈺
◇	◇	◇	◇	◇	◇	◇	◇	◇	◇	◇	◇	◇	◇	◇	◇	◇	◇	◇	◇
四三九、三、二四資格喪失	四三九、六二	四三九、五、二天辭職	四三九、五、六			四三九、三、九資格喪失						四三九、六二	四三九、三、三	四三九、六二		辭職	四三九、五、七資格喪失	四三九、六二	四三九、七、一參議院議員立候補並辭職

林次周	四三九、六、二	四三九、六、二	四三九、三、一八	俞丹禧	四三九、二、一死亡
金斗珍	◇	◇	四三九、一、三三	權五鍾	◇
安龍大	◇	◇	四三九、二、三	許潤秀	◇
金益魯	四三九、二、四資格喪失	◇	四三九、二、三	金長涉	四三九、六、二
金東碩	四三九、六、二	◇	四三九、二、三	李正熙	◇
李玉童	◇	◇	◇	具喆會	◇
全亨山	◇	◇	◇	金圭晚	◇
金元圭	◇	◇	◇	朴昌華	◇
李鍾駿	四三九、六、二	◇	四三九、四、七	文鍾斗	四三九、六、二
金成鏞	◇	◇	四三九、四、七	姜琮武	◇
金正根	四三九、六、二	◇	四三九、六、三	金東碩	◇
辛道煥	四三九、五、三辭職	◇	◇	金柄淳	◇
朱金用	四三九、六、二	◇	◇	金石辰	◇
趙鍾吳	◇	◇	◇	金意俊	◇
黃聖秀	◇	◇	◇	金鎮元	◇
池榮璉	◇	◇	◇	羅判洙	◇
趙定勳	◇	◇	◇	朴順碩	四三九、六、二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金周默	四三九、六、二五憲政同志會加入	◇	◇	孫錫斗	四三九、七、一參議院議員立候補呈辭職
洪淳熙	◇	◇	◇	孫文環	◇
宋榮柱	◇	◇	◇		

民主黨所屬議員

加入年月日	姓名	脫退年月日	加入年月日	姓名	脫退年月日
◇ ◇ ◇ ◇ ◇ ◇ 四九、六、九	趙炳玉 郭尙勳 許潤秀 金圭晚 朴昌華 金正煥 宋榮柱	四二、二、五死亡 四二、一、三自由黨加入 四二、二、七自由黨加入 ◇ ◇ 四二、一〇、三	◇ ◇ ◇ ◇ ◇ ◇ ◇ ◇ 一九三	田萬重 全亨山 陳石中 崔秉權 崔興林 金彰東 李政然 金善佑 計四八	四二、二、二 四二、七、三死亡 四二、七、三死亡
◇ ◇ ◇ ◇ ◇ ◇ ◇ ◇ 四九、六、九	孫永壽 俞鳳淳 黃聖秀 李社炯 黃淑玟 李源長 李龍範 李恩泰 林祐永	四二、七、一參議院議員立候補 辭職 四二、七、一參議院議員立候補 辭職 四二、七、一參議院議員立候補 辭職	◇ ◇ ◇ ◇ ◇ ◇ ◇ ◇ 一九三	田萬重 全亨山 陳石中 崔秉權 崔興林 金彰東 李政然 金善佑 計四八	四二、七、三死亡 四二、七、三死亡

文鍾斗	四三三、四、七自由黨에加入	四三三、三、三	崔昌燮	四三三、六、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李載瀼		四三三、六、二	崔容根	
尹在根		◇	朴德永	
朴炳培		◇	李甲植	四三三、六、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梁一東	四三三、八、一五民主黨에加入	◇	河泰煥	◇
閔寬植	四三三、九、一民主黨에加入	◇	李炯模	◇
黃虎鉉		◇	鄭樂勳	◇
鄭滯		◇	俞鳳淳	四三三、六、三自由黨에加入
李玉童	四三三、二、一自由黨에加入	◇	李源長	◇
安龍大	四三三、八、一六	◇	洪承業	四三三、七、二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辛道煥	四三三、七、二	◇	朴忠植	四三三、六、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正根	四三三、七、六	◇	全亭山	四三三、六、三自由黨에加入
朱金用	四三三、八、三	◇	金斗珍	四三三、六、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趙鍾吳	四三三、一〇、一五	◇	鄭載元	◇
趙定勳	四三三、三、五	◇	趙沈熙	◇
宋榮柱	◇	◇	潘在鉉	◇
俞昇濬	四三三、三、一八	◇	丁奎祥	◇
金周默	四三三、三、五	◇	陳石中	四三三、六、三自由黨에加入
金朔	◇	◇	李東寧	
洪淳熙	◇	◇	鄭準謨	四三三、六、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元容爽	邊鎮甲	金東碩	李榮彥	崔秉權	田萬重	安龍大	姜聲偉	崔爽林	金向洙	李社炯	朴世徑	劉奇洙	李玉童	孫在馨	林祐永	趙鍾吳	朱金用	金正基	孫錫斗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印泰植	李政休	洪範憲	鞠快男	孫文環	朴賢淑	金善佑	黃淑玟	徐壬壽	姜琮武	安德基	金正根	金柄淳	金炯燾	尹鎔球	崔奎南	尹炳求	鄭雲甲	具喆會	李相龍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元泰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李鍾駿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鍾哲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鄭商熙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具泰會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辛泳柱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具興南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成坤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文鍾斗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振晚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李協雨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孫永壽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尹域淳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黃聖秀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俞英濬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玄梧鳳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李成株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鎮元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朴順碩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圭晚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翼基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李恩泰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池榮璣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朴興奎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李東根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元中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石辰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羅判洙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李正熙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安均燮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洪炳珪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鄭世煥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朴永教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李敏祐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柳順植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元全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金長涉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柳志元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權福仁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李龍範	〓〓〓, 六, 一五憲政同志會에加入

〃	金彰東	四三三、六三自由黨에加入	〃	趙淳	
〃	李在賢	四三三、六三自由黨에加入	〃	鄭文欽	
四三三、六七	金意俊	四三三、六三自由黨에加入	四三三、五三	朴哲雄	四三三、六三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四三三、五二六	朴鍾吉	四三三、六二五憲政同志會에加入	一三〇	計四一	八九
四三三、六一七	朴容益				

備考 一、加入年月日(團體所屬議員名簿提出한日字表示한

憲政同志會所屬議員

四三三、六一五	李榮彥		〃	安龍大	四三三、七一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	辛泳柱		〃	金翼基	四三三、七一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	朱金用		〃	權福仁	四三三、七一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	李相龍		〃	崔奎南	四三三、七一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	具泰會		〃	朴鍾吉	四三三、六二六參議院議員立候補로 辭職
〃	金正基		〃	潘在鉉	
〃	金斗珍		〃	趙沈熙	
〃	李鍾駿		〃	金仁浩	
〃	鄭載元		〃	李甲植	
〃	河泰煥		〃	李炯模	

◇ ◇ ◇ ◇ ◇ ◇ ◇ ◇ ◇ ◇ ◇ ◇ ◇ ◇ ◇ ◇

李政然 金向洙 朴世徑 具興南 鄭準諫 金周默 朴忠植 孫在馨 金元全 金元泰 鄭榮勳 鄭雲甲 印泰植

四三、六三自由黨加入

◇ ◇ ◇ ◇ ◇ ◇ ◇ ◇ ◇ ◇ ◇ ◇ ◇ ◇ ◇ ◇

四三、六三

四四

鄭商熙 洪炳珪 元容爽 姜聲邵 丁奎祥 劉奇洙 金振晚 崔容根 趙鍾吳 朴永教 金圭晚 計三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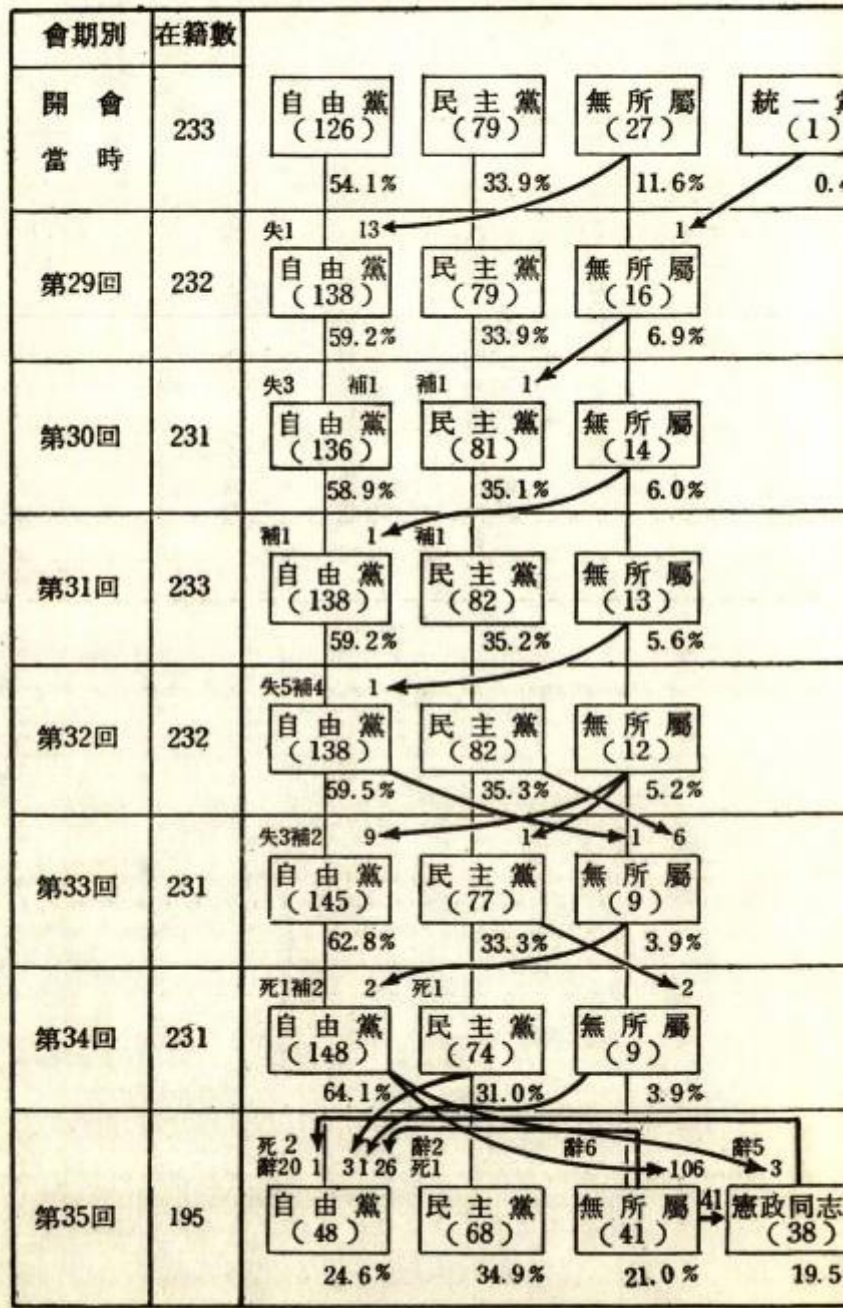
六

四三、六六參議院議員立候補是
辭職
七二

各交渉團體의 構成員數와 그比率

團體名	現在構成員數 四五年六月六日	在籍數에對한比率	現在構成員數 四五年七月五日	在籍數에對한比率
自由黨	一三八人	五九・二%	四八人	二四・六%
民主黨	七九人	三三・九%	六八人	三四・九%
無所屬	一六人	六・九%	四一人	二一・〇%
憲政同志會	一三三三人	一〇〇%	一九五人	一九・五%
計				一〇〇%

第四代國會交涉團體變遷圖



三、委員과 그姓名

1 全院委員

全院委員長

第二十九回國會 (臨時會)

金 益

魯

(六月二十一日大法院의 選舉無効
判決宣告에 依하여 資格이 喪失됨)

自 第三十回國會 (定期會)
至 第三十二回國會 (臨時會)

趙 瓊

奎

自 第三十三回國會 (定期會)
至 第三十四回國會 (臨時會)

印 泰

植

以上 全員委員姓名은 省略함

2 常任委員

第二十九回國會 (臨時會)

가, 各常任委員長과 委員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名簿

內務	司法制	委員會		團體別名
		委員名	構成員數	
二四	一八			
<p>○朴順碩 金正基 △龔鳳淳 金鎮元 李相龍 金元泰 田萬重 鄭載元 金善佑 李益興 李成株 柳順植 洪承業 李恩泰</p> <p>(二四一四)</p>	<p>○朴世涇 金益魯 任哲鎬 張暎根 金意俊 金相道 △孫永壽 徐壬壽 趙淳 鄭文欽</p> <p>(二一〇〇)</p>	一三八	自由黨	
<p>△曹永珪 柳珍山 金義澤 徐範錫 李寬植 俞昇濬 鄭憲柱 金周默 高湛龍</p> <p>(八一八)</p>	<p>△李炳夏 張澤相 金善太 趙一載</p> <p>(六一六)</p>	七九	民主黨	
<p>李玉童 閔寬植</p> <p>(二一一)</p>	<p>張澤相</p> <p>(一一)</p>	一六	無所屬	
二四	一七			計
		二三三		

決算	國防	外務
(三九)	二四	一六
<p>○朴興奎(外) △孫永壽(法) 金意俊(法)</p> <p>金成坤(外) 俞鳳淳(內) 孫錫斗(財)</p> <p>李甲植(財) 韓光錫(國) 辛泳柱(國)</p> <p>洪炳珪(文) 金炯敦(文) 崔仁圭(復)</p> <p>鄭南澤(復) 林祐永(農) △金斗珍(農)</p>	<p>○柳志元 安均燮 張錫潤</p> <p>朴賢淑 金公平 洪範憲</p> <p>孫道心 吳在泳 韓光錫</p> <p>孫文環 △李政然 △河泰煥</p> <p>崔秉權 辛泳柱</p> <p>(二四—一四)</p>	<p>○尹瓊淳 △朴忠植 趙瓊奎</p> <p>金成坤 朴興奎 朴相吉</p> <p>(二〇—一六)</p>
<p>曹在干(法)</p> <p>金東郁(外)</p> <p>曹泳珪(內)</p> <p>尹亨南(財)</p> <p>李哲承(國)</p> <p>尹濟述(文)</p> <p>金度演(復)</p>	<p>△姜永薰</p> <p>朴忠模</p> <p>尹哲承</p> <p>李相敦</p> <p>禹熙昌</p> <p>禹仲敦</p> <p>李弼鎭</p> <p>(八一—八)</p>	<p>尹潛善</p> <p>鄭一亨</p> <p>羅容均</p> <p>金東郁</p> <p>(五一—四)</p>
<p>△閔寬植(內)</p> <p>文鍾斗(商)</p> <p>李敷燾(文)</p> <p>(三一—三)</p>	<p>朴炳培</p> <p>朱金用</p> <p>(二—二)</p>	<p>辛道煥</p> <p>(二—二)</p>
(三九)	二四	一一

復興	經濟	
二〇	二四	
○具興南 李炯模 △朴永教 △元容奭 羅相諶	金鍾哲 (一一一—一一三)	姜馨部(商) 鄭樂勳(交) 金元中(運) 鄭準談(社) 劉奇沐(憲) 金石辰(運) 吳範秀(社) 朴鍾吉(憲)
△朱耀翰 李敏雨 金溶珍	趙炳玉 金度演 趙漢栢 尹亨南 吳鍾南 李瓊鉉 (八一八)	劉沃祐(農) 金載坤(商) 嚴詳燮(社) 鄭成太(交) 洪翼杓(憲) △李泰鎔(運) (一一一—一一三)
金俊淵 (一一一)	梁一東 △安龍大 尹在根 (一一一—一一三)	
二〇	二四	

商工	農林	
二三	二四	
<p>○李榮彥 池榮璉 陳石中 權福仁 △玄梧鳳 丁奎祥 金振晚 李東寧 李協雨 金元圭 姜聲邵 李敏祐 鞠快男 金向洙</p> <p>(二四一四)</p>	<p>○申奎植 林次周 李泳熙 姜琮武 鄭雲甲 △尹鎔球 金斗珍 △金柄淳 林祐永 趙沈熙 金喆安 尹炳求 黃淑球 邊鎮甲</p> <p>(二四一四)</p>	<p>金仁浩 鄭南澤 李社炯</p> <p>(一一一一)</p>
<p>△李晚雨 朱秉煥 桂琬淳 崔重天 鄭重燮 曹逸煥 田沐爽 曹逸煥 田載坤</p> <p>(八一八)</p>	<p>△裴聖基 宋榮柱 朴昌華 許潤秀 洪淳熙 金圭晚 劉沃祐 金正煥</p> <p>(八一八)</p>	<p>金應柱 鄭在浣</p> <p>(七一七)</p>
<p>文鍾斗</p> <p>(一一一)</p>	<p>趙鍾吳 金正根</p> <p>(一一一)</p>	
二三	二四	

交通 通信	社會 保健	文 教
二〇	二〇	二〇
<p>○丁明燮 李東根 金彰東 鄭樂勳 潘在鉉 △金載璋 朴德永 金炯燮 俞龍植 李正熙 (一一一〇)</p>	<p>○金翼基 丁大天 △羅判洙 崔昌燮 崔圭鉉 俞英潯 金成錫 吳範秀 李在賢 鄭準謨 徐漢斗 (一一一一)</p>	<p>○李存華 崔奎南 李雨茁 安龍伯 △朴哲雄 李源長 洪炳珪 孫在馨 金炯燮 李鍾駿 安德基 (一一一二)</p>
<p>△權金徐尹劉鄭具 五元廷明聖成誌 鍾萬貴運權太會 (七一七)</p>	<p>△洪吉善 嚴詳燮 金學湖 金學俊 趙定勳 (七一六)</p>	<p>郭尙勳 朴順天 柳濟述 尹宅重 尹榮俊 李壯植 閔植 (七一七)</p>
<p>李載燾 (一一一)</p>	<p>鄭潯 (一一一)</p>	<p>黃虎鉉 (一一一)</p>
一八	一八	一九

計	國 會 運 營	懲 戒 資 格
一三三三 (七二)	(一五)	(二八)
一三八一 一三二九 (四三 四三)	○朴容益 柳順植 △李泳熙 徐壬壽 金元中 金石辰 李起鵬 李在鶴 韓熙錫 (九一九)	○鄭存秀 金相道 羅相謹 金炯燮 崔昌燮 △李源長 朴鍾吉 劉奇洙 俞龍植 李鍾駿 朴相吉 (二一一)
七九一 七七 (二四 二四)	△李泰鎔 金溶珍 金勳 權五鍾 鄭在浣 (五一五)	趙一載 金元萬 羅容均 △趙定勳 徐廷貴 洪翼杓 (六一六)
一六一 一六 (五一 五)	梁一東 (一一)	鄭溶 (一一)
一三三三 一三三 (七二)	(一五)	(二八)

備考 一、○은 委員長을 表示함
△은 幹事를 表示함

二、委員數字中の 위의 數字는 委員定數이고 아래의 數字는 配定員數임

三、計의 委員定數外 配定員數가 符合치 않음은 運營委員인 議長副議長과 懲戒資格, 運營兩委員長 및 豫算決算委員
會外 懲戒資格, 運營委員會間의 兼任으로 因함

四、本表는 禮紀四二九一年六月十七日編成當時의 것임

第三十回國會(定期會)

가, 各常任委員長과 委員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名簿

檀紀四二九一年九月九日現在

內務	司法制	團體別名	
		委員定數	構成員數
二九	一六	一三八	自 由 黨
○金元泰 柳順植 朴興奎 朴順碩 △俞鳳淳 李成株 鄭樂勳 李恩泰 金相道 金善佑 金鎮元 潘在鉉 金正基 崔昌燮	(二〇一八)	○金意俊 張嘜根 鄭存秀 △朴世徑 任哲鎬 朴晚元 趙瓊奎 鄭文欽	
柳珍山 徐範錫 金義禕 尹明運 金周默	(六一六)	韓根祖 金善太 曹在千 陳馨夏 李炳夏 △李炳夏 嚴詳燮	民 主 黨
張澤相 李玉童		一四	無 所 屬
二九	一四	二三一	計

國防	外務	
二九	一二	
<p>○河泰煥 吳在泳 俞龍植</p> <p>孫道心 柳志元 李源長</p> <p>韓光錫 金公平 安均燮</p> <p>△李政然 崔秉權 △辛泳柱</p> <p>洪範燾 徐壬壽 朴賢淑</p> <p>俞英濬 朴德永</p> <p>(一七一七)</p>	<p>○尹瑛淳 △朴忠植 金成坤</p> <p>印泰植 崔仁圭 李益興</p> <p>(七一六)</p>	<p>田萬重 朴鍾吉</p> <p>(一七一七)</p>
<p>金相敦 權仲敦 李哲承</p> <p>△禹熙昌 李弼鎬</p> <p>朴忠模 姜永燾</p> <p>尹源勳</p>	<p>△鄭一亨 尹潛善</p> <p>金東郁</p> <p>(三一一三)</p>	<p>高湛龍 俞丹滯 △鄭憲柱 曹泳珪 羅容均</p> <p>(二〇一〇)</p>
<p>尹在根 朴炳培</p> <p>(一一二)</p>	<p>辛道煥</p> <p>(一一)</p>	<p>(一一二)</p>
二九	一〇	

豫
算

(三九)

○崔仁圭(外) 金成坤(外)
 朴晚元(法) 李成株(內)
 諭鳳淳(內) 郭義榮(財)
 韓光錫(國) 俞龍植(國)
 洪炳珪(文) 金炯燾(文)
 吳範秀(復) 李社炯(復)
 林祐永(農) △金斗珍(農)
 崔煥林(商) 文梧鳳(商)
 羅判洙(社) 鄭準謙(社)
 朴相吉(交)

(三一九)

○李甲植 鄭商熙 郭義榮
 金鍾哲 鄭世煥 △孫錫斗
 鞠快男 金雨東 安龍大

△朴海植
 尹亨南
 朴瓊鉉

趙一載
(二〇一〇)

金善太(法)
 嚴祥燮(法)
 金東郁(外)
 △曹泳珪(內)
 尹亨南(財)
 李哲承(國)
 尹宅重(文)
 金度演(復)
 劉沃祐(農)
 金載坤(商)
 國寬植(社)
 鄭成太(交)
 李敏雨(懲)
 李泰鎔(運)
 (一四一四)

△文鍾斗(交)
 李載璽(財)
 (二一二)

(三五)

農林	復興	財政經濟
二九	一八	二九
林祐永 安德基 趙沈熙 金炯燮 金彰東 邊鎮甲 鄭雲甲 金柄淳 尹鎔球 姜琮武 李沐熙 金斗珍	朴哲雄 鄭南澤 金元圭 鄭載元 李炯模 具興南 吳範秀 李社炯 元容爽 金元全 (一一一〇)	李鍾壽 丁奎祥 權福仁 李龍範 金石辰 崔容根 具泰會 羅相謙 (一七一七)
宋榮柱 朴昌華 金圭晚 金溶珍 洪翼杓 劉沃祐	田泳爽 朱秉煥 朱耀翰 金度演 趙炳玉 (六一五)	吳緯泳 洪鳳珍 趙定勳 徐廷貴 李鍾南 柳鴻栢 (二〇一〇)
趙鍾吳 金正根 (一一二)	金俊淵 (一一一)	李載濬 (一一二)
二九	一六	二九

五九

文教	商工	
一六	二三	
<p>○安龍伯 洪炳珏 李存華</p> <p>△孫在馨 張錫潤 李在賢</p> <p>崔圭南 李鍾駿 金炯燾</p> <p>(九一九)</p>	<p>○李榮彥 姜聲郃 李敏祐</p> <p>金向洙 李東寧 李協雨</p> <p>崔爽林 池榮璉 △陳石中</p> <p>金振晚 △玄梧鳳 洪承業</p> <p>金成鐸 金仁浩</p> <p>(二四一四)</p>	(二七一七)
<p>△柳尹宅重青</p> <p>尹濟述</p> <p>朴順天</p> <p>郭尙勳</p> <p>△黃虎鉉</p> <p>(一一一)</p>	<p>△金元萬</p> <p>金應柱</p> <p>崔天</p> <p>李晚雨</p> <p>曹逸煥</p> <p>鄭重燮</p> <p>金載坤</p> <p>鄭在浣</p> <p>朱金用</p> <p>(二一一)</p>	(二〇一〇)
一六	二三	

資 態 格 戒	遞 交 信 通	保 社 健 會	
(一八)	一六	一六	
○孫永壽 李在賢(文) 金相道(內) 安均燮(國) △朴德永(國) 丁奎祥(財) 陳石中(商) 徐漢斗(交) 崔昌燮(內) 朴鍾吉(內)	○丁明燮 朴永教 李正熙 金元中 鄭成太 具喆會 劉聖權 金正煥 (九一九)	○金翼基 丁大天 △羅判洙 鄭準談 朴容益 孫文環 崔圭鉦 李雨茁 劉奇洙 (二〇一九)	閔壯植 (六一六)
李敏兩(豫) 鄭重燮(商) 金正煥(交) △金學俊(社) 李炳夏(法)	△權五鍾 鄭成太 具喆會 劉聖權 金正煥 (六一五)	△洪吉善 閔寬植 李榮俊 桂珖淳 (五一五)	
辛道煥(外) (一一二)	文鍾斗 (一一二)	鄭濬 (一一二)	
一八	一五	一五	

備考	計	國會 運營	
<p>一、○은委員長 △은幹事를 表示함</p> <p>二、委員數字中의 위의數字는 委員定數이고 아래의數字는 配定員數임</p> <p>三、計의 委員定數와 配定員數가 符合치않음은 運營委員인 議長, 副議長과 懲戒資格, 運營兩委員長 및 豫算決算委員會와 懲戒資格, 運營委員會間만의 兼任으로因함</p> <p>四、本表는 禮紀四二九一年九月九日 現在의것임</p>	<p>二二三三 (七二)</p> <p>一三八一 二三三 (四三 一三九)</p> <p>八〇一七八 (二五 一二五)</p> <p>一四一 一四 (四一四)</p> <p>三三 一三五 (七一六)</p>	<p>(二五)</p> <p>○趙 淳 金元中(交) 柳順植(內) △李泳熙(農) 劉奇洙(社) 孫文喲(社) 李起鵬 李在鶴 韓熙錫 (九一九)</p> <p>△李泰鎔(豫) 柳珍山(內) 權五鍾(交) 金溶珍(農) 具喆會(交) (五 一五)</p> <p>梁一東(財) (一一)</p> <p>(二五)</p>	<p>金載璋(交) (一一 一一)</p> <p>徐範錫(內) (六一六)</p>

나, 本會期中常任委員長과 各常任委員의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長 異動

豫算決算委員長 崔 仁 圭

(四二九一年 九月 二日 國務委員任命으로 解任)

崔 容 根 (四二九一年 一〇月 六日 補選)

常任委員異動

前所屬常任委員會名	姓名	所屬團體	變更常任委員會名	變更年月日
財政經濟	崔容根	自由黨	豫算決算	四二九一年 十月 六日
外務	崔熙松	民主黨	交通遞信	四二九一年 十月 八日
豫算決算	李益興	自由黨	外務	四二九一年 十月 八日
兼豫算決算	崔容根	〃	兼豫算決算	〃
兼財政經濟	郭義榮	〃	兼財政經濟	〃
財政經濟	安龍大	〃	兼豫算決算	〃

兼商 懲戒 資格	內務	財政 經濟	兼交 通運 遞信	內務	兼內 懲戒 資格	兼內 運務	內務	文政 經濟	財會 保健	社務	內務	法制 司法	財政 經濟	復政 興工	商興 工業	復興 工業	兼外 豫算 決算
陳石中	張曝根	金石辰	金元中	尹明運	徐範錫	柳珍山	李鍾駿	郭義榮	崔圭鈺	金相道	張曝根	金雨東	鄭載元	鄭在浣	田泳爽	崔仁圭	
◇	◇	◇	自由 黨	◇	◇	民主 黨	◇	◇	◇	◇	◇	◇	◇	自由 黨	◇	民主 黨	◇
兼豫 算決 算格	懲戒 資格	法制 司法	兼財 政運 遞信	兼交 通運 遞信	兼內 懲戒 資格	兼內 運務	內務	財政 經濟	文政 經濟	法制 司法	內務	復政 興工	財政 經濟	復政 興工	商興 工業	外務	
四二九 一年十 二月 四日	◇	◇	四二九 一年十 二月 二日	◇	◇	四二九 一年十 二月 一日	四二九 一年十 二月 十七日	◇	◇	四二九 一年十 二月 十七日	四二九 一年十 二月 十二日	四二九 一年十 二月 十日	◇	◇	◇	◇	◇

兼交 懲通 戒資 格信	兼運 豫算 決營	兼交 通運 遞營	文 教	兼內 懲戒 資務	兼懲 豫算 決格	兼社 會保 健營	兼內 運營	兼交 懲通 戒資 格信
金 載 璋	柳 順 植	權 五 鍾	閔 壯 植	尹 明 運	金 載 璋	劉 奇 洙	柳 順 植	金 載 璋
◇	自 由 黨	◇	◇	民 主 黨	自 由 黨	◇	◇	◇
兼懲 豫算 決格	兼內 運營	交 通運 遞信	兼文 懲戒 資教	兼內 運營	兼交 懲通 戒資 格信	兼運 豫算 決營	兼運 豫算 決營	兼懲 豫算 決格
◇	◇	◇	◇	四 二 九 一 年 十 二 月 二 十 日	四 二 九 一 年 十 二 月 八 日	◇	◇	◇

第三十一回國會(臨時會)

가, 委員姓名은省略함

나, 本會期中各常任委員의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異動

前所屬常任委員會名	姓名	所屬團體	變更會常任委員名	變更年月日
法制司法 兼豫算決算	嚴 詳 燮	民主黨	法制司法 兼豫算決算	四二九二年 二月 三日
交通遞信 兼運輸營	具 喆 會	〃	交通遞信	〃
懲戒資格 兼豫算決算	林 文 碩	〃	復興	〃
〃	金 載 瑋	自由黨	交通遞信 兼懲戒資格	四二九二年 二月 五日
〃	陳 石 中	〃	商工 兼懲戒資格	〃
運輸營 兼豫算決算	劉 奇 洙	〃	社會保健 兼運輸營	〃
〃	金 東 碩	〃	交通遞信	〃

第三十二回國會(臨時會)

가, 委員姓名은省略함

나, 本會期中各常任委員長과 各常任委員의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長異動

文教委員長 安 龍 伯
(四二九二年六月二十四日選舉無效呈 議員資格喪失)

常任委員異動

孫 在 馨
(四二九二年七月六日補選)

前所屬會名	姓名	所屬團體	變更會名	變更年月日
財政經濟	羅相謹	自由黨		四二九二年三月十一日
復興工業	金元主	自由黨		四二九二年五月二十七日
商政經濟	李鍾鏞	自由黨		四二九二年五月二十八日
財政經濟	金錕	自由黨		四二九二年六月二十二日
法制經濟	崔主碩	自由黨		
交通經濟	金東碩	自由黨		
復政經濟	金元圭	自由黨		
財政經濟	安亨山	自由黨		四二九二年六月二十四日
文教	李龍伯	自由黨		四二九二年七月一日
	金成鏞	自由黨		

第三十三會國會(定期會)

가, 各常任委員長과委員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名簿

司法制	委員會		團體別名
	委員定數	構成員數	
一六	○朴世徑 張曠根 孫永壽 朴順碩 鄭存秀 鄭文欽 韓熙錫 趙洸熙 鄭雲甲 (二〇一九)	一三九	自由黨
		八三	民主黨
	△金善太 李炳夏 陳馨夏 嚴詳燮 (六一六)	九	無所屬
一五		二三一	計

國防	外務	內務
二九	一二	二九
○ 俞龍植 河泰煥 李社炯 朴德永 全亨山 金公平 △ 徐壬壽 朱金用 俞英濬 李益興 △ 洪範憲 韓光錫	○ 崔奎南 趙瓊奎 金成坤 朴晚元 尹域淳 金意俊 △ 朴忠植 (七一七)	○ 李相龍 金正基 俞鳳淳 鄭樂勳 潘在鉉 金鎮元 辛泳柱 朴興奎 李玉童 金元泰 崔秉權 柳順植 李恩泰 田萬重 崔昌燮 金東碩 △ 金善佑 朴鍾吉 (二八一八)
△ 李弼鎭 權仲敦 朴炳培 姜永薰 俞昇溶	△ 鄭一亨 尹潛善 金東郁 (四一三)	△ 鄭憲柱 羅容均 張澤相 金相敦 (一一一) 金周默 尹明運 金義澤 宋榮柱 朱秉煥 崔熙松 (二〇一〇)
朴炳培 (一一一)		張澤相 (一一一)
二九	一〇	二九

豫算
豫算

(三九)

○朴晚元(外) 孫永壽(法)
 趙沈熙(法) 俞鳳淳(內)
 潘在鉉(內) 徐壬壽(國)
 安均燮(國) 金鍾哲(財)
 吳範秀(財) 具興南(復)
 李政然(文) △金斗珍(農)
 林祐永(農) △洪承業(商)
 崔爽林(商) △金炯燾(文)
 羅判洙(社) 朴相吉(交)
 吳在泳(復) 劉奇洙(運)
 金成坤(外)

(三三—一一)

朴賢淑 安均燮 李源長
 鄭商熙 柳志元

(一七一—一七)

曹在干(法) 鄭滯(社)
 金周默(內) 文鍾斗(交)
 金東郁(外) (一一二)
 姜永薰(國)
 △朴海植(財)
 許潤秀(農)
 桂琬淳(商)
 鄭成太(交)
 金學俊(社)
 朱耀翰(復)
 柳青(文)
 曹泳珪(懲)
 李泰鎔(運)

禹熙昌 李哲承 劉聖權 具喆會 閔寬植 李敏雨 趙一載

(一一—一一)

鄭滯(社)
文鍾斗(交)
(一一二)

(三七)

復興	財政	一八	二九
<p>○元容爽 李炯模 △朴哲雄 鄭南澤 金元圭 具興南 吳在泳 崔仁奎 李存華</p> <p>(二一九)</p>	<p>○孫錫斗 崔容根 △金石辰 金炯燮 金元全 鄭世煥 李甲植 安龍大 權福仁 金鍾哲 鞠快男 李鍾駿 李東寧 金翼基 △具泰會 李範龍 吳範秀</p> <p>(二七一七)</p>	<p>趙炳玉 △朱耀翰 金度演 鄭在浣 林文碩</p> <p>(六一五)</p>	<p>徐範錫(運) (二四一四) 吳緯泳 柳亨鴻 尹亨南 趙漢栢 朴海楨 李鍾南 △洪鳳珍 △朴瓊鉉 趙定勳 徐廷貴 梁一東</p> <p>(二一一一)</p>
<p>金俊淵</p> <p>(二一一)</p>	<p>李載濤</p> <p>(二一一)</p>	一五	二九

商 工	農 林
二三	二九
<p>○丁奎祥 陳石中 △崔爽林 姜聲部 洪炳珏 玄梧鳳 金向洙 金振晚 李榮彥 金成鐸 李協雨 △洪承業 李敏祐 金仁浩</p> <p>(一四一四)</p>	<p>○李泳熙 申奎植 金正根 金元中 △尹鎔球 安德基 徐漢斗 △林次周 金彰東 金柄淳 金斗珍 尹炳求 邊鎮甲 △黃淑玳 林祐永 金喆安 姜琮武</p> <p>(一七一七)</p>
<p>金元萬 李晚雨 尹在根 (一一一) 曹逸煥 李應柱 金載坤 金應柱 金溶珍 崔天淳 桂琬淳 (八一八)</p>	<p>劉沃祐 許潤秀 趙鍾吳 (一一一) 襄聖基 洪翼杓 洪淳熙 尹潭 朴昌華 金正煥 金圭晚 金正煥 金圭晚 (一〇一〇)</p>
<p>尹在根 (一一一)</p>	<p>趙鍾吳 (一一一)</p>
二三	二八

遞交 通信	社會 保健	文教
一六	一六	一六
<p>○李鍾壽 丁明燮 △金載璋 朴永教 鄭載元 朴相吉 李東根 崔圭鉦</p> <p>(九一八)</p>	<p>○孫文環 丁大天 △羅判洙 趙淳 印泰植 鄭準謨 朴容益 金益魯</p> <p>(二〇一八)</p>	<p>○孫在馨 辛道煥 李政然 金炯燾 郭義榮 孫道心 張錫潤 李正熙 △李在賢</p> <p>(九一九)</p>
<p>△鄒成太 權五鍾 田泳爽 柳珍山 金勳</p> <p>(六一五)</p>	<p>△金學俊 洪吉善 朴忠模 李榮俊 鄭重燮</p> <p>(五一五)</p>	<p>△閔壯植 郭尙勳 柳順天 尹濟述 尹宅重</p> <p>(六一六)</p>
<p>△文鍾斗</p> <p>(一一一)</p>	<p>鄭濬</p> <p>(一一一)</p>	<p>△黃虎鉉</p> <p>(一一一)</p>
一四	一四	一六

備考	計	國 會 運 營	意 格 戒
一、○은委員長 △은幹事를表示함 二、委員數字中의위의數字는委員定數이고아래의數는配定員數임 三、計의委員定數와配定員數가符合되지않음은運營委員인議長副議長과懲戒資格, 運營兩委員長및豫算決算委 員會와懲戒資格, 運營委員會問의兼任으로因함 四、本表는禮紀四二九二年九月八日編成當時의것임	(二二三三) (七二二)	(一五)	一八
	一三九一 (四三三四)	○李成株 劉奇洙(豫) 金石辰(財) △柳順植(內) 趙淳(社) 辛泳柱(內) 李起鵬 李在鶴 任哲鎭 (九一九)	○金相道 鄭準讓(社) △金向洙(商) 鄭南澤(復) 金炯燮(復) 柳志元(國) 陳石中(商) 朴鍾吉(內) 尹炳求(農) 金載璋(交) (二一一〇)
	八三二八 (二五二五)	李泰鎔(豫) △徐範錫(豫) 鄭重燮(社) 梁一東(財) 權五鍾(交) (五九五)	韓根祖(法) 鄭在浣(復) 朴忠模(社) 尹潭(交) 金勳(交) △曹泳珪(豫) (六一六)
	九一九 (四一四)	尹在根(商) (一一一)	朴炳培(國) (二一一)
	三三三三 (三一九)	一五	一七

나, 本會期中各常任委員의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異動

前所屬常任委員名	姓	名	所屬團體	變更常任委員名	變更年月日
內務兼豫算法 交通通信兼豫算法 法制司法	金	周	民主黨	交通通信	四二九二年十月十六日
內務兼豫算法 交通通信兼豫算法 法制司法	曹	在	民主黨	法制司法	〃
內務兼豫算法 交通通信兼豫算法 法制司法	高	湛	民主黨	內務兼豫算法	四二九二年十月十七日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鄭	商	〃	國防	〃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吳	範	〃	國防	〃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黃	聖	〃	國防	〃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池	榮	自由黨	社會保健	四二九二年十月十七日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韓	熙	自由黨	社會保健	〃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柳	珍	自由黨	社會保健	〃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金	山	自由黨	社會保健	〃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金	太	民主黨	法制司法	〃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曹	善	民主黨	法制司法	〃
國防兼豫算法 財政經濟兼豫算法 法制司法	高	龍	民主黨	內務兼豫算法	四二九二年十月十七日

第三十四回國會(臨時會)

가, 委員姓名은 省略함
나, 本會期中各常任委員의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異動

農 兼豫算決算林	憲 兼戒責格	交 兼豫算決算	文 兼豫算決算
許 潤 秀	曹 泳 珪	權 五 鍾	閔 壯 植
民主黨	◇	◇	◇
交 通 遞 信	農 兼豫算決算林	交 通 遞 信	文 兼運營教
四二九三年一月十一日	◇	◇	◇

前 所屬 常任 委員 會名	姓 名	所屬團體	變 更 會 常 任 委員 會名	變 更 年 月 日
國 社 會 保 健 防	朴 忠 模	民 主 黨	國 社 會 保 健 防	四二九三年二月三日

第三十五回國會(臨時會)

가, 委員姓名은 省略함
 나, 本會期中各常任委員의 異動狀況은 다음과 같다

常任委員異動

前所屬常任委員會名	姓 名	所屬團體	變更會常任名	變 更 年 月 日
文 兼 農 文 運 營 教	李 正 熙	自 由 黨	文 法 教 制 司 法	四二九三年 三月 二八日
文 兼 農 文 運 營 教	金 長 沙	自 由 黨	文 法 教 制 司 法	四二九三年 三月 二八日
文 兼 農 文 運 營 教	閔 壯 植	民 主 黨	文 法 教 制 司 法	四二九三年 五月 三日
文 兼 農 文 運 營 教	洪 翼 杓	民 主 黨	文 法 教 制 司 法	四二九三年 五月 三日
文 兼 農 文 運 營 教	尹 亨 南	民 主 黨	文 法 教 制 司 法	四二九三年 六月 一日

3 特別委員

第二十九回國會(臨時會)

水害對策特別委員

(禮紀四二九一年七月十一日
第十九次本會議決議)

吳金梁金崔俞李朴	○					委
範翼一鍾容丹恩順						員
秀基東哲根滢泰碩						名
自無	自民	自	自			黨
由所	由主	由	由			派
社	財	內				常所
會	政	務				任委
保	經					員會
健	濟					屬
趙鄭李具金尹申						委
定南敏興主炳奎						員
勳澤雨南晚求植						名
民自民自民	自	自	自			黨
主由主由主	由	由	由			派
社	復	農				常所
會	興	林				任委
保						員會
健						屬

第三十回國會(定期會)

農村金融制度確立에 關한 法律立案委員

(檀紀四一九一年十月八日)
(第六次本會議의 決議)

孫錫斗	金正錫	○李泳熙	委員名
自由	無所屬	自由	黨派
財政經濟	農林	農林	所任委員會屬
李炳夏	朴世經	梁一東	委員名
民主	自由	無所屬	黨派
法制司法	財政經濟	財政經濟	所任委員會屬

第三十二回國會(臨時會)

犯則物資處分真相調查特別委員

(檀紀四一九二年三月十九日)
(第二十六次本會議決議)

李恩泰	李泳熙	申奎植	委員名
自由	自由	自由	黨派
朴讚鉉	金善太	辛泳柱	委員名
民主	自由	自由	黨派
梁一東	梁一東	梁一東	委員名
無所屬	無所屬	無所屬	黨派

水害對策特別委員

(檀紀四二九二年七月七日)
第五十三次本議會決議決議

金鍾哲	崔容根	俞昇濬	李恩泰	朴順碩	委員名
	自	民	自	自	黨派
	由	主	由	由	
具興南	金圭晚	尹炳求	申奎植	○梁一東	委員名
	自	民	自	無	黨派
	由	主	由	所屬	
趙定勳	吳範秀	金翼基	鄭南澤	李敏雨	委員名
	民		自	民	黨派
		主	由	主	

第三十三回國會(定期會)

颱風災害對策特別委員

(檀紀四二九二年十月十三日)
第八次本會議決議

黃虎鉉	田萬重	○河泰煥	委員名
	無	自	黨派
	所屬	由	
李榮彥	朴德永	桂玃淳	委員名
		自	黨派
		由	
李相龍	姜琮武	陳石中	委員名
		自	黨派
		由	

國會時局對策特別委員

(禮紀四二九三年四月二十二日)
第七次本會議決議

羅 徐 具 金 柳 河 俞	委 員 名
判 壬 興 相 順 泰 鳳	
洙 壽 南 道 植 煥 淳	
	自 黨 派
◇ ◇ ◇ ◇ ◇ ◇	由
嚴 李 李 鄭 孫 丁 李	委 員 名
詳 敏 哲 憲 永 明 在	
燮 兩 承 柱 壽 燮 賢	
	民 自 黨 派
◇ ◇ ◇ ◇ ◇ ◇	主 由
○ 李 張 李 尹 金 陳	委 員 名
載 澤 泰 濟 學 馨	
濬 相 鎔 述 俊 夏	
	無 民 黨 派
◇ 所 ◇ ◇ ◇	屬 主

吳 洪 洪 李	委 員 名
範 範 承 源	
秀 熙 業 長	
	自 黨 派
◇ ◇ ◇	由
林 梁 徐 羅	委 員 名
文 一 範 判	
碩 東 錫 洙	
	民 自 黨 派
◇ ◇	主 由
朴 李 金 陳	委 員 名
炳 鍾 載 馨	
培 南 坤 夏	
	無 民 黨 派
無 所 ◇ ◇	屬 主

內閣責任制改憲案起草特別委員

(禮紀四一九三年四月二十六日
第九次本會議決議)

鄭雲甲	朴世徑	李在鶴	委員名
◇	◇	自由	黨派
鄭憲柱	曹在柱	李炯模	委員名
◇	◇	自由	黨派
黃虎鉉	尹亨南	嚴詳雙	委員名
無所屬	◇	民主	黨派

警察中立化法案起草特別委員

(禮紀四一九三年五月二日
第十二次本會議決議)

安龍大	朴鍾吉	金元泰	委員名
◇	◇	自由	黨派
朴海楨	尹明運	洪承業	委員名
◇	◇	自由	黨派
朴炳培	金善太	徐範錫	委員名
無所屬	◇	民主	黨派

國會議員選舉法案起草特別委員

(檀紀四一九三年五月二日
第十二次本會議決議)

朴金鄭	委員名
興彰載	
奎東元	
	黨派
〃 〃	自由
〇曹林李	委員名
泳文在	
珪碩賢	
	黨派
〃 〃	自由
張李李	委員名
澤哲炳	
相承夏	
	黨派
無 〃	民主
屬 〃	主

地方自治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

(檀紀四一九三年五月九日
第十五次本會議決議)

田金趙	委員名
萬柄沈	
重淳熙	
	黨派
〃 〃	自由
〇高趙	委員名
柳 湛鍾	
青龍吳	
	黨派
〃 〃	自由
鄭朱李	委員名
濬 秉弼	
溶 煥鎭	
	黨派
無 〃	民主
屬 〃	主

國家保安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

(禮紀四一九三年五月九日
第十五次本會議決議)

委員名	金斗珍	李政然	金載璋
黨派	自由	自由	自由
委員名	俞英滄	鄭重燮	曹在千
黨派	自由	自由	自由
委員名	金元萬	李敏雨	朴炳培
黨派	民主	民主	無所屬

良民虐殺事件真相調查特別委員

(禮紀四一九三年五月二十三日
第十九次本會議決議)

委員名	朴相吉	尹鎔球	李社炯
黨派	自由	自由	自由
委員名	林次周	崔天	趙一載
黨派	自由	民主	民主
委員名	朱秉煥	金義澤	朴炳培
黨派	民主	民主	無所屬

大邱西門市場火災事件救護調查特別委員

(禮紀四二九三年六月十七日)
第三十九次本會議決議

委員名	黨派	委員名	黨派	委員名	黨派
曹逸煥	民主	林文碩	民主	李炳夏	民主
崔熙松	民主	曹在干	民主		

(註) ○表々 委員長을 表示함

本會期中特別委員長과 特別委員의 異動은 다음과 같다

內閣責任制改憲案起草特別委員長

前委員長	補選委員長	事	由
嚴詳燮	鄭憲柱	嚴詳燮議員의 死亡으로	

國會時局對策特別委員

前委員	補選委員	事	由
嚴詳燮	劉聖權	嚴詳燮議員의 死亡으로	
鄭憲柱	鴻	交替	

內閣責任制改憲案起草特別委員

嚴 詳 燮	前 委 員
韓 根 祖	補 選 委 員
嚴詳燮議員의 死亡으로	事 由

警察中立化法案起草特別委員

徐 朴 範 錫	前 委 員
陳 朴 馨 夏	補 選 委 員
交 替	事 由

良民虐殺事件真相調查特別委員

李 金 弼 鎭	前 委 員
劉 李 沃 祐	補 選 委 員
交 替	事 由

(三) 國務委員과 政府委員

第四代國會中國務委員 政府委員과 그 異動은 다음과 같다

一、國務委員

部 署	國二十九回	國三十回	國三十一回	國三十二回	國三十三回	國三十四回	國三十五回
外務部長官	曹正煥	〃	〃	〃	曹正煥 三三、三六、三三解任	許政 三三、三六、三三任命	許政 三三、三六、三三任命
內務部長官	李根直 三三、三六、三三任命	金一煥 三三、三六、三三任命	〃	崔仁圭 三三、三六、三三任命	〃	洪礎基 三三、三六、三三任命	洪礎基 三三、三六、三三任命
財務部長官	金顯哲	〃	〃	宋仁相 三三、三六、三三任命	〃	尹炳炳 三三、三六、三三任命	尹炳炳 三三、三六、三三任命
法務部長官	洪礎基	〃	〃	〃	〃	權承烈 三三、三六、三三任命	權承烈 三三、三六、三三任命
國防部長官	金貞烈	〃	〃	〃	〃	李鍾贊 三三、三六、三三任命	李鍾贊 三三、三六、三三任命
文敎部長官	崔在裕	〃	〃	〃	〃	李炳燾 三三、三六、三三任命	李炳燾 三三、三六、三三任命

遞信部次官	交通部次官	保健社會部次官	商工部次官	農林部次官	復興部次官	文教部次官	國防部次官	法務部次官	財務部次官
曹應天	石常玉	申孝善	金義昌	金秉允	申鉉碩	金善琪	崔在瑢	申彥瀚	千炳圭
◇	宋元永 四九、二〇六任命	◇	◇	◇	◇	◇	◇	◇	吳琳根 四九、九八任命
◇	◇	◇	◇	◇	◇	◇	◇	◇	◇
◇	◇	◇	◇	金長涉 四六、四一〇任命	鄭英基 四六、三三任命	◇	◇	◇	朴鍾植 四六、三三任命
◇	◇	◇	金致榮 四九、三一九任命	朴道彥 四九、三三任命	◇	◇	◇	◇	◇
◇	◇	◇	◇	◇	◇	◇	◇	◇	◇
文權 四三、六三任命	羅翼 四三、六六任命	安成慶 四三、二二任命	金學默 四三、二二任命	羅翼 四三、六三任命	劉彰 四三、五一任命	李恒寧 四三、三三任命	李熙鳳 四三、七七任命	金永千 四三、七二任命	金容甲 四三、四四任命

(四) 議案

一、議案提出數及成績

議案種別成績表

議案種別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으로因廢棄
豫算案及決算 (法律案)	六	四	一	一	一	一	二
政府提出法律案	三三	五	一	三	一	一	三四
議員發議法律案	三〇三	四	一	三	一	一	一四
同意(承認)案	一〇	三	一	六	一	一	七
建議案	四	三	一	一	一	一	八
決議案	五	三	一	一	一	一	三
重要動議	二〇	三	二	二	一	一	一五
計	二四	八	四	二	二	一	三
	六六	二六	七	五	三	一	二八

備考、議案種別中括弧内の法律案은 政府提出法律案과 議員發議法律案의 合計임

1 豫算案斗 決算
豫算案斗 決算成績表

會期	提出件名	處理會期	議決年月日	可決	會期不繼續 ○是因於廢棄
二九	禮紀四二九一年度第一回追加更正豫算案	元	四二九、八、二五	◇	○
三〇	禮紀四二九〇年度歲入歲出決算	三〇	四二九、三、二四	◇	○
三〇	禮紀四二九二年度豫算案	三〇	四二九、三、二四	◇	○
三三	禮紀四二九三年度豫算案	三三	四二九、三、三三	◇	○
三三	禮紀四二九一年度歲入歲出決算	三三	四二九、六、二七	◇	○
三五	禮紀四二九三年度第一回追加更正豫算案	三五		◇	○
計	計	六		四	二

會期別	提出數	可決	會期不繼續 ○是因於廢棄
第二十九回			
第三十回			
第三十一回			
第三十二回			
第三十三回			
第三十四回			
第三十五回			
計	六	四	二

2 法律案

法律案成績表

會期別	提出數	可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或因廢棄
第二十九回	七	〇	三	一	一	一
第三十回	四九(五四)	三	四	一	一	五
第三十一回	七	一	一	一	一	一
第三十二回	五(七〇)	三	〇	一	一	三
第三十三回	二	一	一	一	一	二
第三十四回	三	〇	三	一	一	六
第三十五回	三三	五	三	一	一	四
計						

備考、括弧内の數字は前會期에서繼續審査하게된件數임

가. 政府提出法律案
政府提出法律案成績表

會期別	提出數	可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續 或因 廢棄
第二十九回	三	八	三	一	一	一
第三十回	三〇(三)	三	六	一	一	四
第三十一回	五	一	一	一	一	四
第三十二回	三	一	一	一	一	一
第三十三回	二四(五)	二	四	一	一	四
第三十四回	一	一	一	一	一	一
第三十五回	四	一	一	一	一	四
計	一〇一	四	三	一	一	一三

備考、括弧内の數字は前會期에서繼續審査하게된件數임

提出會期	件名	處理會期	議決年月日	可決	廢棄	撤回	保留	會期不繼 續廢棄原因
二九	民事訴訟法案	三〇						◇
二九	人事訴訟法案	三〇						◇
二九	刑事補償法案	二九	四九、七、六	◇				◇
二九	少年法案	二九	四九、七、三		△			◇
二九	孤兒入養特例法案	三〇						◇
二九	非常事態下の犯罪處罰에 關한 特別措置令廢止及同 法에 基因한 刑事事件臨時措置法廢止에 關한 法律案	三〇						◇
二九	外國人の署名捺印에 關한 法律案	二九	四九、七、八	◇				◇
二九	公證人法案	三〇						◇
二九	供託法案	二九	四九、七、九	◇				◇
二九	信託法案	三〇						◇
二九	政治運動에 關한 法律廢止에 關한 法律案	三〇						◇
二九	軍刑法案	三〇						◇
二九	軍法會議法案	三〇						◇
二九	軍行刑法案	三〇						◇
二九	古物營業法案	三〇						◇
二九	道路交通團東法案	三〇						◇
二九	遺失物法案	三〇						◇
二九	邑設置에 關한 法律案	三〇						◇

二九	郵便物遞送法案	三〇					
二九	郵便貯金法案	三〇					
二九	罰金等臨時措置法中改正法律案	二九	四九、七二				
二九	外換特別稅法案	二九	四九、八二				
二九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二九	四九、七三				
二九	外國產製造煙草定價臨時措置關法律案	二九	四九、八三				
二九	船員法案	三〇					
二九	保險業法案	三〇					
二九	教育稅法案	二九	四九、八八				
二九	韓國造幣公社法中改正法律案	二九	四九、八八				
二九	國家保安法案	三〇	四九、一八				
二九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二四				
二九	少年院法案	二九	四九、七五				
三〇	外國投資促進法案	三〇					
三〇	外國人引入國、出國斗登錄關法律中改正法律案	三〇					
三〇	法官連任法案	三〇	四九、一〇、一三				
三〇	社選殺法案	三〇					
三〇	義務教育財政平衡交付金法案	三〇	四九、二二、二四				
三〇	修「義務教育財政交付金法」	三〇	四九、二二、二四				
三〇	國家保安法案	三〇	四九、二二、二四				
三〇	對充資金特別會計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二二、二四				
三〇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二二、二四				

三〇	營業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法人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登錄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三〇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礦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三〇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入場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遊興飲食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三〇	關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自動車稅法案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三〇	計量法案	三〇	四九、三、二四				
三〇	參議院議員選舉法施行相關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韓國產業銀行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三〇	四九、三、二四				
三一	監察院法案	三一					
三一	民事訴訟法案	三一					
三一	人事訴訟法案	三一					
三一	孤兒入養特例法案	三一					
三一	公證人法案	三一					
三一	信託法案	三一					

三二	非常事態下の犯罪處罰에關한特別措置令廢止外同 法에基因한刑事事件臨時措置法廢止에關한法律案	三二
三二	政治運動에關한法律廢止에關한法律案	三二
三二	軍法會議法案	三二
三二	軍行刑法案	三二
三二	古物營業法案	三二
三二	道路交通團束法案	三二
三二	遺失物法案	三二
三二	未成年者喫煙飲酒禁止法案	三二
三二	行政書士法案	三二
三二	土地收用法案	三二
三二	典當舖營業法案	三二
三二	邑設置에關한法律案	三二
三二	印鑑證明法案	三二
三二	外國人の入國、出國斗登錄에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	三二
三二	汚物清掃法案	三二
三二	證券去來法案	三二
三二	相互金融業法案	三二
三二	保險業法案	三二
三二	登錄稅法中改正法律案	三二

三三二	郵便貯金法案	三三二				
三三二	制令第七號廢止에 關한件	三三二	四二九、一、三	◇		◇
三三二	制令第四十二號廢止에 關한件	三三二	四二九、一、三	◇		◇
三三二	豫備軍人會法案	三三二				
三三二	請願警察法案	三三二				◇
三三二	計理士法中改正法律案	三三二	四二九、一、五	◇		◇
三三二	蠶業法案	三三二				◇
三三二	學校地區淨化法案	三三二				◇
三三二	下級法院判事定員法中改正法律案	三三二	四二九、一、三	◇		◇
三三二	邑設置에 關한法律案	三三二	四二九、一、七	◇		◇
三三二	權穀管理法中改正法律案	三三二	四二九、一、二	◇		◇
三三二	分配農地所有權移動登記에 關한特別措置法案	三三二	四二九、一、二	◇		◇
三三二	氣象業務法案	三三二				◇
三三二	統砲火藥類團東法案	三三二				◇
三三二	道路法案	三三二				◇
三三二	都市計劃法案	三三二				◇
三三二	河川法案	三三二				◇
三三二	邑設置에 關한法律案	三三二	四二九、一、七	◇		◇
三三二	福券發行、懸賞其他射伴行爲團東法案	三三二				◇
三三二	公務員年金法案	三三二	四二九、一、三〇	◇		◇
三三二	公務員年金特別會計法案	三三二	四二九、一、三〇	◇		◇

三三	印紙稅法中改正法律案	三三三	四九、三、一四	◇			
三三	遊興飲食稅法中改正法律案	三三三	四九、三、一七	◇			
三三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三三三	四九、三、一一	◇			
三三	土地課稅基準調查法中改正法律案	三三三	四九、三、一一	◇			
三三	歸屬財產處理法中改正法律案	三三三	四九、三、一一	◇			
三三	入場稅法中改正法律案	三三三	四九、三、一七	◇			
三三	登錄稅法案	三三三	四九、三、一九	◇			
三三	國際通貨基金과 國際復興開發銀行에 對한 增資에 關한 法律案	三三三	四九、三、一九	◇			
三三	戶籍法案	三三三	四九、三、一七	◇			
三三	不動産登記法案	三三三	四九、三、一七	◇			
三三	邑設置에 關한 法律案	三三三					
三三	鐵道法案	三三三					
三四	邑設置에 關한 法律案	三四					
三五	水難救護法案	三五					
三五	興信業團束法案	三五					
三五	屍體解剖 및 保存 法案	三五					
三五	財政法中改正法律案	三五					
	計 一〇一一						三三

備考, 廢案欄 △印은 代案이 通過됨으로써 採擇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는 것임

나, 議員發議法律案
議員發議法律案成績表

會期別	提出數	可決	廢棄	會期不繼續 或因廢棄
第二十九回	一五	二	一	一
第三十回	二六(二三)	一〇	八	二
第三十一回	二	一	一	二
第三十二回	一八	一	一	一
第三十三回	三二(二七)	九	六	三
第三十四回	一	一	一	一
第三十五回	二七	〇	三	一四
計	一一〇	三一	一八	七一

備考、括弧内の數字는 前會期에서 繼續審査하게된 件數임

提出會期	件名	發議者	處理會期	議決年月日	可決	廢棄	會期不 因 廢棄
二九	不正手票處罰法案	朴海楨	三〇				〃
二九	法官連任에 關한 法律案	嚴詳燮	三〇	四九、一〇、三			〃
二九	政黨及社會團體等의 示威行列及集會許可에 關한 件及示威行列及集會規則廢止에 關한 法律案	曹在千	三〇				〃
二九	集會等에 關한 法律案	曹在千	三〇				〃
二九	少年法案(代案)	法制司法委員長	二九	四九、七、三			〃
二九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尹宅重	三〇				〃
二九	附逆行爲犯에 對한 刑減免에 關한 法律案	李敏雨	三〇				〃
二九	監察院法案	梁一東	三〇				〃
二九	公路運送法案	李東根	三〇				〃
二九	自動車抵當法案	李東根	三〇				〃
二九	公路運送車輛法案	朴相吉	三〇				〃
二九	臨時外換特別稅法案(代案)	財政經濟委員長	二九	四九、八、四			〃
二九	建設業法中改正法律案	內務委員長	三〇	四九、九、一〇			〃
二九	參議院議員選舉法中改正法律案	曹在千	三〇	四九、二、三			〃
三〇	서울 地方法院鐵原支院의 管轄區域變更에 關한 法律案	徐壬壽	三〇				〃
三〇	臨時外換特別稅法中改正法律案	趙鍾吳	三〇				〃
三〇	賂物罪에 關한 臨時特別法案	孫道心	三〇				〃
三〇	法官連任法案(代案)	法制司法委員長	三〇	四九、一〇、三			〃

三〇	政府組織法中改正法律案	吳範秀	三〇				
三〇	濟州地方法院忠州支院聯合議部昇格相關法律案	洪炳珪	三〇				
三〇	寄附金募集禁止法中改正法律案	鄭商熙	三〇				
三〇	外國煙草吸用制限法案	邊鎮甲	三〇				
三〇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三〇				
三〇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三〇				
三〇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徐廷貴	三〇				
三〇	圖書館法案	閔壯植	三〇				
三〇	刑務作業特別會計法案	法制司法委員長	三〇				
三〇	獨立有功者生活扶助法案	鄭雲甲	三〇				
三〇	入場稅法中改正法律案	鄭世煥	三〇				
三〇	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	鄭世煥	三〇				
三〇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	邊鎮甲	三〇				
三〇	棉花獎勵法案	邊鎮甲	三〇				
三〇	水稻麥類種子更新法案	邊鎮甲	三〇				
三〇	關稅法中改正法律案	金振晚	三〇				
三〇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趙漢栢	三〇				
三〇	法院組織法中改正法律案	金喆安	三〇				
三〇	鑛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財政經濟委員長	三〇				
三〇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財政經濟委員長	三〇				
三〇	入場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財政經濟委員長	三〇				

三〇	關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財政經濟委員長	三〇	四九、一、二、四	◇	◇	◇
三〇	租稅犯處罰法中改正法律案(代案)	財政經濟委員長	三〇	四九、一、二、四	◇	◇	◇
三一	集會相關法律案	曹在千	三一				◇
三一	農業信用擔保法案	李泳熙·金正根	三一				◇
三一	集會相關法律案	劉沃祐	三一				◇
三一	農業信用擔保法案	李在千	三一				◇
三一	農業信用擔保法案	劉沃祐·金正根	三一				◇
三一	圖書館法案	閔壯植	三一				◇
三一	寄附金募集禁止法中改正法律案	鄭商熙	三一				◇
三一	道路維持費法案	邊鎮甲	三一	四九、一、七、四	◇		◇
三一	外國煙草吸用制限法案	邊鎮甲	三一				◇
三一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	邊鎮甲	三一	四九、一、三、三	◇		◇
三一	水稻種子更新法案	邊鎮甲	三一				◇
三一	林產燃料使用制限法案	邊鎮甲	三一				◇
三一	肥料管理法	邊鎮甲	三一				◇
三一	棉花獎勵法案	邊鎮甲	三一				◇
三一	繭絲價格安定法案	邊鎮甲	三一				◇
三一	自轉車競技法案	金成坤	三一	四九、一、一〇	◇		◇
三一	公路運送法案	李東根	三一				◇
三一	自動車抵當法案	李東根	三一				◇
三一	公路運送車輛法案	朴相吉	三一				◇
三一	附逆行為犯에對한刑減免에對한法律案	李敏雨	三一	四九、一、二、六	◇		◇

三三三	新聞等與政黨等의 登錄에 關한 法律案	曹在干	三三三			
三三三	釜山地方法院晉州支院吳居昌支院의 管轄區域變更에 關한 法律案	金載璋	三三三			
三三三	財政法中改正法律案	尹宅重	三三三			
三三三	國會議員報酬에 關한 法律中改正法律案	運營委員長	三三三			
三三三	自動車稅法中改正法律案	李鍾南	三三三			
三三三	營業稅法中改正法律案	崔容根·徐廷貴	三三三			
三三三	自動車稅法中改正法律案	朴海植	三三三			
三三三	遊興飲食稅法中改正法律案	具泰會	三三三			
三三三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李鍾南	三三三			
三三三	教育稅法中改正法律案	李鍾南	三三三			
三三三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	柳亨南	三三三			
三三三	物品稅法中改正法律案	尹亨南	三三三			
三三三	教育法中改正法律案	李在賢	三三三			
三三三	地方稅法中改正法律案	辛泳柱	三三三			
三三三	紅蔘專賣法中改正法律案	韓光錫	三三三			
三三三	入場稅法中改正法律案	梁一東	三三三			
三三三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	李龍範	三三三			
三三三	一般市場法案	李敏祐	三三三			
三三三	農產物價格維持法案	金元泰	三三三			
三三三	自動車稅法中改正法律案	財政經濟委員長	三三三			
三三三	臨時土地收得稅法中改正法律案	金學俊	三三三			

三三	水產業協同組合法案	崔爽林	三三				
三三	郵便法案(代案)	交通通信委員長	三三	四九、一、三			
三三	郵便物運送法案(代案)	交通通信委員長	三三	四九、一、三			
三三	所得稅法中改正法律案(代案)	財政經濟委員長	三三	四九、三、六			
三三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陳馨夏	三三				
三三	自轉車競技法案(代案)	商工委員長	三三				
三三	頌春節制定相關法律案	潘在欽	三三				
三三	國家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林文碩	三三				
三三	教育公務員法中改正法律案	林文碩	三三				
三三	教育法中改正法律案	張錫潤	三三				
三三	文化保護法中改正法律案	文教委員長	三三	四九、一、三			
三四	教育法中改正法律案	尹宅重	三四				
三五	外國煙草吸用制限法案	邊鎮甲	三五				
三五	棉花獎勵法案	邊鎮甲	三五				
三五	山林保護法案	邊鎮甲	三五				
三五	林產燃料使用制限法案	邊鎮甲	三五				
三五	水稻種子更新法案	徐範錫	三五	四九、六、一			
三五	國會法中改正法律案	金振晚	三五	四九、六、一			
三五	憲法改正案表決相關臨時特例法案	曹在千	三五	四九、六、一			
三五	新聞等政黨等登錄相關法律案	林文碩	三五	四九、六、一			
三五	大統領、副統領選舉法中改正法律案						

三五	集會有關法律案	曹在千	三五	四九、六二	◇	
三五	赦免法中改正法律案	尹亨南	三五	四九、六八	◇	
三五	國家保安法改正法律案	國家保安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長	三五	四九、五〇	◇	
三五	收復地區臨時行政措置法廢止有關法律案	洪承業	三五			◇
三五	放送管理法	李鍾南	三五			◇
三五	國會法中改正法律案	運營委員長	三五	四九、六一	◇	◇
三五	教育委員任期及選舉有關臨時措置法案	柳青	三五			◇
三五	國會議員選舉法案	國會議員選舉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長	三五	四九、六三	◇	
三五	選舉委員會法案	國會議員選舉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長	三五	四九、六七	◇	
三五	不法蓄財者處罰有關臨時措置法案	金東郁	三五			◇
三五	民法、民事訴訟法施行有關臨時措置法案	尹海植	三五			◇
三五	警察法案	尹宅重	三五	四九、六二	◇	
三五	憲法改正案	警察中立化法案起草特別委員長	三五			◇
三五	政府組織法改正法律案	鄭憲柱	三五	四九、六五	◇	
三五		內閣責任制改革案起草特別委員長	三五	四九、六四	◇	

三五	地方自治法中改正法律案	地方自治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長	三五		三二	一八	七一
三五	辯護士法改正法律案	法制司法委員長	三五	四三、六三	〃		〃
三五	大法官職務代理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陳 馨 夏	三五		〃		〃
三五	地方議會議員任期延長에 關한 臨時措置法案	地方自治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長	三五		三一	一八	七一
計 一一〇							

備考、廢案欄 △印은 代案이 通過됨으로써 採擇된 것으로 看做할 수 있는 것임

3 法律案再議의件

會拒 期否	件	名	會處 期理	會期不繼續으로 因한 廢案
三一	入場稅法中改正法律案		三一	〃
三一	檢察廳法中改正法律案		三一	〃
三四	計量法案		三四	〃
	計 三			三

4 同意(承認)案

同意(承認)案成績表

會期別	條約協定		豫算支出		保證融責其他負擔		其他		計
	提出數	同意數	提出數	同意數	提出數	同意數	提出數	同意數	
第二十九回	1	1	1	1	1	1	1	1	1
第三十回	2	1	1	1	2	1	2	1	2
第三十一回	2	1	1	1	1	1	1	1	2
第三十二回	4	1	1	1	1	1	1	1	4
第三十三回	4	6	1	1	3	3	1	1	4
第三十四回	1	1	1	1	1	1	1	1	1
第三十五回	1	1	1	1	1	1	1	1	1
計	12	7	5	2	5	5	15	12	8

提出會期	件名	處理會期	議決年月日	同意	會期不繼 原因
二九	韓國產業銀行의 資本金增加에 關한件	二九	四九、八、二五	◇	
二九	檀紀四二九一年產夏穀政府收納分買入價格決定에 關한件	二九	四九、八、二五	◇	
二九	檀紀四二九一年產穀年度政府管理糧穀販賣價格決定에 關한件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檀紀四二九〇年度豫備費支辨總調書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第十二回建國國債發行에 關한件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國際軍人體育委員會加入의件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檀紀四二九二年度歸屬財產處理特別會計積立金運用要綱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檀紀四二九二米穀年度政府管理糧穀需給計劃에 關한件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檀紀四二九一年產秋穀政府收納分買入價格 및 四二九二米穀年度政府管理糧穀販賣價格決定에 關한件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韓國產業銀行所有財產再評價差額積立金の 資本金轉入에 關한件	三〇	四九、三、二四	◇	
三〇	各回產業復興國債에 依한水利資金取扱內容一部變更의件	三〇	四九、三、二四	◇	
三一	미터協約加入에 關한國會同意要請에 關한件	三一		◇	
三一	國際軍人體育委員會加入에 關한國會同意要請에 關한件	三一		◇	
三一	미터協約加入에 關한國會同意要請에 關한件	三一		◇	
三一	萬國郵便協約 및 關係約定에 對한國會同意要請에 關한件	三一	四九、三、一	◇	
三一	一九四八年의 海上에 있어의 人命安全을 爲한 國際協約加入의件	三一	四九、三、一	◇	
三一	導入肥料販賣價格改正에 關한件	三一	四九、六、二五	◇	
三一	미터協約加入에 關한國會同意要請에 關한件	三一		◇	

三三	國際軍人體育委員會加入의件	三三三	四九三、一、二	◇	◇
三三	一九五九年度의國際小麥協定加入의件	三三三	四九三、三、九	◇	
三三	大韓民國과아메리카合衆國開發借款基金間의借款協定에對한國會의批准同意要請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〇	◇	
三三	第十三回建國國債發行에對한同意要請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九	◇	
三三	忠州水力發電所設計事業을爲한大韓民國政府、朝鮮電業株式會社및아메리카合衆國開發借款基金間의借款協定에對한國會批准同意要請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一	◇	
三三	國際聯合紀念墓地의設置및維持에關한協定에對한國會同意要請의件	三三三	四九三、三、七	◇	
三三	檀紀四二九三年度歸屬財產處理特別會計積立金運用要綱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七	◇	
三三	製造煙草「花露」販賣價格改正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七	◇	
三三	製造煙草新發賣에隨件하는定價決定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七	◇	
三三	檀紀四二九二年度夏穀政府收納分買入價格決定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七	◇	
三三	檀紀四二九二年度秋穀收納分買入價格및四二九三米穀年度政府管理權穀販賣價格決定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七	◇	
三三	檀紀四二九三米穀年度政府管理權穀需給計劃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四	◇	
三三	大韓民國政府가아메리카合衆國開發借款基金과앞으로締結한借款協定에對한國會의事前批准同意要請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一、九	◇	
三三	檀紀四二九一年度豫備費支辨總書國會提出에關한件	三三三	四九三、三、七	◇	
三三	外國郵便料金및電報料金改正同意要請의件	三三三	四九三、三、七	◇	
三五	民議院議員(朴容益、趙淳、鄭文欽以上同意)李在鶴、任哲鎭、鄭存秀以上辭職)逮捕拘束同意에關한件	三三五	四九三、五、六	三六	八
計	三四				

5 建議案成績表

會期別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會期不繼續 或因廢棄
第二十九回	九	四	一	一	一
第三十回	七〇	一	一	一	八
第三十一回	一	一	一	一	一
第三十二回	五	一	一	一	一
第三十三回	九〇	八	一	一	四
第三十四回	一	一	一	一	一
第三十五回	二二	一三	一	一	九
計	五二	二七	二	一	二二

備考 提出數欄括弧内の數字は前會期에서繼續審査하게된件數임

提出會期	件名	發議者	處理會期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會期不繼 續○或因 廢棄
二九	早害對策에關한建議案	財政經濟委員長 農林委員長	二九	四九、七、三〇	◇			◇
二九	導入肥料融資販賣에關한建議案	農林委員長	二九	四九、七、八	◇			◇
二九	青少年犯行防止에關한建議案	鄭 滄	三〇					
二九	在日僑胞民族教育對策에關한建議案	李 玉童	二九	四九、八、六	◇			◇
二九	光復의 日制定에關한建議案	李 存 華	三〇					
二九	國民學校老朽教室修築에關한建議案	文教委員長	二九					◇
二九	軍警遺族待遇改善에關한建議案	金 勳	三〇					◇
二九	韓國銀行總裁金鎮河의 產業銀行總裁 具鎔書罷免에關한建議案	洪 鳳 珍	二九	四九、八、六		◇		◇
二九	水害對策에關한建議案	水害對策委員會	二九	四九、八、六		◇		◇
三〇	保健行政是正策에關한建議案	朱 金 用	三〇					◇
三〇	立稻先賣防止對策에關한建議案	梁 一 東	三〇					◇
三〇	秋穀價格調節對策에關한建議案	農林委員長	三〇	四九、一〇、一〇	◇			◇
三〇	政府의 自治團體監督徹底에關한建議案	金 東 郁	三〇					◇
三〇	海外搬出糧穀及民需用小麥粉에對한檢査勵行 에關한建議案	農林委員長	三〇	四九、一、二四				◇
三〇	檀紀四二九一年度秋期收納分糧穀取扱에關한 建議案	金 石 辰	三〇	四九、一、二四				◇
三〇	藥工品買入價格引上에關한建議案	吳 範 秀	三〇					◇

三三	既設小溜池의 歸屬 確定에 關한 建議案	金鍾哲	三三三			
三三	保健行政(主로 病院)是正策에 關한 建議案	朱金用	三三三			
三三	公務員糧穀(小麥粉)強制配給是正에 建議案	許潤秀	三三一			
三三	軍警死亡給與金斗軍警年金完拂에 關한 建議案	鄭滯	三三三			
三三	在外國民保護指導을 爲한 建議案	外務委員長	三三一			
三三	颶風災害對策에 關한 建議案	颶風災害對策 特別委員長	三三三			
三三	颶風災害土地收得稅 및 政府秋穀收納에 關한 建議案	李鍾駿	三三三			
三三	市販白米檢査實施에 關한 建議案	朴海楨	三三三			
三三	法官連任拒否에 關한 建議案	黃淑玟	三三三			
三三	野黨活動의 自由保障에 關한 建議案	尹亨南	三三三			
三三	韓美行政協定早速締結促求에 關한 建議案	閔壯植	三三三			
三三	外務部長官早速任命에 關한 建議案	朴相吉	三三三			
三三	配電會社運營에 關한 建議案	閔寬植	三三三			
三三	木浦日報警察干涉是正促求에 關한 建議案	商工委員長	三三三			
三五	馬山事應收拾에 關한 建議案	閔寬植	三三三			
三五	時局收拾에 關한 建議案	徐廷貴	三五			
三五	民主의 保障에 關한 建議案	時局對策委員長	三五			
三五	時局收拾에 關한 建議案	尹宅重	三五			
三五	放火、破壞、殺傷等團束에 關한 建議案	時局對策委員長	三五			
三五	經濟安定을 爲한 建議案	權仲敦	三五			
		李哲承	三五			

三五	禮紀四二九三年度保健社會部所管豫算中戰歿傷病軍警年金增額에 關한 建議案	閔寬植	三五	四三、六二	〃		
三五	國防部賜金未支拂金에 對한 建議案	閔寬植	三五	四三、六二	〃		
三五	今年度施設豫算(農林、海務、建設等)中未着工工事의 合達中止의 事業場所均衡的再調定要求에 關한 建議案	徐廷貴	三五				
三五	四月民主革命國立紀念塔設置에 關한 建議案	崔元天	三五	四三、六二	〃		
三五	外貨管理審計에 關한 建議案	金元萬	三五	四三、六二	〃		
三五	「아이제하위」美大統領來韓滯留時急進經濟援助要請에 關한 建議案	鄭一亨	三五	四三、六二	〃		
三五	政治犯等에 對한 特別赦免及復權促進에 關한 建議案	鄭一亨	三五	四三、六二	〃		
三五	勞動爭議에 關한 建議案	李鍾南	三五	四三、六七	〃		△
三五	資產返還措置에 關한 建議案	朴忠模	三五	四三、六七	〃		△
三五	特赦에 關한 建議案	徐範錫	三五				〃
三五	海外盜難財產調査에 關한 建議案	外務委員長	三五				〃
三五	赦免及復權에 關한 建議案	法制司法委員長	三五	四三、六七	〃		〃
三五	國會議員選舉同時實施에 關한 建議案	元容爽	三五	四三、六三	〃		〃
三五	獨裁政治色一掃에 關한 建議案	李晚雨	三五	四三、六三	〃		〃
三五	大邱西門市場火災事件에 關한 建議案	火災事件特別委員長	三五	四三、六三	〃		〃
三五	良民虐殺事件에 關한 建議案	良民虐殺事件特別委員長	三五	四三、六三	〃		〃
計	五一						

備考 會期不繼續廢棄欄 △印은 法制司法委員長이 發議한 赦免及復權에 關한 建議案이 通過됨으로써 採擇된 것으로 看過할 수 있는 것임

6 決議案成績表

會期別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會期不繼續 或因廢棄
第二十九回	二四	一七	三	一	二
第三十回	一七〇	一一	二	一	五
第三十一回	一	一	六	一	一
第三十二回	一八	一二	一	一	一
第三十三回	二二	一八	一	一	三
第三十四回	二	一	一	一	二
第三十五回	二七	二四	一	一	二
計	一一〇	八二	一一	二	一五

備考 提出數欄括弧內數字는 前會期에서 繼續審査하게된 件數임

會提出	件	名	發議者	會處理	議決年月日	可決	否決	廢棄	會期不繼 續廢棄 原因
二九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增加에 關한 決議案	趙淳、吳緯泳	趙淳、吳緯泳	二九	四九、六九	〃			〃
二九	六·二五 紀念一線將兵慰問金 釀出에 關한 決議案	國防委員長	國防委員長	二九	〃 六〇	〃			
二九	政府糧穀 및 農銀導入肥料에 關한 特別國政監查實施에 關한 決議案	農林委員長	農林委員長	二九	〃 六六	〃			
二九	司法權에 對한 國政監查의 限界에 關한 決議案	張暻根	張暻根	三〇	〃	〃			〃
二九	洪牙利前首相「임예나지」氏의 處刑에 對하여 U	外務委員長	外務委員長	二九	〃 六四	〃			
二九	N事務總長 및 遺家族에 對한 決議案	嚴詳燮	嚴詳燮	二九	〃 六六	〃			
二九	刑事補償法案 審查促進에 關한 決議案	趙炳玉	趙炳玉	二九	〃	〃			〃
二九	李大統領에 對한 警告決議案	運營委員長	運營委員長	二九	〃 六三	〃			
二九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七月七日 至八月五日)	農林委員長	農林委員長	二九	〃 七二	〃			
二九	水害對策特別委員構成에 關한 決議案	金正根	金正根	二九	〃 七五	〃			
二九	水害義捐金 釀出에 關한 決議案	李玉童	李玉童	三〇	〃	〃			
二九	在日僑胞民族教育視察를 爲한 議員派遣에 關한 決議案	鄭一亨	鄭一亨	二九	四九、七二	〃			〃
二九	中東事態에 있어서의 美國大統領에 對한 激勵 및 對지 發送에 關한 決議案	財政經濟委員長	財政經濟委員長	二九	〃	〃			
二九	豫算案 審查에 關한 決議案	嚴詳燮	嚴詳燮	二九	〃 八四	〃			
二九	國務委員(法務部長官洪理基) 不信任決議案	嚴詳燮	嚴詳燮	二九	〃	〃			

二九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八月六日 至八月十三日)	運營委員長	二九	四九、八四	◇
二九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八月十四日 至八月二十日)	◇	二九	八三	◇
二九	北韓同胞에게 「뎃세기」 發送에 關한 決議案	鄭 滄	二九	八三	◇
二九	外換特別稅法審議에 關한 附帶決議案	財政經濟委員長	二九	八四	◇
二九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八月二十一日 至八月二十三日)	團體交涉會	二九	八九	◇
二九	副議長(韓熙錫) 不信任決議案	金 善 太	二九	八三	◇
二九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八月二十四日 至八月二十五日)	團體交涉會	二九	八三	◇
二九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八月二十六日)	議 長	二九	八五	◇
二九	國務委員(財務部長官金顯哲) 不信任決議案	趙 漢 栢	二九	八六	◇
二九	議案繼續審查에 關한 決議案	運營委員長	二九	八六	◇
三〇	常任委員會의 委員定數增減에 關한 決議案	朴容益、吳緯泳	三〇	九八	◇
三〇	水害對策樹立에 關한 決議案	李 泳 熙	三〇	◇	◇
三〇	監察院法案審查促求에 關한 決議案	梁 一 東	三〇	九〇	◇
三〇	法官連任에 關한 法律案審查促求에 關한 決議案	李 炳 夏	三〇	◇	◇
三〇	休會 및 國政監查實施에 關한 決議案 (自十月十四日 至十一月二日)	運營委員長	三〇	一〇〇	◇
三〇	韓國統一 促進要請에 關한 決議案	鄭 一 亨	三〇	一一、三	◇

三〇	國政監查期間延期에 關한 決議案	柳 珍 山	三〇	四三九、三、四	〃	〃	〃	〃
三〇	兵務行政是正에 關한 決議案	李 沐 熙	三〇	二、七	〃	〃	〃	〃
三〇	光復先烈追念會事業贊助金釀出에 關한 決議案	黃 虎 鉉	三〇	二、三	〃	〃	〃	〃
三〇	國家保安法案에 關한 公聽會開催決議案	曹 在 千	三〇	三、五	〃	〃	〃	〃
三〇	서울 基督教青年會館再建을 爲한 歲費釀出에 關한 決議案	尹 城 淳	三〇	二、八	〃	〃	〃	〃
三〇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十一月三十日 至十二月三十一日)	運 營 委 員 長	三〇	二、四	〃	〃	〃	〃
三〇	國家保安法改正法律案 返戻決議案	徐 範 錫	三〇	三、三	〃	〃	〃	〃
三〇	國家保安法改正案 審查에 關한 國會本會議의 決議에 違背된 法制委員會의 不法決議無効確	金 善 太	三〇		〃	〃	〃	〃
三〇	認에 關한 決議案	李 敏 雨	三〇		〃	〃	〃	〃
三〇	附逆行爲에 對한 刑減免에 關한 法律案 審查促	尹 亨 南	三〇		〃	〃	〃	〃
三〇	求에 關한 決議案	運 營 委 員 長	三〇	四九、三、三	〃	〃	〃	〃
三〇	軍刑法案과 軍法會議法案 審查促求에 關한 決議	嚴 詳 燮	三〇		〃	〃	〃	〃
三〇	一線將兵慰問金 國會特別警備隊年末慰勞金 釀出에 關한 決議案	朴容益 柳珍山	三〇	四九、二、九	〃	〃	〃	〃
三〇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二月十一日 至三月十二日)	梁一東	三〇		〃	〃	〃	〃
三〇	在日韓人北返反對에 關한 決議案	金 義 澤	三〇	三、九	〃	〃	〃	〃
三〇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三月二十日 至四月十八日)	張 暉 根	三〇		〃	〃	〃	〃
三〇	犯則物資處分真相調查特別委員會構成에 關한 決議案	運 營 委 員 長	三〇	四、三	〃	〃	〃	〃
三〇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四月十九日 至五月十八日)		三〇		〃	〃	〃	〃

三三三	會期延期에 관한決議案 (自五月十九日 至六月十七日)	運營委員長	三三三	四三三、五、四	◇	
三三二	武衛警衛採用 및 經費出處에 대한 國政監査實施에 관한決議案	尹明運	三三二	五、九	◇	◇
三三一	議長辭退勸告決議案	韓根祖	三三一	五、〇	◇	◇
三三〇	前美國國務長官「존·포스터·델레시」氏逝去에 대한 吊電發送에 관한決議案	尹城淳	三三〇	五、五	◇	◇
三二九	法律案審查促進에 관한決議案	嚴詳雙	三二九	六、〇	◇	◇
三二八	會期延期에 관한決議案 (自六月十八日 至七月十七日)	運營委員長	三二八	六、五	◇	◇
三二七	在日僑胞北送反對에 관한決議案	朴容益、柳珍山	三二七	六、七	◇	◇
三二六	一線將兵慰問金釀出에 관한決議案	國防委員長	三二六	◇	◇	◇
三二五	國務委員(內務部長官崔仁圭) 不信任決議案	金度演	三二五	七、三	◇	◇
三二四	國務委員(外務部長官吉正煥) 不信任決議案	鄭重雙	三二四	七、六	◇	◇
三二三	水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議長	三二三	七、七	◇	◇
三二二	公報室長(全聖天) 罷免에 관한決議案	李哲承	三二二	◇	◇	◇
三二一	會期延期에 관한決議案 (自七月十八日 至八月十六日)	金義澤	三二一	七、六	◇	◇
三二〇	議案繼續審查에 관한決議案	運營委員長	三二〇	◇	◇	◇
三一九	寶城、梁山再選舉視察團派遣에 관한決議案	金應柱	三一九	九、八	◇	◇
三一八	水災民救護對策에 대한慰問金釀出에 관한決議案	議長	三一八	九、三	◇	◇

三三三	颱風災害對策特別委員會構成에 關한 決議案	鄭文欽	三三三	四九三, 九三	◇
三三三	國政監查實施에 關한 決議案	運營委員長	三三三	◇	10, 16
三三三	外換管理法案提出에 關한 決議案	李鍾南	三三三	◇	10, 17
三三三	國政監查實施期間延期에 關한 決議案	運營委員長	三三三	◇	11, 19
三三三	農產物價格維持對策樹立에 關한 決議案	劉沃祐	三三三	◇	11, 23
三三三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十一月三十日 至十二月二十九日)	運營委員長	三三三	◇	◇
三三三	金融汚職事件調查報告促進에 關한 決議案	閔寬植	三三三	◇	三, 九
三三三	一線將兵慰問金 및 國會特別警備隊員慰勞金 離出에 關한 決議案	運營委員長	三三三	◇	三, 11
三三三	在日僑胞強制北送反對決議 및 對峙 發送에 關한 決議案	吳範秀	三三三	◇	三, 14
三三三	示威行進方法是正에 關한 決議案	尹亨南	三三三	◇	三, 19
三三三	國務委員(外務部長官曹正煥)不信任決議案	朱耀翰	三三三	◇	◇
三三三	駐日本大使罷免勸告決議案	具喆會	三三三	◇	◇
三三三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十二月三十一日 至十一月三十一日)	運營委員長	三三三	◇	三, 16
三三三	會期延期에 關한 決議案 (自四三三三年一月一日 至四三三三年一月二十日)	◇	三三三	◇	三, 33
三三三	三, 一 獨立宣言紀念碑建立費離出에 關한 決議案	◇	三三三	四三三, 一, 五	◇
三三三	國立釜山大學總長署理不正任命에 對한 調査處理에 關한 決議案	李鍾南	三三三	◇	◇

三五	導入肥料販賣價格改正에 관한同意案審査促進에 관한決議案	裴聖基	三三三	四三三、一、一五	◇
三三	迎日郡乙區榮州郡兩選舉區의 再選舉視察團派遣에 관한決議案	徐範錫	三三三		
三三	國聯軍徵發財產에 對한處理對策委員會設置에 관한決議案	梁一東	三三三	一、二〇	◇
三三	公報室長罷免勸告決議案	閔壯植	三四		◇
三四	民議院議長不信任決議案	嚴詳燮	三四		◇
三五	會期延期에 관한決議案 (自四月十六日(三)日間至五月十五日(三)日間)	運營委員長	三五	四、一五	◇
三五	議員(崔昌燮)釋放要求에 관한決議案	尹在根	三五		◇
三五	四·一九犧牲者에 對한吊慰金釀出에 관한決議案	運營委員長	三五	四、三	◇
三五	國會時局對策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曹逸煥	三五		◇
三五	非常戒嚴解除要求에 관한決議案	李哲承	三五	四、六	◇
三五	時局收拾에 관한決議案	曹逸煥	三五		◇
三五	內閣責任制改憲案起草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運營委員長	三五	四、七	◇
三五	不正選舉責任議員辭任勸告決議案	時局對策委員長	三五		◇
三五	全國學徒에게 보내는感謝文	梁一東	三五		◇
三五	民議院議員選舉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曹沐珪	三五	五、二	◇
三五	正副統領補闕選舉에 관한件	曹沐珪	三五	五、三	◇

三五	警察中立化法案起草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朴炳培	三五	四三	五二	〃
三五	地方自治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梁一東	三五	〃	五九	〃
三五	國家保安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陳馨夏	三五	〃	〃	〃
三五	民議院議員選舉日字에 관한決議案	李敏雨	三五	〃	五〇	〃
三五	會期延長에 관한決議案(自五月十六日三日間至六月十四日三日間)	運營委員長	三五	〃	五二	〃
三五	良民虐殺事件真相調査에 관한決議案	金義澤	三五	〃	五三	〃
三五	居昌、咸陽、山淸等地良民虐殺事件真相調査에 관한決議案	朴相吉	三五	〃	〃	〃
三五	統營、南原、開慶地區良民虐殺事件真相調査에 관한決議案	徐廷貴	三五	〃	〃	〃
三五	政府組織法改正案起草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運營委員長	三五	〃	五七	〃
三五	土耳其國民을激勵하느, 에세이 지採擇에 관한決議案	崔天鎭	三五	〃	六九	〃
三五	一線將兵慰問金釀出에 관한決議案	李弼鎭	三五	〃	六九	〃
三五	海外盜賊財產調査特別委員會構成에 관한決議案	外務委員長	三五	〃	〃	〃
三五	會期延長에 관한決議案(自六月十五日六日間至六月三十日六日間)	運營委員長	三五	〃	六〇	〃
三五	不正蓄財者處罰에 관한臨時措置法案審議促求에 관한決議案	金東郁	三五	〃	〃	〃
三五	大邱西門市場火災事件救護調査委員派遣에 관한決議案	曹逸煥	三五	〃	六六	〃
三五	會期延長에 관한決議案(自七月一日二五日間至七月五日二五日間)	運營委員長	三五	〃	六三	〃
計	一一〇					八二二二
						二二
						一五

7 重要動議

重要動議成績表

會期刊	提出數	可決	否決	廢棄	撤回	會期不繼續 是因於廢棄
第二十九回	二	一五				三
第三十回	二〇	一四				六
第三十一回	二		一			二
第三十二回	二五	一八				三
第三十三回	二二(三)	一八		一	一	四
第三十四回	三					三
第三十五回	二二	一九	一	一		一
計	一四	八四	四	二	二	二二

提出 會期	件 名	發 議 者	處 理 會 期	議 決 年 月 日	可 決	否 決	廢 棄	撤 回	會 期 不 繼 續 因 廢 棄
二九	休會動議 (自六月十四日) 五、二總選舉의自由破壞와事後復行爲에關한質問을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趙 淳	二九	四九、六九	◇				
二九	糧穀不正事件에對한經緯를聽取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尹 濟 述	二九	六九	◇				
二九	脫毛의不正事件에對한特別調査委員會構成에關한動議	梁 一 東	二九	六六	◇				
二九	議員(金善太)懲戒動議	趙 鍾 吳	二九	六三	◇				
二九	議員(李在鶴)懲戒動議	具 興 南	二九	六三	◇				
二九	早害對策을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嚴 詳 燮	二九	六三	◇				
二九	五、二總選舉不正事實에對한特別調査委員會構成에關한動議	郭 義 榮	二九	六三	◇				
二九	休會動議 (自七月五日)	金 度 演	二九	六三	◇				
二九	韓日會談韓國統一 및 柳泰夏公使의發言眞狀과外務行政의基本原則을闡明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鄭 一 亨	二九	六三	◇				
二九	서울地方法院判決(進步黨事件)에對한示威運動에關한眞相調査에關한動議	韓 根 祖	二九	六三	◇				
二九	反共青年示威運動에關한眞相調査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柳 鴻	二九	六三	◇				
二九	產業銀行連繫資金貸付眞相調査에關한動議	朴 海 植	二九	四九、七五	◇				
二九	休會動議 (自七月十六日) (至七月十九日)	運營委員長	二九		◇				

二九	休會動議 (自七月二十二日 至七月二十六日)	運營委員長	二九	四九、七三	◇
二九	中東事態を圍繞し國際情勢を政府方針を聽取 하기爲す國務委員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尹 濬 善 河 泰 煥	二九	◇	◇
二九	休會動議 (自七月二十九日 至七月三十一日)	運營委員長	二九	七六	◇
二九	選舉事犯處理에 關한 質問을 하기爲す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金 善 太	二九	八一	◇
二九	休會動議 (自八月五日 至八月八日)	運營委員長	二九	八四	◇
二九	李元榮事件真相調査에 關한 動議	內務委員長	二九	八九	◇
二九	議員(金相敦)懲戒動議	任 哲 鎬	二九	八三	◇
三〇	休會動議 (自九月三日 至九月六日)	團體交涉會	三〇	九二	◇
三〇	서울特別市議會議員拘束事件에 關한 動議	閔 寬 植	三〇	九八	◇
三〇	秋穀價調節에 關한 動議	朴 海 植	三〇	九九	◇
三〇	休會動議 (自九月十一日 至九月三十日)	運營委員長	三〇	九〇	◇
三〇	營業稅法中零細業者免稅規定新設改正法律案 立案에 關한 動議	鄭 成 太	三〇	九六	◇
三〇	農地擔保制度確立에 關한 動議	金 正 根	三〇	九八	◇
三〇	I, C, A 資金導入物資(原綿, 原糖, 原麥, 半制 原毛)에 對한 稅稅真相調査에 關한 動議	金 義 澤	三〇	◇	◇
三〇	豫算決算委員會의 國政監查期間延期에 關한 動 議	金 東 郁	三〇	二、三	◇
三〇	休會動議 (自十一月十三日 至十一月十五日)	運營委員長	三〇	◇	◇

三〇	米價政策에 關한 質問을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 에 關한 動議	劉沃祐	三〇	四九、二、二七	◇				
三〇	休會動議 (自十一月十八日) (至十一月二十二日)	運營委員長	三〇	◇	◇				
三〇	國會法中「適當委員會」의 概念解釋에 關한 動 議	金義澤	三〇	◇	二、二八	◇			
三〇	休會動議 (自十一月二十五日) (至十一月二十九日)	運營委員長	三〇	◇	二、二四	◇			
三〇	參議院議員選舉實施에 關한 質問을 爲한 國務委 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高湛龍	三〇	◇		◇			
三〇	大韓民國憲法制定言說과 國土統一에 對한 民主 黨代表最高委員의 國會決議違反에 對한 質問動 議	朴相吉	三〇	◇	三、二四	◇			
三〇	屋外集會와 示威行列의 禁止措置에 關한 動議	尹亨南	三〇	◇		◇			
三〇	國家保安法改正法律案公聽會妨害事件에 關한 質問을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金義澤	三〇	◇		◇			
三〇	休會動議 (自十二月十三日) (至十二月十九日)	趙根淳	三〇	◇	二、二二	◇			
三〇	法官連任問題를 質問하기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 求에 關한 動議	韓根祖	三〇	◇		◇			
三〇	休會動議 (自十二月二十六日) (至十二月三十一日)	趙淳	三〇	◇	二、二四	◇			
三一	在日僑胞北韓移送에 關한 質問을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尹城淳	三一	◇		◇			
三一	米價低落防止對策에 關한 質問을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安均燮	三一	◇		◇			
三一	休會動議 (自二月二十日) (至二月二十一日)	運營委員長	三一	◇	四三、二、二〇	◇			
三一	犯則物資處分真相調查에 關한 動議	朴晚元	三一	◇	三、二二	◇			
三一	議員(李晚雨、劉沃祐)懲戒動議	朴容益	三一	◇		◇			

三三	休會動議 (自三月二十一日至三月三十一日)	鄭雲甲	三三	三三九、三一九	◇	
三三	休會動議 (自四月十一日至四月十三日)	運營委員長	三三	◇	◇	
三三	休會動議 (自四月十四日至四月二十五日)	◇	三三	◇	四二二	
三三	休會動議 (自四月二十八日至五月九日)	◇	三三	◇	四三三	
三三	休會動議 (五月十五日)	◇	三三	◇	四三七	
三三	大邱市長不信任決議에對한真相調査에關한動議	林文碩	三三	◇	五二四	◇
三三	京鄕新聞發行許可取消에關한質問을하기爲한	鄭一亨	三三	◇	五三三	◇
三三	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洪淳熙	三三			
三三	夏穀及肥料對策에關한質問을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趙漢栢	三三			
三三	國家財政과國民經濟에對한對策을樹立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鄭重燮	三三			
三三	木浦商科大學移轉에對한質問을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運營委員長	三三	四九三、五二八	◇	
三三	休會動議 (自五月二十九日至六月五日)	金善太	三三			
三三	麟蹄、盈德兩選舉의再選舉狀況을質問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運營委員長	三三	◇	六一〇	
三三	休會動議 (自六月十一日至六月十三日)	朴容益	三三	◇	六一〇	
三三	在日僑胞北送問題에對한質問을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關한動議	柳珍山	三三	◇	六一五	
三三	再選舉區蔚山乙區月城乙區의自由券團氣保障與否科明에關한動議	梁一東	三三	◇	六一五	
三三	休會動議 (六月十八日)	運營委員長	三三	◇	六二七	

三三	休會動議 (自十一月五日)	◇	三三三	四九、三、一	◇
三三	休會動議 (自十一月七日)	◇	三三三	四九、三、七	◇
三三	休會動議 (自十一月十五日)	◇	三三三	四九、三、四	◇
三三	休會動議 (自十一月十八日)	◇	三三三	四九、三、九	◇
三三	休會動議 (自十二月一日)	◇	三三三	四九、三、九	◇
三三	休會動議 (自十二月二十二日)	◇	三三三	四九、一、三	◇
三三	休會動議 (自十二月二十四日)	◇	三三三	四九、一、三	◇
三三	大統領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	三三三	四九、一、三	◇
三三	休會動議 (自一月十日)	◇	三三三	四九、三、三	◇
三三	教育公務員의 選舉干渉에 對한 質問을 爲한 國務委員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	三三三	四九、一、五	◇
三三	獨島警備 및 鬱陵島連絡船就航實態에 對한 質問을 爲한 國務委員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	三三三	四九、一、五	◇
三三	獨島警備 및 鬱陵島連絡船就航實態에 關한 調查動議	◇	三三三	四九、一、〇	◇
三四	서울驛構內의 樁事事件에 關하여 質問을 하기 爲한 國務委員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	三四		◇
三四	換率變更에 關하여 質問을 하기 爲한 國務委員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	三四		◇
三四	迎日乙、榮州兩區의 再選舉에 있어 서의 不正選舉에 關하여 質問을 하기 爲한 國務委員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	三四		◇
三五	休會動議 (自三月十九日 十日間) (至三月二十八日)	辛泳柱	三五	四九、三、八	◇

三五	休會動議 (自四月九日九日間)	朴興奎	三五	四三六、三三三	◇
三五	馬山事件에 關聯된 搜查方針 및 工經緯를 聽取하기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閔寬植	三五	四三六、四一五	◇
三五	休會에 關한 動議 (自四月十八日八日間)	運營委員長	三五	四三六、四一五	◇
三五	休會에 關한 動議 (自四月二十五日八日間)	◇	三五	四三六、四一三	◇
三五	休會에 關한 動議 (自四月二十三日一日間)	◇	三五	四三六、四一九	◇
三五	休會에 關한 動議 (四月三十日一日間)	◇	三五	四三六、四一九	◇
三五	休會에 關한 動議 (自五月四日二日間)	議長	三五	四三六、四三三	◇
三五	非違檢察幹部罷免立件에 關한 動議	金善太	三五	四三六、四三九	◇
三五	休會에 關한 動議 (五月七日一日間)	內閣責任制 改憲案起草 特別委員長	三五	四三六、四三〇	◇
三五	民議院議員選舉日字에 對한 質問을 하기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崔天鴻	三五	四三六、四三三	◇
三五	過渡內閣의 貨幣金融政策을 質問하기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柳鴻	三五	四三六、四三三	◇
三五	過渡政府의 當面課業과 二遂行에 關한 質問을 하기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柳炳培	三五	四三六、四三三	◇
三五	過渡政府의 人事政策과 戒嚴業務에 關한 質問을 하기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李鍾南	三五	四三六、四三〇	◇
三五	公路行政에 關한 質問을 하기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梁一東	三五	四三六、四三〇	◇
三五	前大統領李承晚博士 出國에 關한 質問을 하기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柳珍山	三五	四三六、六一	◇
三五	治安維持對策에 關한 質問을 하기 爲한 國務委員 出席要求에 關한 動議	運營委員長	三五	四三六、六一四	◇
三五	拘禁議員 出席에 關한 動議				◇

8 國政監査外 事件調査報告

三五	議長辭任에 對한憲法解釋에 關한動議	閔寬植	三五	四九、六二六	〃		
三五	警察官示威에 關한質問을 하기爲한國務委員出席要求에 關한動議	李哲承	三五	四九、六三三	〃		
三五	議員登院時不祥事에 對한眞相調査의件	議長	三五	〃	〃		
三五	休會에 關한動議 (自六月二十四日二十日間)	運營委員長	三五	四九、六三三	〃		
三五	二四波動武衛警衛隊指揮者名單調査報告에 關한動議	趙一載	三五		八四		
計	一一四						三

提出會期	件名	處理會期	議決年月日	報告年月日	備考
二九	水害對策委員會調査報告	二九	四九、七二	四九、八六	
三〇	脫毛비누不正事件調査報告	三〇	四九、六二九	四九、三三	
三〇	糧穀不正事故及農銀導入肥料操作費調整支出事件에 關한特別國政監査報告	三〇	四九、七七	四九、一〇、一〇	
三〇	水害對策特別委員會調査報告	三〇	四九、九八	四九、一〇、二三	
三二	第二訓練所訓練兵變死事件調査報告	三二	四九、二二四	四九、六七	
三二	第二十八師團長被殺事件眞相調査報告	三二	〃	四九、七四	
三三	颱風災害對策에 關한報告	三三	四九、九三	四九、一〇、二七	

三五	馬山事件에 관한報告	三五	四三、四三	四三、四三	
三五	肥料供給 및 農資金放出狀況調査報告	三五	四三、四三	四三、四三	
三五	良民虐殺事件真相調査報告	三五	四三、四三	四三、四三	
三五	大邱西門市場火災事件에 관한真相調査報告	三五	四三、四三	四三、四三	
三五	議員登院時惹起된不祥事에 대한真相調査報告	三五	四三、四三	四三、四三	
三五	警察官示威에 대한收拾에 관한報告	三五	四三、四三	四三、四三	
三五	二四波勤武術警備 및 指揮者名單調査報告	三五	四三、四三	四三、四三	
計	一四				內務委員會로 하여금 調査報告기로 하였으나 會期不繼續으로 인하여 廢棄됨

一三八

9 懲戒事犯의 件

提出會期	件名	處理會期	會期不繼續으로 인한廢棄됨
三〇	金善太議員懲戒事犯의 件	三〇	〃
三〇	金相致議員懲戒事犯의 件	三〇	〃
計	二		二

二、選舉斗 任命承認

會期別	件	名	選舉斗 承認年月日	選舉 承認
二九	議長 吳 副議長選舉(議長 李起鵬 副議長 李在鶴·韓熙錫)		四九、六、七	三
二九	大法院長(趙容淳)任命承認 關連件		四九、六、六	
二九	全院委員長 吳 各常任委員長選舉		四九、六、七	一五
二九	憲法委員會委員長選舉(委員 韓根祖 趙瓊奎 任哲鎬、豫備委員 洪範臺 金元泰 金善大)		四九、六、七	六
二九	市·邑·面長 懲戒委員會委員長選舉(金元泰 俞鳳淳 金義澤)		四九、七、三	三
三〇	全院委員長 吳 各常任委員長選舉		四九、九、九	一五
三〇	豫算決算委員長 補闕選舉(崔容根)		四九、一〇、六	一
三〇	歸屬財產訴請審議會委員(金鍾哲 朴海楨)		四九、一、二	二
三二	文教委員長補闕選舉(孫在馨)		四九、七、六	一
三三	副議長補闕選舉(任哲鎬)		四九、一〇、二	一
三三	全院委員長 吳 各常任委員長選舉		四九、一〇、二	一五
三五	議長補闕選舉(郭尙勳)		四九、五、三	一
三五	議長選舉(郭尙勳)		四九、六、四	一
三五	副議長選舉(金度演·李載濬)		四九、六、一〇	二
	計			六六

三、請願斗工成績

請願成績表

會期別	提出數	本會議에 치않기로 된것	撤回	會期不繼續 廢棄으로
第二十九回	五九	七		
第三十回	九〇(五二)	五		一三七
第三十一回	七六	一七	一	
第三十二回	五七(五八)	三三	一	七七
第三十三回	四(四)			八
第三十四回	二一			二一
第三十五回				
計	三〇七	六二	二	二四三

會提出期	件名	處理會期	本會議에 기르던것	撤回 會期不繼 한廢業
二九	分配農地償還額納付에關한請願	二九	—	—
二九	貸與糧穀着服에關한請願	二九	—	—
二九	韓國毛織會社勞賃辨濟에關한請願	二九	—	—
二九	堤防補修要請에關한請願	二九	—	—
二九	板子집撤去保留要請에關한請願	二九	—	—
二九	警察署移轉에關한請願	二九	—	—
二九	藥工品價格引上措置에關한請願	二九	—	—
二九	建設業法中改正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國道補修負役調整要請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地方大學施設費및運營難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釜山工業高等學校校舍明渡要請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教育監不信任決議調査善處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盜地不法侵害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大學認可要請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府君堂築地還元措置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電氣架設要請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外換特別稅法中水産用資材의實需要者購買制定要請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收復地區地方自治制實施에關한請願	三〇	—	—

二九	道路開發等國庫補助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山林保護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治山治水 및 道路橋梁復舊建設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畜産獎勵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軍警援護事業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水害對策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政府印刷工場設置反對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板子집撤去保留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地方自治法中改正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鐵道現業公務員處遇改善에 對한 豫算編成是正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行政機構簡素化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農地還元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地方稅法中改正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地方公務員處遇改善所要經費國庫補助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無賃乘車券發給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水害對策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復興住宅價格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釜山市의 政府直轄市昇格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鍼灸醫療에 對한 部令早速公布要望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前國有地繼續居住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	貯水池返還復舊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二九〇	農地被害報償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星州金泉間道路開通事業推進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議員秘書室配定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假建築物撤去保留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軍需雨裝加工調達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公務員技術手當支給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地方自治法中改正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政府管理糧穀包裝古叭中間取扱機關排除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出版業에 對한 免稅措置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太極道眞相調査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水害對策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釜山政府直轄市昇格反對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農地拂下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國庫補助金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水門工事着手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敷地所有權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簡易私設水道設置侵害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天幕撤去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警備艇修理豫算措置外職員處遇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地方公務員處遇改善을 위한 所要額國庫補助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〇
二九〇	四二九二年度議員秘書旅費豫算增額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〇

三〇	昌信洞所在市營採石 및 遷青工場移轉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絕糧農家外 旱害對策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旱害對策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石花增産資金融資措置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堤防水門修理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道路用敷地無補償收用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政府管理糧穀包裝古叭取拔機關二元制施行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水害對策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農業協同組合育成發展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揚水場設置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地方自治法改正에 關한 請願(二件)	三〇	
三〇	土地再分配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鐵道慶全南部線敷設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昌寧郡遊漁梨戾防水堤設置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政府管理糧穀包裝古叭取拔機關二元制施行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立稻先賣防止資金 및 米穀擔保融資適期放出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信仰村實情調査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橋梁架設 및 道路擴張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軍用車輛에 依한 被害辨償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水害對策에 關한 請願(二件)	三〇	
三〇	輸送部隊士兵不法行爲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板子집撤去保留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自動車運輸用揮發油直配措置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地方自治法改正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甘谷川浚深工事に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旅客自動車運行線路侵犯是正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國民學校運營費適期令達及教育公務員處遇改善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農地鐵道敷地拂下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堤防擴張工事認可撤回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荒蕪地開墾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橋梁架設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義新川堤防修築及橋梁架設에 關한 要請	三〇
三〇	板子집撤去撤回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國學大學紛糾로 因한 敎職員集團解雇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溫陽敎養病院廢鎖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圖書館法制定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限地醫의 正規醫師免許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農地分配取消措置是正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護岸工事實施要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漁業用油類直配實施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水産業에 對한 稅率引下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輸出獎勵를 爲한 稅法改正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課稅公正과稅務行政機構改革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仁川埠頭什長制度止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水利事業歲入缺陥補填長期債要請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計理士의監查證明書認定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免稅및救護對策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新設自動車稅法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三川堤防護岸工事實施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外國映畫入場稅率引下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寫眞業免稅措置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歸屬財産運用要綱案第八條新設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劇場入場稅率引下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租稅改善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自動車工業育成을위한物品稅免稅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外國映畫輸入稅率引上保留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中小企業育成을위한金融施策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教育稅法改正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水利組合脫退要請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戰歿軍警遺族및傷痍軍警援護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地方稅改善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火災保險料引下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灌溉用貯水池設置에關한請願	三〇

三〇	教育法改正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京畿道靜養院水原本院生の復院 및 同院職員非行是正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共同漁場獨占行使防止外入漁料固定金額策定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全南大學校商科大學移轉反對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肥料操作費 및 勞賃橫領着服事件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義務教育財政平衡交付金法制定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慶州國立公園早速實現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旱害對策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水產行政機構改編 및 水產金庫設置等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國立中央生藥試驗所移轉反對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源泉課稅 및 教育稅率引下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除隊軍人教師資格證交付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料食業의 稅率引下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自動車稅新設反對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酒類販賣既得商權侵害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淤増設 및 復舊工事要請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外換特別稅改正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慶南道立保健所建物新築費國庫補助請願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發明特許木材防腐防虫劑(親和防腐劑)活用に 관한請願	三〇	
三〇	兒童相談所運營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河川建築許可取消要請에 관한請願	三〇	

三〇	無許可建築物撤去令撤回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在日僑胞學徒義勇軍不具者自立更生에 關한 請願	三〇	
三〇	固城川改修工事施行에 關한 請願	三〇	
三二	禮拜堂建築候補地幹旋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在日僑胞北送反對에 對한 緊急鬭爭資金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北韓難民居住地入札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三千浦郵遞局新築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國會議事堂新築에 編入된 地補償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計理士法改正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水利組合職員更迭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地方稅法改正에 關한 請願(四件)	三二	
三二	遊興飲食稅率引下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外國映畫入場稅率引下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自動車稅法中貨物自動車等級追加制定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政府管理糧穀包裝古以取扱機關에 關한 請願(三件)	三二	
三二	大韓住宅營團住宅分讓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馬山都市計劃是正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在日僑胞學徒義勇軍出身者援護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中學校設立認可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背屯地區電氣施設에 關한 請願	三二	
三二	傷痍勇士靜養院移轉反對에 關한 請願	三二	

三三二	農地鐵道敷地拂下要請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一	中央醫院釜山分院設置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〇	限地醫의 正規醫師免許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二九	鍾岩「아파」에 價格再査定 및 工事完成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二八	仁川埠頭什長制廢止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二七	肥料操作費 및 勞賃橫領着服事件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二六	陸軍下士殺害真相科明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二五	全北水利組合紛爭調査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二四	科學技術院設置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二三	地方自治法改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二二	釜山工業高等學校校舍明渡에 關한 請願(二件)	三三三	
三二一	杏村地區復興住宅入住者被害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二〇	軍人의 私刑禁止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一九	美軍事施設豫定地變更에 關한 請願	三四四	
三一八	板子집 撤去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一七	國有財産侵害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一六	復興住宅分讓價格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一五	軍服務中變死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一四	暹國醫師免許更新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一三	鍼灸醫療業의 部令公布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一二	復興住宅價格引上反對에 關한 請願	三三三	

鐵道敷設工事に關한請願	三三二
金堤邑長任命促求에關한請願	三三二
國會議事堂新築地에隨伴된補償에關한請願	三三二
유1에軍使用徵發不動產補償에關한請願	三三二
紅蔘專賣法改正에關한請願	三三二
民議院議員自動車運轉員에關한請願	三三二
歸屬財産既得權獲得에關한請願	三三二
軍徵發建物明渡에關한請願	三三二
市有地價格再調整과一時拂反對에關한請願	三三二
太宗臺遊園地開放에關한請願	三三二
水産선1디設置場所反對에關한請願	三三二
釜山市內電車軌道敷地補修工事促進에關한請願	三三二
紅蔘專賣法改正에關한請願	三三二
農業協同組合組織強化에關한請願	三三二
世道堤防復舊工事反對에關한請願	三三二
軍人非行處斷과慰藉料請求에關한請願	三三二
議員護衛警察官待遇改善에關한請願	三三二
教育稅法改正에關한請願	三三二
教育法改正에關한請願	三三二
歸屬財産返還要請에關한請願	三三二
鐵道小運送業法案修正에關한請願	三三二

三三三	軍人豫備役編入措置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旅館增築許可取消選元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성남 匪實用特許權無效特許行政是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三千浦市都市事業豫算補助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忠南管内水産團體運營및補助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農地耕作權回復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配電料金調整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軍政法令第八十八號廢止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忠州水力發電所建設事業에 隨件하는 水沒地區對策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小運送法案修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議員秘書旅費增額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颱風被害對策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颱風被害로 因한 緊急對策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國會議事堂新築整地工事로 因한 廢領道路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慶北線鐵道復舊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遊興飲食稅및 特別行爲稅賦課撤廢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自動車稅法改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煉炭加工業의 稅率引下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料食業者에 對한 稅法改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自動車稅法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家具製品에 對한 物品稅免稅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四二九三年度歸屬財產處理特別會計設立金運用要綱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公務員年金制實施促進 및 法案修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陸軍恤兵監室不正事件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徵發財產의 補償 및 返還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陸軍第七兵站被服廠軍屬免職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豫備軍人會法案通過와 補助豫算執行 및 增額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軍人私刑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諸車의 幹線道路運行原狀回復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鑛業權登錄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難民住宅明渡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公務員의 不法行爲로 因한 被害補償에 關한 請願	三四
三三三	揚排水機設置要請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江外水利組合脫退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歸屬林野貸付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歸屬財產(農地)拂下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鯖巾着網漁業示範漁具導入申請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勤勞者의 源泉課稅와 教育稅賦課引下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朝鮮貨物自動車統制株式會社再建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東幸防潮堤水利組合廢止 및 工事費政府補助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金昌水利組合施設補強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諸稅法改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農業協同組合에 肥料業務移讓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國學大學財團紛糾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橋梁及河幅擴張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糧穀國營檢査實施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瑞山警察署外良莠警察官派出所新築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物品稅法中各種車輛部分品稅率改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不正建築物因被害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鯨鱈網漁業團束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歸屬財產訴請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自動車運輸送用揮發油의 配給制度改善 및 價格是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歸屬財產拂下是正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貯水池設置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農地分配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鐵道敷地賃貸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全北水利組合非行으로 因한 補償支拂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鹽販賣株式會社設定反對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颶風被害로 因한 水利組合補助費 및 罹災民救護對策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颶風被害로 因한 橋梁 및 堤防復舊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米擔未收保管料清算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西大門區巖岩洞所在鐵道敷地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三三	農業銀行과 農業協同組合과의 不當性解除에 關한 請願	三三三

三五	苦學生援護對策에 關한 請願	三五
三三	中學校併設에 關한 請願(二件)	三三
三三	埜地二重賣買是正에 關한 請願	三三
三四	水利組合工事設計變更에 關한 請願	三四
三四	農地附屬施設補償에 關한 請願	三四
三四	教育法改正에 關한 請願	三四
三四	金堤防潮堤國家管理 및 地方負擔金免除에 關한 請願	三四
三五	麗水殺人事件調査團派遣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鍾岩아파트 貨貸契約措置反對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朝鮮貨物自動車統制株式會社再建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鎭毒被害補償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內唐洞共同駐車場設置反對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劇場既得權侵害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佛敎正統僧의 原狀回復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金聖柱死刑執行經緯 및 遺骸返還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公民權回復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申亨植釋放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高麗製紙株式會社의 勞資紛糾收拾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美都波百貨店經營管理體還元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軍徵發土地補償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國家保安法違反事件糾明에 關한 請願	三五

三五	排方面良民虐殺事件에 關한 請願				
三五	敷地不法入札에 關한 請願				
三五	沃溝揚水場에 對한 不法電氣料金徵收에 關한 請願				
三五	晉岩面良民虐殺에 關한 請願				
三五	慶南進永地區良民虐殺事件에 關한 請願				
三五	求禮華嚴寺紛爭에 關한 請願				
三五	稅關職員復職에 關한 請願				
	計	三〇七			
			六二		
				一一	
					一一四三

(五) 質問과 答辯

一、緊急質問과 答辯表

提出會期	件名	提出者	處理會期	要旨說明年月日	答年月日	答辯者
二九	五·二總選舉의 自由破壞의 事後報復行爲에 關한 質問	尹濟述	二九	四九、六、三	四九、六、三〇	內務、法務、國防部長官 吳文教 次官
二九	選舉事犯處理에 關한 質問	金善太	二九	四九、八、二	四九、八、二	法務部長官
三〇	米價政策에 關한 質問	劉沃祐	三〇	四九、三、七	四九、三、八	農林、財務部長官
三〇	大韓民國憲法制定言說과 國土統一에 對한 民主黨代表最高委員의 國會決議違反에 對한 質問	朴相吉	三〇	四九、三、五	四九、三、五	民主黨代表最高委員
三二	京鄕新聞發行許可取消處分等에 關한 質問	鄭一亨	三二	四九、五、三	四九、五、三〇	外務、內務、法務部長官
三二	在日僑胞北送問題에 關한 質問	柳容山	三二	四九、六、六	四九、六、六	外務、財務、商工部長官
三三	教育公務員의 選舉干涉에 關한 質問	林文碩	三三	四九、一、六	四九、一、六	內務、文教部長官
三五	馬山事件에 關한 緝查方針 및 그 經緯에 關한 質問	閔寔植	三五	四九、四、五	四九、四、五	法務部次官

1958

三五	民議院議員總選舉日字에 關한 質問	內閣責任制 改憲案起草 特別委員長	三五	四九、五、〇	四九、五、〇	內務部長官
三五	過渡內閣의 貨幣金融政策에 關한 質問	崔 天	三五	四九、五、三	四九、五、三	財務部長官 財政經濟委員長
三五	前大統領李承晚博士出國에 關한 質問	梁 一 東	三五	四九、五、三〇	四九、五、三〇	外務部長官
三五	治安維持對策에 關한 質問	柳 珍 山	三五	四九、六、一	四九、六、一	內務、法務、國防 文教部長官
	計				一一二	

二、質問과答辯表

提出會期	件名	提出者	處理會期	提出年月日	答辯年月日	答辯者
二九	保健社會政策 및 工實施狀況에 關한 質問	嚴詳燮	二九	四九、七、二	四九、七、六	保健社會部長官
二九	復興行政 및 政策에 關한 質問	朱耀翰	二九	四九、七、五	四九、八、三	復興部長官
二九	參議院議員選舉에 關한 質問	吳緯泳	二九	四九、七、五	四九、八、一	內務部長官
三〇	政府의 參議院議員選舉不實施理由에 對한 質問	柳珍山	三〇	四九、九、四	四九、一〇、六	內務部長官
三〇	水產政策 및 工實施狀況에 關한 質問	徐廷貴	三〇	四九、三、一	四九、三、三	商工部長官
三四	韓美行政協定締結과 韓日會談에 關한 質問	鄭一亨	三四	四九、二、四	四九、三、二	政府
三四	換率에 關한 質問	朴海植	三四	四九、二、九	四九、三、二、六	財務、復興、商工部長官
三五	過渡政府의 人事政策과 戒嚴事務에 關한 質問	朴炳培		四九、五、三		
三五	過渡政府의 當面課業과 工遂行에 關한 質問	柳 鴻		四九、五、三		
三五	不法不正蓄財에 關한 質問	梁一東		四九、六、一八		
三五	公路行政에 關한 質問	李鍾南		四九、六、三		
三五	文教行政에 關한 質問	尹宅重		四九、六、三		
計	一一一					

附 式辭와致辭

第二十九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오늘 不肖한 本人이 다시금 第四代民議院議長의 重責을 맡게되고 그 開院式이 되는 第二十九回 臨時國會를 여는 자리에서 大統領閣下를 비롯하여 內外貴賓 여러분의 臨席을 얻어 開會辭를 드리게 된것을 그지없는 기쁨이요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多事多難하였던 三代國會도 民族의 念願을 成就하지 못한채 저물고 이제 새로운 民族의 所望과 抱負를 안고도 自由萬邦의 크나큰 期待를 받으며 그 歷史的인 幕을 올리려하는 嚴肅한 이 瞬間에 國民에 依하여 우리에게 지워진 重大한 使命을 생각할때 實로 두 어깨의 무거운 責任이 없습니다.

十年이 한 歲月이달 말이 있거니와 이는 十年이되면 모든것이 어떠한 歸結을 보게될만한 時日이라는 뜻인 줄 압니다. 우리가 이미 建國十年의 歷史를 가졌고 그동안 制憲國會를 승하여 三代의 國會를 가져왔으나 努力의 結果가如意치 못할제는 언젠나 아직도 建國의 歷史가 짧은것은 口實삼아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建國十年되는今年에 그 任期가 시작되는 四代國會로부터는 우리의 功績이 적은것을 建國日淺한 탓으로 돌릴수는 없는것을 깨달아야 할것입니다.

여기있는 四代民議員 여러분 가운데는 그 殆半이 이미 議政生活의 經驗이 豊富하신 분들이거나 또 全然새로이 議政壇上에 오르게된 분들이라 할지라도 平素에 至大한 關心을 가지고 政局의 흐름을 보아 오신것을 믿는 까닭에 이 자리에서 過去의 어떤것이 옳고 어떤것이 그르며 그 因果關係가 어떻게 되는 말씀은 드릴 必要는 없는줄로 압니다. 다만 過去 成敗의 모든 經驗이 우리 앞날의 敎訓이 되고 指針이 되어 우리가 重大한 일에 處하였을때에 옳은 判

斷과 바른 處事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四代民議院위에 負荷된 使命의 몇가지를 말씀드림으로써 우리 서로가 覺悟를 一層 굳세게 하고자 하는바입니다.

첫째는 國土統一의 成就를 期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統一없이 살수 없는 것은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事實입니다. 悠久한 半萬年의 歷史를 가지고 言語와 風習이 같은 單一民族이 外勢의 影響으로 말미암아 두갈래로 갈리게 되고 父母, 親戚이 散在四方하게 된 이 不自然한 狀態는 우리 民族의 歷史뿐만 아니라 全人類史上의 一大悲劇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나라가 自主獨立國家로서 그 資格을 갖추기 위하여서는 經濟的으로 또 生理的으로 決코 兩分될 수 없는 運命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堯舜의 治績을 가지고도 眞實한 泰平年月을 期할 수 없을 것이요 아무리 巨額의 外國援助를 받는다 할지라도 自立할 수 있는 날은 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苦難이나 不幸이 國土의 兩斷으로부터 오는 것인즉 우리가 죽지않기 위하여서라도 어서 바빠 統一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우리의 힘을 기르고 自由萬邦과의 紐帶를 一層 強化하여 國防을 盤石위에 놓아야 할것은 勿論이요, 어떠한 事態에도 對備할 수 있는 萬般의 準備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北韓同胞가 自由選舉로 選出하여 보내는 議員들이 빈 議席을 채우는 날이 하루바삐 오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메어진 最大의 使命인 것입니다. 그러나 國民을 代辯하는 우리의 입으로 國土統一을 云云한제 外勢에 阿附하여 大韓民國의 神聖한 主權을 스스로 冒濫하는 輕舉妄動이 秋毫라도 있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둘째는 經濟復興에 邁進하여야 할것입니다. 北韓의 豊富한 地下資源과 電力이 또 南韓의 豊富한 農產物과 人的 資源이 서로 絕緣된대로 自立經濟의 方案을 樹立하기는 어려운것이지만 우리는 國土兩斷의 試鍊속에서도 經濟復興을 推進시키기에 게을러서는 아니될것입니다. 그중에도 다음의 몇가지는 特히 留意할 點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一、 우리나라가 自古로 農本國으로 自處하여 왔으나 經農方法, 水利事業, 治水治山等の 後進性 및 農村經濟의 貧困等 農村啓發의 길은 아직도 멀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都市에 있어서의 工業振興은 農村問題에 못지않게 喫緊한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農工業어디에도 치우치지않고 併進할수있는 緻密한

計劃이 樹立되어야 할 것입니다.

二、우리가 五大基幹産業으로 하는 電氣·肥料·洋灰·石炭·板硝子等の 生産施設은 外援을 얻어서 比較的 順調하게 進捗되고 있으나 其他 中小工業의 均衡的인 發展을 爲하여 또한 細密한 計劃이 있어야 할 줄 믿는바입니다.

三、國際收支의 改善이 時急히 要請되고 있습니다. 輸出을 늘여서 外貨를 獲得하고 輸入을 줄여서 國産品을 愛用하는 方向으로 國民이 同調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其他 國民所得의 增進과 生産事業에 重點投資를 爲한 研究도 必要한 것으로 아는바입니다.

세계는 無益한 政爭을 止揚하고 政治道義를 昂揚하여야 할 것입니다. 過去의 經驗으로 보건대 與野間政爭은 無益한 것이 建設的인 것 보다도 훨씬 많았던 것입니다. 때로는 싸우는 自體가 與野 어느편에도 無益한 것은 勿論 오히려 兩便이 아울러 損害를 보고 國會의 威信을 떨어뜨리고 國民에게 근심을 끼치는 事例도 非一非再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이 다 無用의 싸움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터입니다. 며칠고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國民은 옳은 判斷과 正當한 批判力을 가진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與野間에 넓은 雅量과 崇高한 政治道義는 昂揚하여 明朗한 政治를 實現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懇切히 付託하는 바입니다.

네제는 公을 앞세우고 私를 버리자는 것입니다. 國民이 우리를 보면 까닭은 나라를 爲하여 일을 하라고 보낸 것이요, 決코 個人의 名譽나 地位, 또는 利權獲得을 爲하여 보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名利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불쌍한 政治家들을 볼 때 實로 寒心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四代民議院에는 이러한 不覺者는 한 사람도 없어야 할 것이요, 또 없었으므로 믿는바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視野를 넓혀서 世界情勢와 時局을 바로 認識하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오늘날 서는 어느 나라를 勿論하고 國際關係를 完全히 離脫하여 存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友邦의 市勢가 어떨든 어느나라 政權이 바뀌든 어디서 戰爭이 벌어지면 吾不關焉이라는 態度는 政治家로서 落伍를 뜻하는 것입니다. 恒時 自己研磨에 힘쓰고 國際情勢를 살피며 時局을 바로 認識하는데서 힘차고 積極한 政治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與野가 眞正한 愛國心으로 서로 일고 서로 돕고 서로 鞭撻하는데서 大韓民國은 힘차게 자라날 것입니다.

끝으로 行政府와 司法部의 絶對的인 協助와 聲援을 바라며 大韓民國의 發展을 爲하여 物心兩面의 援助를 베풀어 주는 友邦諸國 使臣께 우리의 感謝를 貴國民에게 傳達하여 주시기를 付託드리면서 이로써 開會辭를 代身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九一年六月七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大 統 領 致 辭

議長, 四代民議員, 議員諸氏, 또 모든 貴賓 여러분들 오늘 이 集會는 우리나라의 歷史的인 큰 機會이며 또 嚴肅한 자리입니다.

第四代 民議員은 우리의 共和自由民國의 第十週年記念日을 앞두고 가장 緊要한 會議을 열게 된 것입니다.

오늘에 와서 우리가 지나간 뒤를 돌아다 보면 앞이 어먼때는 慘酷한 그런 中에서 지금와서는 우리의 立場이 크게 改良이 되었고 世界 모든 나라 앞에서 前보다 굳세고 강한 地位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數多한 戰爭 傷痍軍人들이... 지금은 점점 復舊가 되어 가고 있으며 우리의 經濟도 날로 改良이 되어나가는 증입니다.

또 우리 國軍은 微弱하던 形勢가 새 武器와 또 現代軍物들이 차차로 들어 오게된 結果로 따라서 더욱 強해진 것입니다. 우리 民衆은 이 困難한 時期에 強力한 力量을 發揮해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이나 困難한 形便을 當할 지라도 能히 이겨 나갈만한 그 자리에 우리가 이른 것입니다. 그 中에도 第一 特殊한 것은 이 가장 危險하고 困難한 時期에 앉아서 우리 民衆이 共和的權利와 또 自由를 누려가고 行하고 있는 것입니다. 個人의 自由權利를 充分히 利用해 나가게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해나가게 되는 것은 卽 우리들의 成功을 證明하는 것입니다. 이번 選舉에 被選이 되어서 오늘 이 엄숙한 자리에 參席한 여러분들에게 政黨이나 政治問題에 대하여 어떤것을 막론하고 난 熱情的으로 致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 國民의 投票로 選舉되어서…… 받아들인 터인데 이렇게 民主權利를 使用하기에 이른것은 우리가 다 權利를 保護하기 爲해서 원수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職責은 우리 大韓民國의 모든 同胞들에 받은 使命을 더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바라며 希求하는바는 討議하고 또 생각하여 여러가지로 計劃하는 모든일이 다 어떤 政黨의 所屬이나 또 政客의 思想으로 일이 作定이 나오지 말고 오직 큰 政治家의 度量으로 생각이 모두 나와서 우리나라의 重大한 사건과 問題를 正當히 解決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第一 必要한것은 政治家의…… 큰 政治指導者들도 責任을 지셔야 될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내가 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임으로 해서…… 全力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民國에 침투하고 侵略하려고 하는…… 그 밀고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큰 問題가 되는것입니다. 卽其 產軍은 各方面으로 우리나라에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그 中間…… 그 中間해가고 있으니 正談과 地下工作과 또 暗殺…… 이걸 지금 자꾸 計劃을 해가지고서 점점 자꾸 이쪽으로 繼續해서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중에서 여기에 우리가 여간 조심하고 여간 밝히지내가지고 있으면 將次는 우리 사람 중에서도 남의 罪惡과 政治上에 빠져서 남에 利用이될 그런 염려가 있는것입니다. 詭譎한 計策에 빠지거나 추아들이가지고는 우리의 形便을 어떻게 만들 그런 염려가 없지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行할 立法府의 責任은 어려운 일인것입니다. 進展하는 일에 合同되기가 늘 容易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 사람의 뜻을 합해 나가 한데 모아 나가자고 할적에 그리 容易하지 않은 것입니다. 일에 每樣 試驗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해나가는 직에는 밖에서 별 잡음이 다 들어와서 무슨 어려운 일을 만들어 내는지 모르는 까닭으로 해서 더욱 여러분들이 그리 時期에 어려운 것을 아시고서 조심해서 늘 깨워가지고서 精神차려 주셔야 될것입니다. 사람…… 우리 民衆에 對한 責任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무슨 方式으로든지 사람들이 다 우리 같이 살자는 그 目的을 가지고 살길을 차려나가야 될것입니다. 農村에서 生活하는 사람들의 生活의 程度가 좀 낮도록 만들어주어야 될것이고 教育은 더욱 發展시켜야 될것이고, 또 工業이 날로 發展이 되어서 우리 文化가 자꾸 發展이 되어 나가며 增産이 되며 밖에 나가서 外國市場에서 우리 物件이 나가 퍼져 가지고서 財政을 얻어 들여와야 할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며는 協力해 가지고서 한데 舍해나가는 일이 大端히 必要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께 懇請하는 바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의 希望하는 것이나 要求하는 것이나 또는 全國에 有益한 것이라고 不可不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모든 重要한 일에 第一 重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努力해야 될 것에……全的……全國……傳統이 우리 民族들이 다같이 잘 살며 共産軍을 막아서 侵略者가 밀고 들어와서 亂離를 만들지 못할만한 것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第一 重要한 것입니다.

이제 四代民議院에 또 다른 方面으로도 緊要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다름이 아니라 世界의 모든 耳目이 지금 우리 韓人들에게 注目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前에 없던 注目이 우리에게서 지금 와서 當해 있으니 世界 反共戰線에서 우리가 第一 앞에서 있다는 그 名譽를 가지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의 怨讐든지 우리의 親舊든지 다 우리가 하는 일과 말을 仔細 들으며 仔細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操心해 가지고서 남에 자랑 할만한 그 態度와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世界의 指導者가 되고 저하는 慈心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自由와 奴隸의 地位를 다투어서 競爭이 되는 자리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責任을 避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무슨 내놓고 싸우는 것이 卽 그것입니다. 남과 競爭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남 앞은 자리를 우리도 가져야 되겠다는 그것으로 해오는 까닭으로 해서 지금 누구나 남도 우리 韓人에게 대해서 故意로 信賴할 사람들이 믿을 사람들이 없을 만치 되어나가는 것입니다. 世界의 形便을 도라다 보면 共産黨을 除外하여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점점 增進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디든 가든지 共産黨 사람들이 저희가 다 무엇이든지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들이 主張을 하겠다는 그 意思들입니다.

그 생각이 차차 世界에 퍼져서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그 勢力을 세가지고서 戰爭을 해서 이길 地境간 으면 남의 財産을 저피도 얻어다가 쓸 수 있겠다 해서 저기에 틀러가지고 싸움하는 者들도 많이 있지마는 또 그 한 便으로는 이것을 없애야 되겠다고 反對하는 사람들도 우리 韓人들 모양으로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서 지금 世界 形便을 가만히 보게 되려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共産黨을 해쳐 이겨 가지고서 平和로 살자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한 까닭으로 해서 한 번으로 보려는 참담한 狀態가 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런데 有望한 것으로 便으로 또 보게 되며는 佛蘭西에서는 「제네달·외골」이라고 하는 「외골」 그분이 以前부터 法國의 큰 指導者로 共產黨을 치기에 그분이 有力한 사람인데 그 共產黨들이 들어 앉아 가지고서 그분을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 두어서 그 結果로는 法國의 政府가 七零八落해서 몇 週日씩을 政府가 없이도 지내 왔던 것이요, 그런데 차차 歐羅巴에서도 人心이 돌아가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차차 共產에 대한 그 反對의 힘이 자라나는 까닭으로 해서 지금 와서는 「제네달·외골」을 法國人들이 投票해서 내세워 가지고서 그분이 總理大臣이 되어가지고 그 法國國會에서 이분에게다가 委託을 해서 여섯달동안 안으로는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그분이 지금 붙잡아 가지고서 投票를 받아 가지고서 모든것을 다시 整頓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바라기는 그분이 限度한 內에 成功을 해서 共產黨을 다 내쫓고서 民主政府로 다가 鞏固히 세계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다.

또 亞細亞쪽으로는 지금 급한 곳이 여러 곳이지만는 第一 우리에게 關心가지는 곳은 「印度네시아」에요, 「印度네시아」가 法國 사람들이 무얼 못가지고... 西洋 사람들의 侵略 밑에서 植民地로 許諾하려하던 나라 중에서 印度「네시아」의 八千萬되는 사람들이 거만 共產黨에 싸여 끌려 가지고서 어떻게 될지들 모르는 中이에요, 그런데 그 다스릴 사람들이 共產黨과 合해 가지고서 共產에 불이려고하는 그것을 民衆들이 듣고 나서 革命亂離를 만들어 가지고서 싸움을 해오는데... 속에 第一關係되는것은 蘇聯이 거기에 들어서 모든것을 다 절단 내려고 하는 中에서 어려운것을 가지고 있는 中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 사람들이 요새도 「데모스트레이손」을 하고 그 큰 會議를 열어가 가지고서 自願을 해서 우리 印度「네시아」에 우리가 가서 거기를 살려 가지고서 共產勢力을 막아야 亞細亞의 모든 나라가 平安하겠다고 그대가 가지고서 이렇게들 힘써가고 있는 中이니까 우리 사람들이 지금 民主政策을 守護하고 自由權利를 爲해서 이웃사람들의 自由權利까지들 爲해서 목숨을 내놓고서 할려고 한다는것은 實로 남들이 稱讚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發論하기는 亞細亞의 모든 自由國家들이 合同해가지고서 印度「네시아」에 가서 共產黨이 거기를 侵犯

못할만치 만들어 가지고 싸워서 自由權利를 保全하고자 하는 그만한 中에 있으니까 이런것은 지금 우리 이웃 나라 사람들도 우리 사람들의 그 勇氣를 稱讚하여 또 우리가 바라기는 亞細亞 모든 나라들이 다 우리와 합해서 印度, 「네시아」에서 反共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蘇聯에 所屬이 되지 않도록 만들것을 決心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바입니다. 多幸히 印度, 「네시아」는 아직까지도 어데 빠지지 않고 지금 그냥 있는 것이며 우리도 그 속에서 할 수 있는대로 어데까지든지 힘써서 印度, 「네시아」를 救濟해 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第一 緊急한 決心은 우리가 늘 밤이나 낮이나 자나 깨나 생각하는 바와같이 以北을 우리가 統一해서 以北同胞들이 죽을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살려내 가지고 우리나라를 統一해야 되겠다는 이것이 우리의 第一 緊急하고 重大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아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中國共産黨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얼마씩을 내놓고서 물러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計劃을 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友邦 사람들에게 다 要請하는것은 우리가 더 기다릴수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들을 許諾해서 우리가 가서 이걸 다 몰아내 가지고 統一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萬一 中國共産黨軍들이 四圍로 물러나면 統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다 無事하게 할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主張을 하는지 해가지고 올라가서 물러쳐 가지고서 回復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國會에서 職責을 行해 나가는데에는 그동안에는 우리 나라의 할인도 많고 또 우리가 하고싶은 것도 많은 것입니다. 여기에 對해서 내가 覺悟되는것은 여러분이 그런 機會를 當해가지고 이것을 여기에 우리가 合心해서 나가도록 할것을 國會에서 힘을 많이 써주셔서 우리가 지금 軍器도 얼마쯤 있는것이고 우리가 싸우해야 될것을 의거로 알고 우리 友邦들도 다 알고서 막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決心하고 일어나서 올라가게 될지경이면 大端히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決死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비는것은 여러분의 良心을 하나님께서 指導해 주셔서 智慧로운 길로 義로운 길을 찾아가시고서 이 神聖한 國會에서 나오시는 말과 計劃이 모두 남의 나라 사람에게 稱讚을 받을만하며 榮光받을만하며 우리 民族에게 福스러울만한 일들을 끝까지 行해서 우리는 지금이 어려운 이때에 앉으니만치 政黨 言論이란든지 무슨 利害關係란든지 다 超越해가지

고서 이 어려움을 非常한 때이니 마치 우리 非常한 功績을 世界에다가 내가지고서 우리 歷史를 다시 榮光스럽게 만드는데 이 國會에서 決定해나가지기를 付託하며 바라는 바입니다.

第二十九回國會(臨時會)

閉會式辭

오늘 우리는 第二十九回 臨時國會를 閉會하기 爲하여 모인 것입니다.

本 臨時國會는 第四代 民議院이 가진 最初의 國會로서 지난 六月七日에 開會하여 八月二十六日에 이르기까지 會期八十一日에 亘하였으며 開會日數 四十二日間에 追加更正豫算案을 비롯하여 處理된 議案은 法律案、建議案、決議案等 五五件에 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議案을 處理하는데 있어 豊富한 議會生活의 經驗이 있는 議員들의 勞苦는 말할 必要도 없겠거니와 特히 百席 가까운 議席을 차지하는 新議員들이 與野를 莫論하고 開會劈頭로부터 眞摯하고 熱誠있게 그들의 所信을 披瀝하여 주었으며 旬餘에 걸치는 深夜會議에도 各其 不撓不屈의 熱誠으로 臨하여 준것은 이나라 議政이 健全한 發展을 보이는 表象으로 믿는 同時에 衷心同慶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 會期에도 三代國會가 그러하였듯이 與野의 激甚한 政爭을 일으켰거니와 우리는 이로써 失望하거나 또는 將來를 깊이 憂慮할 必要는 秋毫도 없는줄 압니다.

本人은 오히려 本 臨時國會를 通하여 우리가 다 함께 同慶한 現象을 보게 된것을 기뻐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政黨政治의 具顯과 아울러 우리가 目標하는 兩黨政治의 基盤이 鞏固히 잡혀가고 있는 事實입니다. 지금 二大政黨制를 取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友邦 美國과 英國을 비롯하여 西獨、오스트랄리아、뉴질랜드

等 諸國이 있습니다. 兩黨政治가 가지는 特點은

첫째, 어떠한 政黨을 政權擔當者로 選擇할 것인가 容易하게 判斷되는 點과

둘째, 政策上의 爭點이 國民에게 理解되기 쉽다는 點과

세계로 政權의 安定이 比較的의 쉬우면서도 國民의 信任을 받지 못하는 政黨을 容易하게 바꿀 수 있는 點
등을 들 수 있습니다.

國民이 享有한 모든 自由를 剝奪하고 國民이 政權을 願치 않는 境遇에도 이를 除去할 道理가 없는 一黨獨裁政
治나 混亂과 內紛으로 인제나 政局의 安定을 갖기 어려운 多黨制와 比하여 兩黨制의 優劣을 論하는 것은 오히려
畫蛇添足이 되겠음으로 여기에 省略하는 바입니다. 民主主義國家에 있어서 與野가 樹立하여 國民의 審判앞에 自
黨覽의 理念을 앞세우고 政爭을 하는 것은 民主發展을 爲하여 宜當한 일이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愛國愛族하는 마
음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요, 不必要한 煽動이나 對立 또는 破壞의 言動으로 時局을 騷擾하게 하는 일은 없어
야 할 것입니다.

이번 國會에서 審議通過한 追加更正豫算案中에 特記할 만한 것은 國家公務員의 處遇가 大幅 改善되었다는 點입
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같이 우리가 財政的인 餘裕가 있어서나 또는 豐富한 財源이 있어서가 아니라
吏道의 確立과 公明正大한 政治의 根本條件은 于先 國家公務員의 生活安定에 있는 것을 믿고 萬難을 무릅쓰고 斷
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부터가 이 趣旨를 잘 體得하고 順調로운 實踐을 爲하여 協心할 것은 勿論이요, 모
든 國家公務員은 國家의 繁榮과 國民의 福利를 爲하여 倍前의 忠誠과 努力을 기울여 주시기 懇切히 부탁하는 바
입니다.

會期中 議員同志 여러분들의 수고를 感謝하며 數日後에 迫頭한 第三〇回定期國會에서는 一層 빛나는 成果를 얻
기 爲하며 與野가 아울러 心身의 準備를 갖추실 것을 믿고 바라면서 몇 마디로써 閉會辭에 代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九一年八月二十七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第三十回國會(定期會)

開會式辭

우리는 지난 八月二十七日 第二十九回 臨時國會를 閉會하고 오늘 다시 二次로 第三十回 定期國會를 開會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第二十九回 臨時國會에서는 四二九一年度 追加更正豫算案을 審議通過하였거니와 本第三十回定期國會에서는 四二九二年度 歲入歲出豫算案을 審議하는 보다 重大한 任務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重大한 國事를 審議하는 데 있어 우리가 힘쓰고자 하는 것은

첫째로 與野의 緊密한 協助와 寬大한 互讓의 雅量으로 臨함으로써 不必要한 政爭을 止揚하자는 것입니다.

本人이 前者에도 말한바 있거니와 우리가 漸次 兩黨政治의 基盤이 窄혀가고 政黨政治의 具顯을 보게되는 것은 同慶하는 일이지마는 與野相互間에 協助와 雅量이 不足함으로써 過酷한 政爭을 惹起하여 왔던 것입니다. 우리들 二三名이 三千萬의 代辯者인 聖職을 지니고 있는 身分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면 敵아닌 同志들끼리 多少의 意見差異가 있다고 하여 流血의 亂鬪가 있을수 없는 일이고, 이러한 行動을 政治活動이라고 誤認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우리가 建國初에는 오랜 日帝壓政에서 벗어난 直後이라 議政生活의 眼目이 未及하고 疎忽한 點이 적지 않았으나 十年歷史의 貴重한 經驗을 通하여 이제 모든 國民은 政爭의 是非를 透徹하게 判斷할 能力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相對者가 있다면 그것은 共產徒輩일 것이요, 같은 國憲아래에서 國事를 論議하는 同志들은 아닐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지나친 政爭이 國民士氣에 響影을 끼치거나 敵으로 하여금 間隙을 엿볼수 있는 機會를 주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둘째로 이번 豫算國會를 通하여 經濟의 安定과 民心의 安定과 나아가서는 政局의 安定을 圖謀하도록 서로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지난 臨時國會에서 公務員의 處遇改善이 通過되었거니와 이 實行에 있어서 與野는 勿論이요 國民全體의 協助와 努力이 要求되는 것입니다. 이 機會를 利用하여 一部沒知覺한 者들의 輕率妄動과 惡質謀利輩

들 등의 跳梁으로 物價가 騰貴하여지고 換率의 維持가 困難하여진다면 모처럼 公務員處遇改善도 無意味한 것이 되고 말 것이요, 이에 따르는 國民의 苦痛도 또한 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近間 漸次 들이 잠려가고 있는 基幹産業의 育成과 中小企業體의 育成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風波를 惹起시켜서 政局을 어지럽게 하고 民心을 騷擾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格外한 留意를 하여 주시기를 마라는 바입니다.

세계로 農村의 振興을 꾀하며 農民의 生活苦를 早速히 없이할 方途를 講究實踐하여야 하겠읍니다. 日帝時節에 는 春窮期가 되면 農村에는 飢饉과 나부질질로 延命하는 家口가 不知 甚數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때를 回顧하면 農村生活의 向上은 天壤의 差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農民의 生活苦를 免할 境地까지는 遑速한 感이 없지 않읍니다. 特히 不合理한 高利債에 허덕이는 農民들에게 完全한 債務整理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早速한 時日內에 低利債로 바꾸어 줄 方途를 講究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 아직도 여러모로 後進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우리 農村의 振興策을 爲하여 誠意있는 研究와 討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다음은 國際情勢에 至大한 關心을 가지야 하겠으며 이에 對應한 萬般策을 講究함과 同時에 恒時 緊張과 留意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겠읍니다. 中東事變의 緊張이 풀리지 않은채 다시 世界의 注目은 臺灣海峽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銘心할 것은 어디서 무슨 事變가 벌어지는지 그 根本原因은 한가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한 必要도 없이 그것은 共產徒輩들의 侵略企圖로 말미암아 誘發되는 問題라는 것입니다. 옛날의 國防은 軍人들만이 하는 것으로 믿어왔고, 또 事實 그러하였거니와 오늘날의 國防은 國民全體의 責任이요, 前方도 後方도 없다는 事實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겠읍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與野의 緊密한 相互協助와 互讓의 너그러운 雅量으로 이번 國會가 아름다운 結實을 가져올 수 있기를 懇切히 付託드리며 또 國民들 앞에 眞摯한 마음으로 憂國衷情을 다하여 이번 國會에 臨할 것을 盟誓하면서 이로써 第三十回 定期國會의 開會辭을 삼고자 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九一年九月一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대통령 치사

제三〇회 국회 정기회의 개회식을 당해서 간단한 말로 치사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토의와 변론등으로 많은 노력을 해서 지난 국회개원이후로 지금까지 잘 되어 왔으며 그 중에 다소간은 모든 개인에게 다 충분한 결과물 주었다고는 하기 어렵지만 이만큼 회기를 치르고 다시 제三〇회 국회를 개최하게 되는것을 여러분들에게 치하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나간 일중에 잘 된것만을 생각하고 잘못된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면 앞에 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울을 삼아서 진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것은 국회에 대해서 취모벽자 하려는 악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서로가 권고하는 뜻으로 앞에 일을 잘 해나가자는 욕망에서 하는 말인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행정, 입법, 사법, 각부에 있어서 한가지 제일 큰 목적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들의 지혜와 능력을 공헌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안류에 영광스럽고 표준이 될만한 일을 하는 나라가 되도록 만물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잘못하는것을 포탄삼지 말고, 남이 잘하는것을 모범해서 지나간 四〇년동안에 우리가 사랑 노릇을 못한것을 동분히 여겨가지고 다같이 일을 해서 그것을 씻어버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말은 아니하겠으나 우리가 앉아서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잘만한다면 빛나는 이름이 역사에 오르게 될것이고 그러지 않고 잘못되면 전 민족과 나라는 수치스러운 광경을 당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자랑하는 민족이며 고대부터 예의지국으로서 남에게 낮은 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싸워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차리와 명망을 가진 국회의원들은 자기의 지위를 욕되게 하는일이 없어야만 되며 대한민국의 존귀한 존영을 손실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것이니 국회의원의 전체는 각개인이 잘 하고 잘못하는것을 막론하고 실수하는것이 나 범과하는것이 없도록 각자가 나군은 결심을 해야 될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으로서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항상 국가의 지위와 영예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등과 참가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항상 우리나라의 안위와 광영을 위해서 노력분투 하여야만 될 것이니 앞으로 더욱 분투해서 우리국민의 행정, 입법, 사법의 세기관이 만사에 합심협력으로 국부병강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개인이 제일 크고 거룩한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민족은 날로 진전되어 더욱 부스럼게 되어나갈 것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진장과 모든 부리를 축복하며 이번 회기에 많은 성공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단기四二九一年九월一日

대통령 리 승 만

(외무부장관 조정환 대독)

第三十回國會(定期會)

閉會式辭

오늘 四二九一年을 마지막 보내는 날 第三十回定期國會를閉會하려 하는 이 자리에서 沈痛한 感을 느끼는 것은 本人뿐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지난 九月一日로써 開會한 本國會는 第四代民議院이 가지는 最初의 定期國會일뿐 아니라 建國十年의 終盤을 裝飾하는 國會로서 本豫算의 審議는 勿論 其他 여러가지 重要案件이 處理될것을 크게 期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開會劈頭부터 些少한 일에도 與野의 意見이 順調로이 合議되지 않아 一抹의 憂慮를 禁치 못하던 次에 國家 保安法改正法律案을 둘러싸고 與野의 對立은 더욱 深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디어는 願치 않는 結果를 招來

한 것은 결코 가슴아픈 일이요, 또國民 여러분께 對하여 罪愆하고 未安하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與野의 對立이란 어느나라 議政界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요, 또 與野의 意見對立이 있으므로 해서 民主政治의 發展向上도 期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對立에는 스스로 限界가 있어야 하는 것이니 우리는 이 限界를 지키지 못하고 지나친 對立을 일으킨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三代國會에서도 激甚한 政爭을 가지기는 했으나 그 政爭 가운데서도 民法이나 選舉法같은 重要な 案件을 妥善하게 處理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與野가 어떠한 重要な 事이라도 協力해서 處理할 수 있는 可能性을 發見하고 마음 깊이 기뻐했으며 이번 四代國會에서는 이 紀風을 더욱 功長해서 與野가 充分히 그 政治理念을 主張하면서도 雅量있는 協助아래 圓滿한 處理를 할 수 있을것을 믿어왔던 것입니다. 그 期待가 컸더니만큼 失望도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失望만으로는 國民에게 委任받은 重責을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于先 國民에게 未安한 點을 깨닫고 今後에는 이런일이 다시 없도록 깊은 決心과 覺悟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泰山같고 우리의 갈길이 가시밭 같으니 자그마한 일에 마음을 좁게 쓰는 버릇은 彼此가 다 버려야 할 줄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가 가졌던 유감이나 슬픔이나 不滿은 묵은해와 같이 깨끗이 사라지고 希望의 새해는 和氣滿堂한 가운데 與野가 協助하여 民主建設에 邁進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閉會辭를 대신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九一年十二月三十一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第三十一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오늘 우리는 第三十一回臨時國會를 尹濟述議員外 六十六名의 召集要請에 依하여 開會하고자 모인 것입니다.

지난 第三十回定期國會가 前無한 波瀾가운데 슬픈 終幕을 내리게 된 것은 못내 遺憾된 일인 同時에 다시는 이
 편일이 없도록 우리 서로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거센 風波와 함께 戊戌年이 저물고 希望의 새해가 밝았으니 모
 든 遺憾이나 舊怨은 묵은 해와 함께 보내버리고 새로운 雅量과 새로운 抱負와 새로운 計劃으로서 이해를 맞이해
 야 하겠읍니다. 우리는 過去에 與野가 大小事를 莫論하고 서로 反目하여 協助의 實績을 올리지 못함으로써 政界
 의 沈滯를 가져왔으며 國民 여러분께 거듭 근심을 끼치는데 對하여 未安하고 罪悚하게 생각하며 現在 當面하고
 있는 與野問題에 關하여 그 收拾이 容易하지 않은 줄 아는 바이나 앞으로의 國事に 關하여 落心하거나 크게 근심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李朝五百年의 黨派 싸움의 結果가 어떠하였던가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民族은 國難을 당하면 불타는 愛國心을 發揮할 수 있는 偉大한 民族임을 알고 있기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어려움은 그 解決의 길이 먼 것 같으면서도 極히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
 다. 얼마前 先進民主國家의 元首가 國會에 보낸 敎書 가운데에 國會運營의 原則을 다음과 같이 밝힌 일이 있습니다.
 多數黨은 언제나 少數黨의 좋은 點을 採擇할 雅量을 가져야 할 것이며 少數黨으로서도 多數黨의 힘이 國會를
 運營하는 것이 民主政治의 原則이라는 것을 尊重해야 된다고 하였읍니다.

簡單하면서도 民主政治의 要訣을 남김없이 表現한 말로서 우리가 깊이 吟味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도 이러한 點을 認識하고 國事를 論議한다면 빛나는 民主發展의 結實을 보게 될 것을 疑心치 않는 바입니다. 바
 라건대 與野가 最大의 雅量과 불타는 愛國心을 가지고 我執을 버리고 協助함으로써 이 難局을 收拾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簡單한 몇말씀으로 閉會辭를 삼고자 합니다.

檀紀四二九二年一月十二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第三十二回國會(臨時會)

閉會式辭

第三十二回臨時國會가 與野의 意見差異로 하나의 議案도 上程하지 못한채 아무 成果없이 그 會期를 마치게 된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議政史에 前無한 일로서 實로 遺憾된 記錄이 되는 것은 勿論 國民에게나 外國에나 後孫에게나 알리고 싶지 않은 슬픈 事實입니다. 元來 與野가 和同하기 어려운 理由로서 召集된 本臨時國會이기는 하였으나 互讓의 雅量과 愛國衷情으로 難關을 打開하여 출것을 믿고 一縷의 希望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本人은 이런 會期가 비록 아무 成果는 없었지만 固執만 있고 讓步가 없는 結果가 어떻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善敎育이 되어서 다음 會期부터는 또다시 이런일이 없도록 되기를 眞心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는 우리 祖上들이 일삼던 黨爭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준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黨爭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結果는 스스로 明白한 것입니다. 지금 北에서는 共產傀儡의 蠢動이 날로 活潑하여지고 東에서는 日本의 無道한 恣意함이 우리의 感情을 激發시키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不覺이 敵에게 機會를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장 무거운 마음으로 이 臨時國會를 닫지마는 다음 國會에서는 새로운 決心과 새로운 希望으로 臨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國民 여러분께 眞心으로 未安함을 禁치 못하는 同時에 다음 會期에 빛나는 成果를 거둘것을 盟誓하면서 第三十二回臨時國會를 닫는바입니다.

檀紀四二九二年二月十一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第三十二回國會(臨時會)

閉會式辭

우리는 지난 十一日 悲愴한 感懷로 第三十一回臨時國會를 閉會한 것을 記憶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의 무거운을 느끼면서도 새로운 希望을 가지고 第三十二回臨時國會를 열고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希望이라고 해도 우리가 堂而皇之한 어려움이 없어진 것도 아니며, 또 解消될 可望이 보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雪上加霜으로 日本의 妄動이 韓日間의 危機를 자아내고 있지마는 이 不意의 外患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和合하지 못하던 與野가 웃는 낯으로 손을 잡고 이 難問題를 克服할 誠意를 보여 주었다는 點에서 希望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國會는 그 初頭에 日本問題를 가지고 眞摯한 論議가 있을 줄 믿고 바라거니와 그 다음에 國內問題를 가지고 定期必 合意點을 發見하기 爲하여 與野가 最大의 讓步와 雅量을 보여 줄 것을 懇切히 바라는 바입니다. 十萬의 在日僑胞가 生地獄으로 끌려가는 것을 救出하기 爲하여 우리가 어떠한 代價라도 此를 覺悟를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三千萬이 안타까운 心情으로 國內問題를 하루마에 解決할 것을 呼訴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一瞬이라도 安閑한 마음으로 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日本問題를 생각할 때 個人을 超越하고 黨을 超越하듯이 國內問題에 있어서도 個人을 超越하고 黨을 超越할 수 있다면 國事가 이렇게 沈滯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第三十二回臨時國會는 第三十一回國會의 不名譽스러운 記錄을 씻어버리고 빛나는 成蹟을 거둘 수 있도록 與野가 서로 協力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로서 閉會辭를 삼고지 하는 바입니다.

續紀四二九二年二月十八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第三十二回國會(臨時會)

閉會式辭

지난 二月十八日 開會된 第三十二回 臨時國會가 一五〇日間の 지나간 會期를 通하여 이렇다 할 成果를 거두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閉會式을 舉行하게 되니 마음의 무거움을 禁할 길이 없습니다.

滿五個月間の 會期中 五十四次의 本會議를 가지는 동안 우리는 겨우 「미이터」協約 加入에 關한 同意案과 在外 僑胞保護對策에 關한 建議案 二件을 處理하였을뿐 本臨時國會의 開會目的이었던 經濟關係立法의 促進과 穀價低落防止策等은 아무런 成果를 얻지 못하고 本國會를 마치게 된 것입니다.

三代國會때부터 院內의 政爭이 國民의 근심을 끼치게 시작하였으나 그때는 激甚한 政爭가운데서도 重要한 일 에 關해서는 與野가 互讓의 美德을 發揮하여 좋은 結果를 얻은 例가 적지 않았으므로 이로써 自慰를 삼았던 것 입니다. 그런데 四代에 들어 와서는 一端 惹起된 政爭은 互讓으로써 妥協을 본 例가 殆無하였을뿐 아니라 計劃的인 政爭이라는 印象을 國民이 가지지 않나 憂慮되는 마도 있습니다. 近來에 와서는 으레 國會開會때면 國民 앞에 決心과 抱負를 말하고 閉會때면 政爭으로 因하여 成果없었음을 謝過하는 것이 하나의 常套가 되어버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도 國民앞에 다시 한번 그러한 謝罪를 들여야 되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希望을 버리지 않습니다. 在日僑胞北送反對 國民運動에 있어서 與野가 머리를 마주대고 協首擬議하였고 어제를 서로 견고 群衆앞에서 北送反對를 외쳤다는 아름다운 事實입니다. 이것이 비록 院內에서의 일만 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一旦 非常時가 오면 些少한 利害들은 超越하여 大義名分을 세울 수 있다는 證佐로서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實情을 살펴보면 各分野에 걸쳐 經濟立法이 時急한 中 特히 農村經濟對策의 講究가 決코 遲延할 수 없는 問題이나 아직도 日帝에 對한 義憤心만큼 우리의 心髓를 울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國民이 우리에게

게 대한 失望을 품는다면 그것은 무거운 結果가 되리라는 것은 明白한 일입니다. 우리가 오는 九月에 열릴 定期總會에서 다시 만나겠거니와 그 때에는 過去の 怨恨도 與野의 利害도 모든 것을 超越하여 國民을 爲한 國會活動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가운데는 兩黨政治를 指向하는 同志가 많은 것을 알거니와 野는 與를 忠告하고 激勵하며 與는 野를 부축하고 育成하여 서로 아끼고 돕는에서 民主主義는 發展되는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三十二回 臨時國會의 無爲하였음을 國民앞에 謝過들이며 다음 國會에는 超黨的인 雅量으로 國民의 期待에 報答한것을 여러분과 함께 盟誓하면서 이로써 閉會辭를 삼고자 합니다. 議員同志들의 健康을 빕니다.

단기四二九二年七月十八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第三十三回國會(定期會)

開會式辭

우리가 오는 새로운 希望과 抱負를 가지고 第三十三回 定期國會를 열게된것은 慶賀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七月十八日 三十二回 臨時國會를 閉會하는 자리에서 滿五個月間의 會期中 五十四次의 本會議를 가지면서 不遇二件의 謬案處理을 하였음은 歷史上 類例없는 無爲國會가 되어버린데 대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國民앞에 謝過를 들이던것을 記憶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結果를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빛나는 實績을 올림으로써 國民앞에 最少限의 面目을 세울 수 있는 貴重한 機會를 다시 한번 賦與받은 것입니다. 이 機會야말로 過去一年남직한동안 國民에게 끼친 失望과 근심을 풀어버리고 四代國會도 國會노릇을 하고 있다는 認識을 줄수 있는 機會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本定期國會의 主要任務는 豫算審議에 있을즉 이에 支障을 招來하는 事由를 만들어서는 아니될것입니다. 또 前番 臨時國會의 主要目的이 었으나 實踐을 보지 못한 經濟關係 立法과 農產物價格安定策 및 一般財政經濟安定策 등도 이번 會期內에 圓滿한 處理를 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其中 財政經濟安定에 對하여서는 政府에서 지금 適切한 施策을 세우고 推進中에 있는줄 믿는바이나 立法部의 協助가 必要한것은 勿論입니다. 더구나 日本이 執拗한 僑胞北送計劃은 우리의 悲壯한 決心을 재촉하고 있으며 「라오스」와 印度에 일어난 또 하나의 共產侵略에 對하여 솟아 오르는 義憤心을 누를길이 없는 이때에 우리가 舉族的으로 結束하는데 多少의 弛緩이라도 있다면 國難克服에 支障을 가져올것은 明白한 일이라 하겠읍니다. 우리가 國內的으로 보다 國際的으로 보아서 空前의 重大難局에 處하여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最近 國際情勢가 緊迫하여져서 秋毫의 放心도 許諾치 않는것은 우리가 잘 認識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時局에 있어서 國會가 正常的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고 國民의 信任을 잃게된다면 可恐할 結果를 招來하게 될까 心慮되는 바입니다. 우리가 萬若 이번에도 自覺함이 없이 第三十三回國會마저 不實한 國會로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 自身 쫓겨 어려운 陋名을 歷史에 남기게 될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만은 與野가 一心하여 政爭없는 國會, 協助하는 國會, 團結하는 國會가 되도록 힘을 씀으로써 國民에게 安堵感을 주며 그동안 山積하여 있는 數 많은 議案을 處理하는데 最善의 誠意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큰것을 爲하여 자그마한것에 拘得되지 말고 大局에서서 第三十三回國會를 빛나는 成果로 裝飾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開會辭를 삼고자 하는 바입니다.

檀紀四二九二年九月一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大統領致辭

三二

제三十三회 국회 정기회의 개최를 하게되는 이때에 많은 유감은 아직도 남북통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렇게 끝나거나 가게 되는 것이니 우리 마음은 생각할수록 통분하며 하루바삐 우리의 형편이 진전되어서 앞으로 성공해 나가기를 바라며 또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것 한가지는 때 놓고서는 우리 국사가 금년 일년 동안에 많이 진전이 되어서 파괴되었던 도시와 전국의 방방곡곡이 모두 발전이 되어나가고 있으니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생각을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년전에 우리 나라를 다녀간 사람들도 다시와서 도시의 건물과 도로의 수리등 모든 것이 개량된것을 보고 놀랄게 생각하며 참 잘되어 간다고 칭찬을 하고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동포들은 새 기운이 나서 서울 도시를 동양의 여러나라중에서 한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힘써서 일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런중에 더욱 기쁜것은 우리국회의사당을 건설할 기지를 수년간 두고 백하던중에 지난봄에 남산공원 위에 기지를 때 해서 국회에서 절정을 했으며 또 지금 우리 국군공병들이 이 기지의 정지공사를 하는중인데 지금 정지하고 있는 그것만이라도 구경하려고 매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며 모두 기뻐하고 있는것입니다. 이 국회의사당을 건축하는 데는 전국민의 전력으로 만년대계들이 무워서 우리 민중의 애국심을 크게 표하여야 될것입니다.

우리 국회의 진전되어 나가는 사무로만 보더라도 처음 시작할때는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점점 자리가 잡혀서 앞길이 열려가고 또 우려되던 일이 하나 들썩 다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당문제에 대해서는 다소간 수치스러운 일도 있었고 서로 시비 충돌도 약간 있었으나 인심이 점점 결정이 되어서 차차 안정되어가는 중임으로 아무리 불행한 일이 정당간에 있더라도 우리가 차차 국가의 위신을 위해서 왕피한 일이 없도록 해나가고 있어서 더욱 자리가 잡혀가는 중입니다. 그간에 공산당들이 크게 활약을 해서 사방에서 지하공작으로 침입해서 을적에 어필하는 군기들 가지고 들어오며 어떤때는 배로 잠입을 해서 오는일이 많으며 또 한편으로는 아모아 모계를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아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경찰의 조직이 잘되고 어찌 열심으로 하는지 공산당들이 들어오더라도 며칠이 못되어 다 잡아내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공산당을 잡는데는 우리 경찰이 귀신같다고까지 말

하루 칭찬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정부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우리도 하여금 병력으로 공산분자들을 쳐 물리치게 한다면 얼마아닌 시간으로 우리가 다 정돈할 수 있을 것인데 우방관계로 인연해서 못하고 참고 있으니 마음이 아픈것을 억제하기 어렵은것입니다. 그러나 국제상 우방과 관계되는것을 생각아니할수 없는 것이므로 아직 참아나가고 있는것입니다. 또 우방과의 교제는 날로 친선이 되어서 「구라파」와 남북미주의 여러 나라들과 또 아세아의 우리동맹국들과 친근히 결탁이 되어서 같이 도와나가고있는 중입니다. 경제와 군사상으로 말하자면 지금 미국 국회에서 모든 우방들에게 내주던 원조금액을 감삭해서 미국 국회와 행정부간에 토의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천우들은 말하기를 이원조액이 얼마 감삭될지라도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고 있으니 이분들의 성공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어나가고 있는중이니 우리는 더욱 굳게 결심하고 공고히 준비해서 때가오면 다 일어나서 통일을 시작해야 할것입니다. 오늘 제三十三회 국회 정기개회식을 당해서 간단한 이말로 축하하며 앞으로 국회의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축복하는 바입니다.

단기四二九二년九월一일

대통령

리

승

만

(外務部長官 曹正煥 代讀)

第三十三回國會(定期會)

閉會式辭

지난 九月一日 開會한 第三十三回定期國會가 多大한 成果를 건우고 오늘 그 幕을 내리게 되는 것은 크게 慶祝 할 일입니다.

四二九三年度總豫算案의 審議를 主要目的으로한 本定期國會가 一四二日에 呼하는 동안에 三十五次의 本會議를 通하여 豫算審議를 비롯한 一〇三件의 案件을 處理한것은 實績이라하겠읍니다. 特히 前國會인 三十二回臨時國會가 前無한 無爲國會가 되고만 事實에 비추어 이번國會가 다시금 不幸한 前轍을 밟아서는 아니되겠다는 근심과 注意를 기우려오던 터인데 이렇게 좋은 成果를 올리게된것은 고맙고도 多幸한 일입니다. 이것은 與野議員 여러분의 勇타는 愛國心에 基因한것은 勿論이려니와 또한 서로 서로 讓步하고 協助하는 精神의 發露인것을 믿으며 크게 同慶하는 바입니다.

지난 數三次의 國會를 通하여 있었던 與野의 激甚한 衝突은 民主發展途上에 있을법도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면 서도 國民의 걱정거리가 되고 外人들의 關心의 目標가 되는것을 생각하여 多少憂慮하였으나 이제 는 그것이 杞憂였다는것을 알게 된것입니다. 더구나 正副統領 選舉를 앞에 두고 明朗한 霧圍氣를 만들수 있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라하겠읍니다. 빛가지 本國會를 閉會하기 前에 回顧하고 싶은것은 이 會期中에 우리들 스키고 지나간 重要한 일들입니다. 그 中에도 잊지못할것은 日本의 僑胞北送의 強行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저지른일만도 容納할 수 없는 罪科이려리와 앞으로 그들의 끊임없는 妄動을 注視하고 粉碎해야 할것입니다. 또 國際精勢의 活潑한 움직임 을 보고 우리의 한반와 갈질을 알아야 하겠읍니다.

昨年에 自由·共產 兩陣營의 冷戰, 熱戰, 科學戰, 平和攻勢를 우리는 보았읍니다. 이러한 渦中에서 우리의 갈 길과 할일을 찾는데 疎忽하여서는 아니되겠읍니다. 또 하나는 國內經濟安定에 對한 試練이었던 것입니다. 農漁村의 經濟振興을 爲하여 우리의 努力이 끊임적이 없었으나 穀賤으로 因하여 農民들이 不遇한 가운데 있던 雪上加霜으로 前無한 風水害로 말미암아 더욱 不幸하게된 그들에게 希望과 勇氣를 주어야 할것입니다.

끝으로 付託 드리고 싶은것은 議員 여러분이 各其 出身區에 돌아가시면 닥쳐오는 正副統領 選舉가 公明正大한 模範 選舉가 될수 있는 眞은 國民에게 胥우치는 責任이 있음을 알아서 各自 最善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本人이 이번 會期동안 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고 수고를 나누지 못한 點에 對하여는 特히 罪悚스럼게 여기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健康과 幸福을 빕니다.

檀紀四二九三年一月二十一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第三十四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우리는 빛나는 成果를 거두고 閉會한 第三十三回 定期國會의 뒤를 이어 오늘 第三十四回 臨時國會를 열고자 이 자리에 모인것이다. 그러나 오늘 召集되는 國會가 多數의 意見을 反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좋은 成果를 거둘 수 있을는지 근심되는바 없지 않습니다. 우리는 第三十二回 臨時國會가 無爲國會로 끝난 理由와 第三十三回 定期國會가 成果많은 國會로된 理由에 對하여 너무나 明確하게 알고 있으므로 여기에 眞말을 避하고 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臨時國會를 여는 자리에서 여러분께 付託드리는 바는 얼마 아니하여 實施될 正副 統領選舉를 目前에 두고 열리는 國會이니만큼 이번에도 與野가 合心하여 建設的인 案件을 處理함으로써 좋은 成果를 거두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함으로써 國民이 明朗한 霧團氣아래에 選舉에 臨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마련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가 國會에서 計劃的인건 偶發的인건 다투는 일이 있다면 이는 與를 爲하여서나 野를 爲하여서 도움이 되는 일은 조금도 없음을 믿는 바입니다. 우리 國民은 明哲한 判斷力과 充分한 選舉經驗으로 미루어 어느것이 옳은 일인지 어떻게 하는것이 國家民族을 爲하는 일인지 正確한 判斷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읍니다. 只今 野黨의 大統領候補者인 趙炳玉議員이 身病으로 渡美中에 있거니와 우리는 그의 病勢가 가법기를 바라 는 바이며 또 하루바삐 快癒하여 歸國함으로써 選舉에 支障이 없기를 國民 여러분과 함께 衷心으로 祈願하는 바입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어제 別世한 權五鍾議員께 哀悼의 情을 禁치 못하는 바이며 그의 冥福을 여러분과

함께 비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 번國會를 成果있는國會를 만들기 위하여 與野議員 各自가 힘써 주시기를 懇切히 付託드립니다. 여러분의 建康을 빕니다.

禮紀四一九三年二月二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第三十五回國會(臨時會)

開會式辭

지난 二月二日 開會된 第三十四回 臨時國會가 有耶無耶하게 始終되고 만 것은 甚히 遺憾스러운 일이었으나 不得已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열리는 第三十五回 臨時國會는 憲法第五十三條에 依하여 召集된 것입니다.

本 臨時國會에서는 지난 三月十五日에 實施된 大統領 및 副統領選舉의 開票報告를 받고 그 得票數를 計算하여 當選된 大統領과 副統領을 公表하여야 할 것입니다. 與野國會議員 여러분과 各級選舉委員 여러분 및 全國民의 至誠으로 이루어진 正副統領選舉의 結果를 맺기 위하여 本國會가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當할 때면 더욱 沈着하고 더욱 和同하여야 할 것인데 때로는 本意아닌 事由로 因하여 理性을 잃고 必要없는 勞心을 한 境遇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大韓民國의 矜持를 가지고 大我앞에 小我를 굴릴 수 있는 雅量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親愛하는 與野議員同志 여러분! 이제 싸움은 끝났으니 敗者도 勝者도 다시 손을 마주 잡고 일할 때가 온 것입니다. 國民은 여러분의 그러한 아름다운 情景을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비에 國民을 安心시키고 서로 來日의 建設을 위하여 힘쓰는 것은 우리 義務이기도 하고 權利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決코 이 거룩한 權利와 義務을 지바리는 愚者가 되지않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健康과 幸福을 바랍니다.

檀紀四二九三年三月十七日

民議院議長

李

起

鵬

議事第1担当